연구보고서 2011-24

2011년 빈곤통계연보

2011 Poverty Statistics Yearbook

김문길 · 김태완 · 박신영 · 이병희 · 임병인 · 이서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24

2011년 빈곤통계연보

발 행 일 2011년 12월
저 자 김 문 길 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가 격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00-9 93330

머리말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는 우리사회에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안겨주었다. 공사부문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라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다수가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임시·일용근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저임금에 따른 빈곤이 심화했다. 취업을 포기한 실직자가 늘고 노동시장에서도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불평등도 심화했다. 이 시기부터 양극화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위해요소이다. 빈곤은 다양한 취약계층을 양산하고 가정의 해체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결국 공공부조를 비롯한 사회복지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재정운영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사회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빈곤통계연보가 처음 기획되고 발간이 되기 시작했던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불평등 관련 다양한 지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은 없었다. 개별 연구자별로 빈곤율과 지니계수를 산출하기는 했지만 연구자마다 산출방식과 기본가정이 상이하여 일치된 지표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빈곤통계연보는 정책적, 학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준의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의 시계열적 변화를 제시함으

로써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실태를 횡단면적, 종단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시계열의 풍부성, 표본의 대표성, 통계작성기관의 공신력 등을 고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연간, 분기)를 활용하여 OECD 등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를 산출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사회경제지표는 한국은행,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연보의 형태로 공표되는 주요 지표들을 부가하고 있다.

빈곤통계연보는 여기에 담겨있는 다양한 지표가 함의하는 바를 설명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는다. 정책입안자, 학자, 그리고 관심 있는 독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2차 자료를 생산,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적 연구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온전히 독자들의 몫이다.

본 보고서는 김문길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에서는 김태완 연구위원과 이서현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원외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토지주택연구원의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주셨다. 연구진은 자료수집과 편집에 애를 써주신 김회란 선생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꼼꼼한 검독과 조언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국민연금연구원 강성호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김대철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철희 박사, 그리고 원내의 여유진 연구위원과 최현수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결과가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학자들,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Contents

Abstract ····· 1

일러두기 ····· 5

요약 ····· 7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목적 ····· 17

제2절 연구방법 ····· 18

제3절 연구의 구성 ····· 30

◀◀◀ 제1부 빈곤·불평등 지수 ▶▶▶

제2장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 37

제1절 절대적 빈곤 ····· 37

제2절 상대적 빈곤 ····· 54

제3장 인구유형별 빈곤 ····· 65

제1절 여성가구주 가구 ····· 65

제2절 아동 ····· 72

제3절 노인 ····· 79

제4장 불평등 ····· 89

제1절 소득점유율 ····· 89

제2절 분위수배율 ····· 100

제3절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 111

제5장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사회경제지표 ····· 119

제1절 경제, 노동 ····· 119

제2절 인구, 사회보장 ····· 131

◂ ◂ ◀ 제2부 빈곤유형별 빈곤 ▶ ▸ ▸

제6장 근로빈곤 ····· 155

제1절 근로빈곤의 정의 및 쟁점 ····· 155

제2절 빈곤율 추정방식과 예시 ····· 163

제7장 자산빈곤 ····· 17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71

제2절 자산빈곤 시산 결과 ····· 187

제3절 결론

제8장 주거빈곤 ····· 19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론 ····· 193

제2절 주거빈곤 정의와 관련된 주요개념 ····· 206

제3절 주거빈곤층 규모 ····· 212

참고문헌 ····· 225

부록 ····· 235

표 목차

〈표 2- 1〉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전가구기준) ·····38
〈표 2- 2〉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39
〈표 2- 3〉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가구율(전가구기준) ·····40
〈표 2- 4〉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가구율(도시근로자기준) ···41
〈표 2- 5〉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소득갭비율(전가구기준) ·····42
〈표 2- 6〉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소득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43
〈표 2- 7〉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갭비율(전가구기준) ·····44
〈표 2- 8〉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45
〈표 2- 9〉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전가구기준) ·····46
〈표 2-10〉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47
〈표 2-11〉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가구율(전가구기준) ·····48
〈표 2-12〉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가구율(도시근로자기준) ··49
〈표 2-13〉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소득갭비율(전가구기준) ·····50
〈표 2-14〉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소득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51
〈표 2-15〉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갭비율(전가구기준) ·····52
〈표 2-16〉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53
〈표 2-17〉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율(전가구기준) ·····55
〈표 2-18〉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56
〈표 2-19〉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가구율(전가구기준) ·····57
〈표 2-20〉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가구율(도시근로자기준) ·····58
〈표 2-21〉 중위소득 · 지출 기준 소득갭비율(전가구기준) ·····59
〈표 2-22〉 중위소득 · 지출 기준 소득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60
〈표 2-23〉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갭비율(전가구기준) ·····61

〈표 2-24〉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62
〈표 3- 1〉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전가구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66
〈표 3- 2〉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67
〈표 3- 3〉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전가구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68
〈표 3- 4〉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69
〈표 3- 5〉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중위소득·지출, 전가구기준) ·····70
〈표 3- 6〉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중위소득·지출, 도시근로자기준) 71
〈표 3- 7〉 아동 빈곤율(전가구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73
〈표 3- 8〉 아동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74
〈표 3- 9〉 아동 빈곤율(전가구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75
〈표 3-10〉 아동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76
〈표 3-11〉 아동 빈곤율 (중위소득·지출, 전가구기준) ·····77
〈표 3-12〉 아동 빈곤율 (중위소득·지출, 도시근로자기준) ·····78
〈표 3-13〉 노인 빈곤율(전가구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80
〈표 3-14〉 노인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81
〈표 3-15〉 노인 빈곤율(전가구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82
〈표 3-16〉 노인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83
〈표 3-17〉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지출, 전가구기준) ·····84
〈표 3-18〉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지출, 도시근로자기준) ·····85
〈표 4- 1〉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시장소득) ·····90
〈표 4- 2〉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경상소득) ·····91
〈표 4- 3〉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92
〈표 4- 4〉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소비지출) ·····93
〈표 4- 5〉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가계지출) ·····94

Contents

〈표 4- 6〉 소득점유율(도시근로자기준, 시장소득) ·····95
〈표 4- 7〉 소득점유율(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96
〈표 4- 8〉 소득점유율(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97
〈표 4- 9〉 소득점유율(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98
〈표 4-10〉 소득점유율(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99
〈표 4-11〉 분위수배율(전가구기준, 시장소득) ·····101
〈표 4-12〉 분위수배율(전가구기준, 경상소득) ·····102
〈표 4-13〉 분위수배율(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103
〈표 4-14〉 분위수배율(전가구기준, 소비지출) ·····104
〈표 4-15〉 분위수배율(전가구기준, 가계지출) ·····105
〈표 4-16〉 분위수배율(도시근로자기준, 시장소득) ·····106
〈표 4-17〉 분위수배율(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107
〈표 4-18〉 분위수배율(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108
〈표 4-19〉 분위수배율(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109
〈표 4-20〉 분위수배율(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110
〈표 4-21〉 지니계수(전가구기준) ·····112
〈표 4-22〉 지니계수(도시근로자가구기준) ·····113
〈표 4-23〉 앳킨슨지수(전가구기준) ·····114
〈표 4-24〉 앳킨슨지수(도시근로자가구기준) ·····115
〈표 5- 1〉 국민계정 주요지표: GDP 등 ·····119
〈표 5- 2〉 국민계정 주요지표: 노동소득분배율 등 ·····120
〈표 5- 3〉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2003-2010 I ·121
〈표 5- 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2003-2010 II ····122
〈표 5- 5〉 소비자물가지수 기본분류지수 I ·····123
〈표 5- 6〉 소비자물가지수 기본분류지수 II ·····124

〈표 5- 7〉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125
〈표 5- 8〉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126
〈표 5- 9〉 사회보장부담률 국제비교 ·····127
〈표 5-10〉 국세 · 지방세 비율 국제비교 ·····129
〈표 5-11〉 세목별 조세지출현황 ·····130
〈표 5-12〉 인구의 연령구조 및 구성비 추이 1990~2050 ·····131
〈표 5-13〉 인구의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1990~2050 ·132
〈표 5-14〉 기대연령 및 평균연령 추이: 1991~2050 ·····133
〈표 5-15〉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 출산율: 1991~2010 ·····134
〈표 5-16〉 기초보장수급자 현황 - 수급자 종류별, 시·도별 ·····135
〈표 5-17〉 기초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원수별 현황 ·····136
〈표 5-18〉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수: 1991~2010 ·····137
〈표 5-19〉 공적연금 가입자 현황: 1991~2001 ·····138
〈표 5-20〉 공적연금 수급권자수: 1991~2001 ·····139
〈표 5-21〉 공적연금 총급여비: 1991~2010 ·····140
〈표 5-22〉 국민연금 가입자수 -가입형태별, 시·도별 I ·····141
〈표 5-23〉 국민연금 급여 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 I ·····142
〈표 5-24〉 국민연금 급여 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 II ·····143
〈표 5-25〉 국민연금 급여 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 III ·····144
〈표 5-26〉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1995~2010 ·····145
〈표 5-27〉 1종 의료급여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2003~2010 ·····146
〈표 5-28〉 2종 의료급여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2003~2010 ·····147

Contents

〈표 5-29〉 건강보험 급여실적-급여종류별 ·····148
〈표 5-3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예산 ·····149
〈표 6- 1〉 각 나라(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159
〈표 6- 2〉 가계조사, 근로빈곤 관련 통계(전국 1인 이상 비농어가) ····165
〈표 6- 3〉 한국복지패널, 근로빈곤 관련 통계 ·····167
〈표 6- 4〉 한국노동패널, 근로빈곤 관련 통계 ·····168
〈표 7- 1〉 최저생계비의 변화 ·····177
〈표 7- 2〉 기본재산액 기준 ·····178
〈표 7- 3〉 근로장려금 산정기준표 ·····179
〈표 7- 4〉 부양자녀 요건 ·····179
〈표 7- 5〉 주택소유의 기준 ·····180
〈표 7- 6〉 재산포함명세 및 평가방법 ·····180
〈표 7- 7〉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185
〈표 7- 8〉 자산빈곤율 판정산식 (1) ·····187
〈표 7- 9〉 자산빈곤율 판정산식 (2) ·····188
〈표 7-10〉 자산빈곤율 시산결과 ·····189
〈표 8- 1〉 실태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특성 ·····196
〈표 8- 2〉 도입 당시 최저주거기준의 비교 ·····207
〈표 8- 3〉 2000년 한국과 1976년 일본의 가구의
최저주거면적 비교 ·····208
〈표 8- 4〉 2000년과 2011년 최저주거기준의 방수와
최저주거면적 비교 ·····209
〈표 8- 5〉 2005년~2010년 불량주택거주가구수의 변화 ·····215
〈표 8- 6〉 2008년 노숙인, 비정상 거처 거주가구 규모 추정 ····216
〈표 8-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995~2005 ·····217

〈표 8- 8〉 2011년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추이: 2006~2010 ····· 218
〈표 8- 9〉 1980년~2010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 218
〈표 8-10〉 복지패널조사에서 가구일반·경제활동·가계·주거 관련 조사항목 ····· 219
〈표 8-11〉 2009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RIR 20% 초과가구 비율 220
〈표 8-12〉 2009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RIR 20% 초과가구의 지역별 분포 ····· 220
〈표 8-13〉 2009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RIR 30% 초과가구 비율 · 221
〈표 8-14〉 2009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RIR 30% 초과가구의 지역별 분포 ····· 221
〈표 8-15〉 빈곤가구 규모 추정 논리 ····· 222
〈표 8-16〉 2008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주거빈곤 가구수와 빈곤가구 비율 ····· 223

부표 목차

〈부표 1〉 주요국가 빈곤수준 ····· 241
〈부표 2〉 주요국가 소득종류별 빈곤수준 ····· 243
〈부표 3〉 주요국가 불평등(가처분소득 - DPI: Net Disposal Income) ····· 245
〈부표 4〉 주요국가 불평등(시장소득 - MI: Market Income) · 247
〈부표 5〉 주요국가 불평등(경상소득 - GI: Gross Income) ··· 249
〈부표 6〉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 251
〈부표 7〉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 251

그림 목차

〔그림 6-1〕 근로빈곤 가구에서 개인 근로소득과 가구 빈곤간 관계 ·156

Abstract

2011 Poverty Statistics Yearbook

□ Research Aims

–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in this research it is attempted to produce statistics on poverty and inequality based on the most rational standard possible. Also the research aims to achieve the most pure statistics on poverty and inequality.

□ Main Research Results

– Disposable income based poverty ratio increased from 6.9% in 2003 to 7.1% in 2010.

– Consumption based poverty ratio increased to 10.0% in 2010 from 7.8% in 2003.

– The disposable income based Gini coefficient increased since 2003, but turned to decreased after reaching a peak at 0.303 in 2008. Thereafter the Gini decreased again to reach 0.291 in 2010.

– The consumption based Gini coefficient increased to 0.245 in 2010 from 0.275 in 2003.

〈Table 1〉 Absolute Poverty Ratio using Minimum Cost of Living of Government

(unit: %)

	Income			Expenditure	
	Market Income	Current Income	Disposable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2003	7.8	6.1	6.9	7.8	3.9
2004	8.2	6.1	6.9	7.6	3.9
2005	9.4	6.8	7.9	9.3	5.1
2006	9.7	6.8	7.7	10.1	5.3
2007	10.0	7.0	7.7	10.3	5.9
2008	10.2	7.0	7.8	10.3	5.7
2009	10.9	7.0	8.1	13.3	7.4
2010	10.0	6.3	7.1	10.0	5.1

Note: one person households, farmer's and fisherman's households are excluded.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Income Survey*, raw data, each year.

〈Table 2〉 Gini Coefficient

	Income			Expenditure	
	Market Income	Current Income	Disposable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2003	0.292	0.281	0.275	0.226	0.241
2004	0.301	0.289	0.282	0.231	0.250
2005	0.306	0.292	0.285	0.241	0.257
2006	0.312	0.296	0.288	0.251	0.269
2007	0.321	0.302	0.293	0.255	0.276
2008	0.323	0.303	0.294	0.244	0.267
2009	0.320	0.297	0.290	0.255	0.272
2010	0.314	0.291	0.283	0.245	0.262

Note: one person households, farmer's and fisherman's households are excluded.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Income Survey*, raw data, each year.

□ Expected Effects

– By analyzing poverty and inequality indices with time series dataset, the scale of the poor and perspective on income

distribution have been clarified.

-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other students will make use of products of our analysis to fulfill their various aims.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의 자료 중 제5장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사회경제지표는 정부부처 및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를 편집·통합한 것으로, 각 표의 하단에 출처를 기록해 놓았음.

2. 빈곤 통계자료는 소수 두 자리 이하에서, 불평등 자료는 소수 세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빈곤지수는 인구기준과 가구기준을 별도로 분석하였으며, 불평등지수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4. 기존 분기자료를 평균하는 방법에서 가구별로 연간으로 집계한 후 각종 평균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였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변경된 연간화 자료로 분석하였음.

5. 분기자료는 2010년도 분기만 제시하였음. 이전 자료는 『2010년 빈곤통계연보』를 참조하기 바람.

요 약

□ 연구목적과 방법

○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의 시계열적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실태를 횡단면적, 종단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 빈곤, 불평등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의 정책입안과 기존제도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시계열의 풍부성, 표본의 대표성, 통계작성기관의 공신력 등을 고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연간, 분기)를 활용하여 OECD 등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를 산출

□ 주요내용

○ 빈곤지수

– 절대적 빈곤율: (빈곤율, 빈곤가구율, 빈곤갭비율, 소득갭비율)×(정부발표최저생계비, 동일비율최저생계비)

– 상대적 빈곤율: (빈곤율, 빈곤가구율, 빈곤갭비율, 소득갭비율)×(중위소득·지출 40%, 50%, 60%)

○ 불평등지수: 소득점유율, 분위수배율,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 분석대상

– 전국가구, 도시근로자가구

– 여성가구주, 아동, 노인(빈곤지수에 한함)

○ 빈곤유형별 빈곤율

– 근로빈곤, 자산빈곤, 주거빈곤

□ 이용자료(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적 특성

	1989년 이전*	1989년~2002년	2003년~2005년	2006년~현재
농어촌 지역	×	×	○	○
농어가	×	×	×	×
1인 가구	×	×	×	○
비임금근로가구 소득	×	×	○	○
비임금근로가구 지출	○	○	○	○
가중치 부여	×	○	○	○

주: 1989년 이전 자료의 경우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음.

□ 가계동향조사 개편내용: 항목분류개편(2009년)

○ 국가 간 비교가능성 확보, 국민계정 및 소비자물가 등 관련통계와 분류를 일치시켜 이용자 편의도모, 실물경제 반영 등을 위해 1990년~2008년 연간 및 분기자료를 대상으로 항목분류를 개편함.

○ 소득항목을 국제기준에 맞춰 소득원천을 명확히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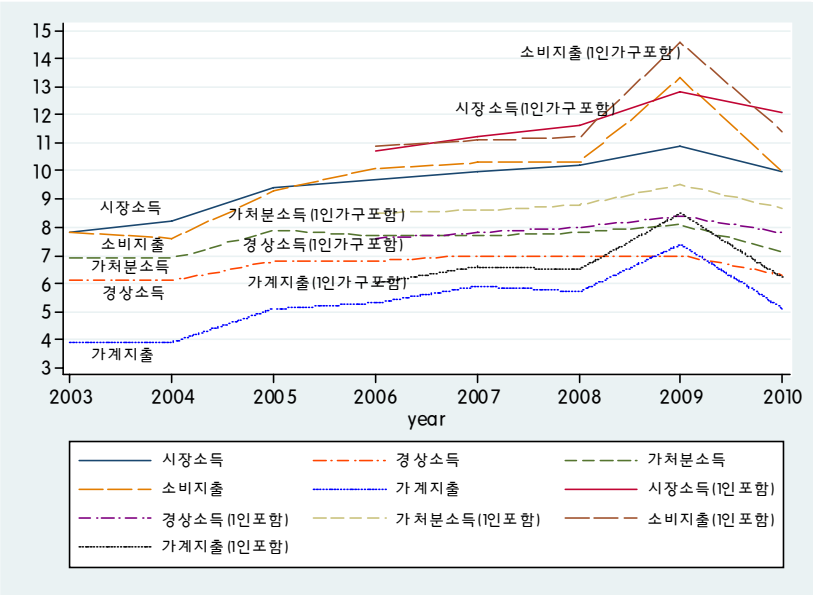
□ 가계동향조사 개편내용: 가계수지 통계 추정방법 변경(2010년)

○ 분기통계 작성방법: 월별 조사자료(7천가구×3개월=21천개 자료)를 평균하는 기존 방법에서 분기별로 가구당 집계(약 7.7천가구)한 후 각종 평균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변경

○ 연간통계 작성방법: 계절에 따른 가구소득의 등락 효과 제거해서 가구의 평상소득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기자료를 평균하는 방법에서 가구별로 연간으로 집계한 후 각종 평균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변경

□ 절대적 빈곤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전가구, 연간)

(단위: %)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이상 가구					
2003	7.8	6.1	6.9	7.8	3.9
2004	8.2	6.1	6.9	7.6	3.9
2005	9.4	6.8	7.9	9.3	5.1
2006	9.7	6.8	7.7	10.1	5.3
2007	10.0	7.0	7.7	10.3	5.9
2008	10.2	7.0	7.8	10.3	5.7
2009	10.9	7.0	8.1	13.3	7.4
2010	10.0	6.3	7.1	10.0	5.1
1인가구 포함					
2006	10.7	7.6	8.5	10.9	6.0
2007	11.2	7.8	8.6	11.1	6.6
2008	11.6	8.0	8.8	11.2	6.5
2009	12.8	8.4	9.5	14.6	8.5
2010	12.1	7.8	8.7	11.4	6.2

주: 농어가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절대적 빈곤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도시근로자가구,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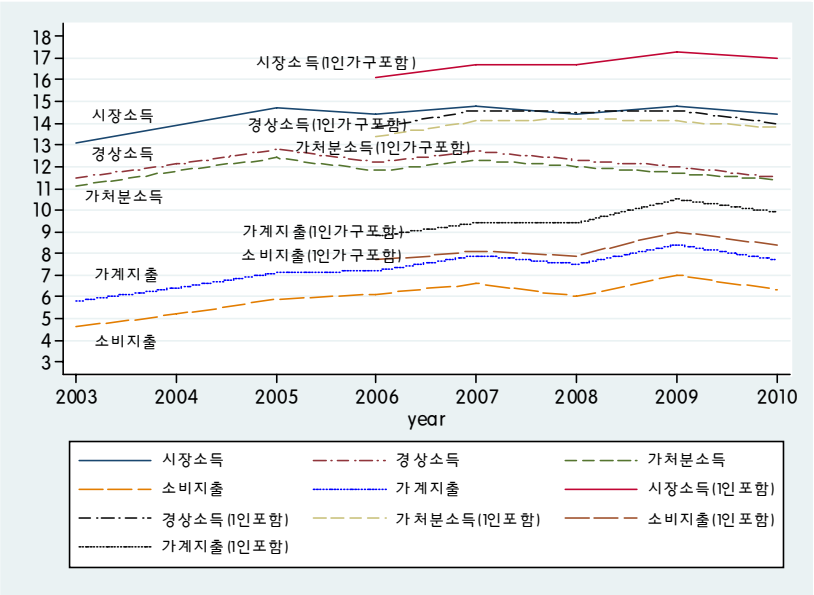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이상 가구					
1999	6.4	5.7	6.7	17.1	7.8
2000	4.4	3.9	4.4	10.8	5.3
2001	3.5	2.9	3.5	7.7	3.3
2002	2.6	2.1	2.5	6.8	2.9
2003	3.4	2.9	3.3	5.2	2.3
2004	3.6	2.7	3.3	4.7	2.2
2005	4.7	3.3	4.2	6.1	3.1
2006	4.2	2.9	3.4	6.5	2.7
2007	4.5	2.9	3.3	7.3	3.2
2008	4.6	2.9	3.3	6.2	3.1
2009	5.2	3.2	3.9	9.4	4.6
2010	4.7	2.6	3.2	7.1	3.2
1인 가구 포함					
2006	4.3	3.0	3.6	6.7	2.9
2007	4.7	3.0	3.4	7.4	3.3
2008	4.6	3.0	3.4	6.3	3.2
2009	5.3	3.3	4.0	9.7	5.0
2010	5.1	2.8	3.4	7.4	3.4

주: 농어가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지출 50% 기준(전가구, 연간)

(단위: %)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이상 가구					
2003	13.1	11.5	11.1	4.6	5.8
2004	13.9	12.1	11.8	5.2	6.4
2005	14.7	12.8	12.4	5.9	7.1
2006	14.8	12.8	12.1	6.5	7.7
2007	15.5	13.1	12.6	7.0	8.4
2008	15.0	12.9	12.6	6.3	8.0
2009	15.4	12.8	12.2	7.6	8.9
2010	14.9	12.1	12.0	6.9	8.4
1인가구 포함					
2006	16.1	13.8	13.4	7.7	8.8
2007	16.7	14.6	14.1	8.1	9.4
2008	16.7	14.5	14.2	7.9	9.4
2009	17.3	14.6	14.1	9.0	10.5
2010	17.0	14.0	13.8	8.4	9.9

주: 농어가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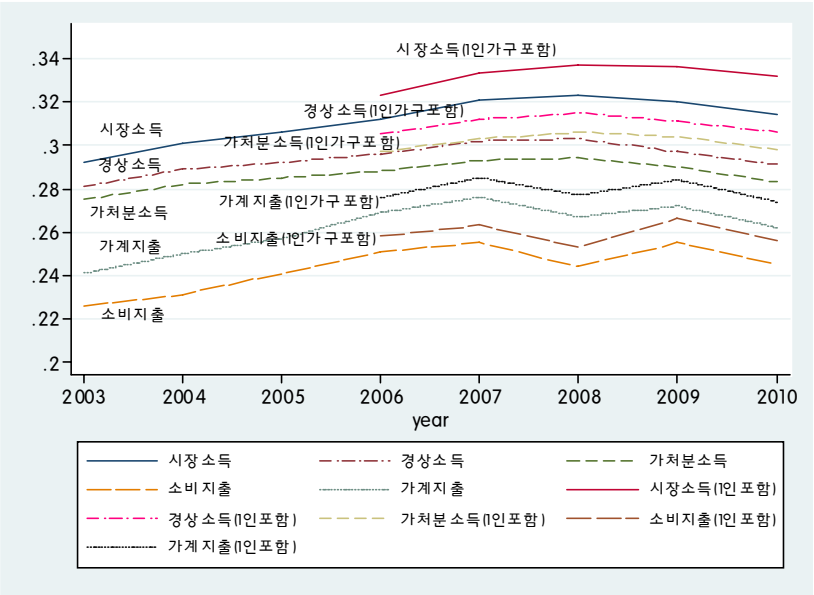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지출 50% 기준(도시근로자가구, 연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이상 가구					
1990	6.3	6.0	5.7	3.6	5.0
1991	6.0	5.6	5.2	4.1	5.2
1992	5.9	5.7	5.2	4.6	6.5
1993	5.9	5.8	5.5	4.7	5.4
1994	6.0	5.9	5.5	4.1	5.7
1995	6.1	6.0	5.6	3.7	5.1
1996	7.0	6.7	6.3	3.6	5.2
1997	6.9	6.6	6.2	3.5	4.4
1998	8.8	8.5	8.2	4.6	5.9
1999	9.9	9.6	9.2	5.4	6.6
2000	8.0	7.4	6.9	3.6	5.8
2001	8.3	7.7	7.3	3.3	4.6
2002	7.8	7.3	6.9	3.5	4.6
2003	9.9	9.2	8.2	3.1	4.2
2004	10.6	9.9	9.3	3.2	4.9
2005	10.4	9.8	9.2	3.9	5.5
2006	11.0	10.0	9.2	4.4	6.2
2007	11.8	10.1	9.1	5.6	7.2
2008	11.3	10.1	9.2	4.8	7.1
2009	11.9	10.3	9.7	6.2	7.2
2010	10.9	9.1	8.3	5.3	7.3
1인 가구 포함					
2006	11.1	10.2	9.3	5.0	6.7
2007	12.2	10.6	9.6	5.9	7.6
2008	11.8	10.4	9.5	5.2	7.7
2009	12.2	10.8	10.2	6.6	7.9
2010	11.5	9.8	9.0	6.1	8.0

주: 농어가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지니계수(전가구, 연간)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이상 가구					
2003	0.292	0.281	0.275	0.226	0.241
2004	0.301	0.289	0.282	0.231	0.250
2005	0.306	0.292	0.285	0.241	0.257
2006	0.312	0.296	0.288	0.251	0.269
2007	0.321	0.302	0.293	0.255	0.276
2008	0.323	0.303	0.294	0.244	0.267
2009	0.320	0.297	0.290	0.255	0.272
2010	0.314	0.291	0.283	0.245	0.262
1인가구 포함					
2006	0.323	0.305	0.297	0.258	0.276
2007	0.333	0.312	0.303	0.263	0.285
2008	0.337	0.315	0.306	0.253	0.277
2009	0.336	0.311	0.304	0.266	0.284
2010	0.332	0.306	0.298	0.256	0.274

주: 농어가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지니계수(도시근로자가구, 연간)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이상 가구					
1990	0.256	0.254	0.243	0.262	0.281
1991	0.246	0.244	0.236	0.260	0.274
1992	0.242	0.241	0.231	0.261	0.275
1993	0.242	0.241	0.234	0.261	0.272
1994	0.240	0.239	0.231	0.252	0.264
1995	0.243	0.243	0.234	0.240	0.253
1996	0.250	0.250	0.240	0.255	0.267
1997	0.247	0.245	0.237	0.244	0.258
1998	0.271	0.270	0.261	0.255	0.272
1999	0.278	0.277	0.267	0.253	0.272
2000	0.263	0.261	0.251	0.235	0.253
2001	0.276	0.273	0.262	0.236	0.256
2002	0.272	0.270	0.260	0.228	0.247
2003	0.264	0.261	0.252	0.213	0.233
2004	0.275	0.271	0.261	0.219	0.242
2005	0.279	0.273	0.262	0.230	0.252
2006	0.280	0.273	0.262	0.236	0.258
2007	0.289	0.281	0.269	0.242	0.267
2008	0.288	0.280	0.267	0.229	0.255
2009	0.287	0.277	0.265	0.244	0.263
2010	0.283	0.272	0.259	0.232	0.254
1인 가구 포함					
2006	0.283	0.276	0.264	0.239	0.261
2007	0.292	0.284	0.271	0.245	0.270
2008	0.291	0.283	0.270	0.233	0.259
2009	0.291	0.281	0.270	0.248	0.269
2010	0.289	0.277	0.265	0.237	0.261

주: 농어가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는 우리사회에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가져다주었음.

○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라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다수가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였음.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임시·일용근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빈곤이 확대되었음.

○ 그리고 취업을 포기한 실직자가 늘고 노동시장에서도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불평등도 심화했음. 양극화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음.

□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위해요소임.

○ 빈곤은 다양한 취약계층을 양산시키고 가정의 해체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공공부조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재정운영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사회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이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의 실태와 시계열적 변화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기초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관련 연구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적인 논의는 본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기고자 함.

제2절 연구방법

1. 개요

□ 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를 산출하였음.

□ 자료의 공신력, 표본의 적절성, 시계열의 풍부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수를 산출하였음.

○ 통계청이 2011년에 연간화한 자료(1990년~2010년)를 새롭게 공개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새로운 연간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따라서 월간자료로 분석했던 이전의 빈곤통계연보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연간자료는 1990~2010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분기자료는 2010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분석대상

○ 지역별로는 전국가구(농·어가 제외)와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인구유형별로는 여성가구주 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 아동은 0~18세 미만, 노인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빈곤지수의 분석단위는 인구와 가구임. 즉, 인구빈곤율과 가구빈곤율을 따로 제시함. 불평등지수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함.

2. 빈곤 및 불평등 분석틀

가. 빈곤 및 불평등지수

□ 분석된 빈곤지수는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임.

○ 절대적 빈곤지수 산출시 가구원수별 빈곤선을 사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빈곤율과 소득갭비율의 곱이 빈곤갭비율이 되어야 하나[1] 별도로 계산한 빈곤갭비율과 차이가 발생함.

–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절대적 빈곤율은 빈곤선이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오차에 기인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선을 2인가구 기준으로 전환하여 분석함으로써 이 같은 차이를 보정하였음.

○ 절대적 빈곤개념에 의한 빈곤율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개념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하였음.

– 동일비율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별도로 산출한 것은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률만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관련이 있음.

– 즉,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가 실제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기에, 전기 계측년도와 후기 계측년도의 차이를 동일한 비율로 상향조정하여 물가와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새로운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임.

※ 예, 2007년(전기 계측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2010년까지 일정비율로 상승시킬 경우 2010년(후기 계측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되도록 조정

1) PGR = HR × IGR (PGR: 빈곤갭비율, HR: 빈곤율, IGR: 소득갭비율)

– 따라서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자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후자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보다 다소 높게 산출됨.

○ 상대적 빈곤율의 추정시 사용되는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기준의 값을 이용함($Ey_i = y_i/(\text{가구원수})^{\alpha}$, α=0.5).

□ 소득분배 및 불평등지수

○ 소득분배를 파악하는 지수로는 10분위점유율 및 분위수 배율(Percentile)을 이용함.

○ 불평등지수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 및 앳킨슨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앳킨수지수의 ε값은 0.5와 1을 기준으로 함.

○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기준 값을 이용($Ey_i = y_i/(\text{가구원수})^{\alpha}$, α=0.5)하였음.

○ 소득분배 및 불평등지수 활용시 유의할 점

– 소득점유율을 구할 때에 각 분위별 비중이 정확히 10%가 되지 않음.

• 이는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한 가구의 가구원이 동일한 구간에 분포되어야 하는데 인구가중치 적용에 따라 서로 다른 소득구간으로 가구원이 분리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임.

– 따라서 비중의 차이를 감안하여 소득점유율은 평균치를 활용함.

– 로그를 이용한 분배지수 측정시 소득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데이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1원으로 가정하여 분석

– 분위별 비중, 분위별 점유비율, 소득점유율 등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각각의 합이 100%가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소득과 지출

□ 2007년 이후 빈곤통계연보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함. 분석대상 소득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임.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의 개념은 선행연구(박찬용 외, 1999; 여유진 외, 2005)와 LIS, OECD(1995), 그리고 통계청의 소득분류 기준을 참고하였음.[2)]

– 다양한 소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빈곤감소효과, 소득분배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장소득은 시장(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외국의 연구중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시장소득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을 위해 사적이전소득을 시장소득에 포함시켰음.

○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됨.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연금+정부지원금)

• 경상소득은 총소득중에서 비경상소득(경조금, 퇴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대비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시장 → 경상 → 가처분소득으로 변하는 소득개념과는 의미상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일부 연구의 경우 경상소득이라는 의미보다는 총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 경우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총소득과 혼동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연계를 위해 경상소득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였음.

2) 2008년 발간된 OECD보고서에서는 1995년 보고서와 달리 소득체계를 달리 설정하고 있음.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소득	소득구성
요소소득(Factor Income)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시장소득(Market Income)	요소소득+퇴직·개인연금
총소득(Gross Income)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기타현금소득
가처분소득(Cash Disposable Income)	총소득-(소득세+사회보장분담금)

자료: OECD(2008), Growing Unequal?.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됨.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 지출은 소비지출과 가계지출로 구분하였음.

–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연간자료의 소득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구분되는 반면, 분기자료의 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관계로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만 사용하였음. 지출은 연간자료와 분기자료 모두 소비지출, 가계지출로 구분됨.

다. 빈곤선 설정방법

□ 절대적 빈곤선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정부가 1999년 이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3)]

○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계측년도(1988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7년)의 사이 기간동안 동일한 삶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빈곤선

□ 상대적 빈곤선

○ 중위소득·지출의 40%, 50%, 60%

□ 빈곤선의 포함 여부

○ 빈곤선은 이하가 아닌 미만의 개념을 적용함. 이하와 미만의 차이는 빈곤갭을 계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빈곤선과 동일한 소득이나 지출을 가지는 경우 빈곤갭은 '0'이 되므로, 이 경우 빈곤층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

3) 정부발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는 2000년부터 발표되었으나, 2000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1999년 계측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이용함.

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빈곤갭이 '0'일 경우에는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빈곤율 산출시 빈곤선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음.

3. 이용자료: 가계동향조사

가. 개요

□ 조사목적

○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의 변화를 측정·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즉,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산정 기초자료와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 입안 기초자료, 소득분배지표 작성 자료, 국민계정 등 총량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주거 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 근로자 임금기준의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음.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 단, 농림어가,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 및 기타 겸업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

□ 조사내용

○ 가구특성(가구유형 및 주거 등)

○ 가구주 및 가구원별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고용상태 등)

○ 수입(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기타수입)

○ 지출(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기타지출)

□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 가구실태에 관한 사항은 면접타계식이며,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가계부기장에 의한 자계식으로 매월 조사됨.

□ 표본설계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내 가구 및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에 신축아파트조사구(2005.11.1~2006.10.31)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7,011개 조사구를 표본틀로 사용하였으며, 이 중 999개 조사구에서 부적격가구를 제외한 약 9,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 표본관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집단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며, 표본개편시 통계의 시계열 단절을 방지하고, 조사원들의 매너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도에 연동표본가구관리를 도입함.

– 가구별 조사기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 교체방법: 현 조사구의 비조사구역으로 교체

– 교체단위: 조사구내의 구역(5가구 기준)

– 교체주기: 4개월 중 2개월 교체(3~4월, 7~8월, 11~12월 교체)

– 교체량: 교체 시 1/18이 교체(약 450가구, 111조사구 중 1구역)

– 이로써 한 개의 조사구 내 가구를 완전 교체하는데 4개월 소요

□ 가계동향조사의 개요(요약)

조사주체	통계청
조사주기	매월 조사, 분기 공표
조사목적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의 변화를 측정 및 분석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단, 농림어가,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 및 기타 겸업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
조사내용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가구주에 관한 사항,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 주거에 관한 사항 등
조사방법	- 가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은 면접조사원 기입식 -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가계부 자기기입식
표본설계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에 신축아파트조사구(2005.11.1~2006.10.31)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7,011개 조사구를 표본틀로 사용, 이 중 999개 조사구에서 약 9,000가구 대상으로 조사

나. 주요 변화내용

□ 2003년 이전

○ 지난 60여년간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의 2인 이상 비농어가만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소득자료는 근로자 가구의 것만 제공되었음.

○ 1989년부터 가중치가 부여되기 시작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89년부터임.

□ 2003년~2005년

○ 2003년 이후에는 조사대상을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2인 이상 비농어가까지 확대하여 '전국가계조사'로 실시되었으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 2006년~현재

○ 2006년 이후에는 1인 가구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전국 1인 이상 비농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가계동향조사의 주요 변천과정 요약

	1989년 이전*	1989년~2002년	2003년~2005년	2006년~현재
농어촌 지역	×	×	○	○
농어가	×	×	×	×
1인 가구	×	×	×	○
비임금근로가구 소득	×	×	○	○
비임금근로가구 지출	○	○	○	○
가중치 부여	×	○	○	○

주: 1989년 이전의 자료의 경우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음.

다. 항목분류 개편(2009년)[4)]

□ 개편의 필요성

○ UN,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에 따름으로써 국가 간 비교가능성 확보

○ 국민계정, 소비자물가 등 관련통계와 분류를 일치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출빈도 및 금액이 중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항목을 통합하여 실물경제 반영

□ 개편대상 기간

○ 1990년~2008년 연간 및 분기자료

□ 주요 개편내용

○ 소득항목을 국제기준(Canberra Group 권고안)에 맞춰 소득원천을 명확히 구분

– 이전소득의 기타사회보장 수혜 → 이전소득의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및 세금환급금으로 세분

– 의세소득의 사택 → 근로소득으로 인식

– 의제소득의 무상주택 → 이전소득으로 인식

– 재산소득의 임대소득 → 사업소득으로 변경

– 비경상소득의 연말정산환급금 → 이전소득으로 변경

– 비경상소득의 상속 및 증여 → 기타수입으로 변경

○ 소비지출은 COICOP 분류로 항목분류 확대(10대 비목 → 12대 비목)

– 기호상품인 식료품의 주류와 기타소비지출의 담배 → 주류 및 담배로 신설

– 식료품의 외식 → 음식·숙박 항목으로 분리

4) 통계청, 보도자료(2010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2011.2.24 참조

– 오락·문화의 숙박 → 음식·숙박 항목으로 분리

– 주거와 광열수도 → 주거·수도·광열로 통합

– 교통·통신 → 교통과 통신으로 분리

– 교육의 서적 및 문구류 → 오락·문화로 변경

– 기타소비지출의 경조비, 교제비, 종교기부금 등 → 비소비지출로 변경

– 기타소비지출의 귀금속 → 기타지출로 변경

○ 법인경영자를 근로자로 변경

○ 가구간 현물이전은 수혜가구에서 별도로 소득 및 지출을 인식하지 않음.

○ 조세는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로 구분

□ 개편 전·후의 항목 비교(2008년 기준)

신분류		구분류	
항목명	구성비	항목명	구성비
소득	100.0	소득	100.0
경상소득	96.0	경상소득	94.2
근로소득	65.1	근로소득	64.0
사업소득	21.8	사업소득	19.7
재산소득	0.5	재산소득	2.2
이전소득	8.6	이전소득	8.2
비경상소득	4.0	비경상소득	5.8
가계지출	100.0	가계지출	100.0
소비지출	77.5	소비지출	83.6
01 식료품·비주류음료	10.7	식료품(외식)	21.3
02 주류·담배	1.0		
03 의류·신발	4.7	의류신발	4.2
04 주거·수도·광열	7.6	주거	2.8
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2.8	광열수도	4.2
		가구가사	3.6
06 보건	5.1	보건의료	4.4
07 교통	9.6		
08 통신	4.8	교통통신	14.4
09 오락·문화	4.0	교양오락	3.8
10 교육	10.5	교육	10.1
11 음식·숙박	10.1		
12 기타상품·서비스	6.7	기타소비지출	14.7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0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라. 가계수지 통계 추정방법 변경(2010년)

□ 분기통계 작성방법

○ 월별 조사자료(7천가구×3개월=21천개 자료)를 평균하는 기존 방법에서 분기별로 가구당 집계(약 7.7천가구)한 후 각종 평균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변경

<예시>

가구	기존 방법			변경 방법
	1월	2월	3월	1/4분기
A	800	300	400	500
B	500	600	550	550
C	350	450	550	450
평균	500			500

□ 연간통계 작성방법

○ 계절에 따른 가구소득의 등락 효과를 제거해서 가구의 평상소득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기자료를 평균하는 방법에서 가구별로 연간으로 집계한 후 각종 평균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변경

– 변경대상기간: 1990년 ~ 2010년 연간 및 분기자료

□ 「가계동향조사」 신분류 - 구분류 자료 비교

구 분	자료주기	특 징	제공기간	비 고	장점	단점
구분류 (월 구분 없는 월별 자료)	분기	소득자료 없음	1982~2008	가구구분이 사무직, 생산직, 자영자, 무직으로 구분됨	조사 당시의 수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가구별 빈도분석 가능	분류개편시마다 분류단절이 있어 시계열 분석이 어려움.
		소득자료 포함	1982~2008	가구구분이 근로자, 근로자 외로만 구분됨		
	연간	소득자료 없음	1982~2008	가구구분이 사무직, 생산직, 자영자, 무직으로 구분됨		
		소득자료 포함	1982~2008	가구구분이 근로자, 근로자 외로만 구분됨		
신분류	분기	가구연계 (분기구분)	1990~	기간내 금액은 평균 기간내 가중치 합산	분류기준을 1990년부터 신분류로 통합 → 시계열분석 가능	비율을 적용하여 항목을 분리하거나 합하여 작성 → 빈도분석 어려움
	연간	가구연계 (연간구분)	1990~	기간내 금액은 평균 기간내 가중치 합산		
	월간	월표시	1990~			

4. 자료변경에 따른 효과 및 분석결과 이용상의 유의점

가. 항목분류 개편 효과

□ 개편전에 비해 빈곤지수가 전반적으로 약 1%p이내 수준에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총소득 대비 경상소득 비중이 개편 전 96.0%에서 개편 후 94.2%로 다소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임(2008년 기준).

□ 그러나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은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함.

○ 이는 개편전 가계지출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77.5%에서 83.6%로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임(2008년 기준).

나. 가계수지 추정방법 변경의 효과

□ 변경된 추정방법 즉,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월간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비해 약 3%p 내외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계절에 따른 가구소득 및 지출의 등락효과가 제거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2009년도 기준 계산결과 비교(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 기준)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절대적 빈곤율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월간	14.4	11.1	13.1	19.3	11.0
	연간	12.8	8.4	9.5	14.6	8.5
상대적 빈곤율 (중위 50%)	월간	18.6	16.4	16.8	10.4	11.5
	연간	17.3	14.6	14.1	9.0	10.5
소득점유율 (5분위배율)	월간	8.96	6.87	6.97	5.16	5.43
	연간	6.87	5.55	5.50	3.99	4.39
지니계수	월간	0.358	0.338	0.337	0.324	0.329
	연간	0.336	0.311	0.304	0.266	0.284

다. 분석결과 이용상의 주의점

□ 여러 차례에 걸친 표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 가구를 대표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움.

○ 2003년부터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2006년부터 1인 가구가 포함되었지만 농어가 가구가 제외되어 있어 전 가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비율로 인구수와 가구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 조사자료의 모집단에 대한 포함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에는 농어가 11.1%, 외국인 및 겸업가구 등 기타 3.7% 등이 제외되어 있어 모집단에 대한 포함률(coverage)은 85.2%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2011.8).

–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는 가계동향조사에 농가경제조사와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포함시킨 것으로 가계동향조사 자료만을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3절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1부는 기존의 빈곤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인 빈곤·불평등지수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 제3장: 인구유형별 빈곤(여성가구주가구, 아동, 노인)

– 제4장: 불평등(소득점유율, 분위수배율, 지니계수·앳킨슨지수)

– 제5장: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사회경제지표

○ 2부는 기존의 빈곤통계연보가 다루지 않았던 빈곤유형별 빈곤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빈곤유형별 빈곤의 정의와 빈곤율 산출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해당 빈곤율의 산출 방법 설명과 함께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산출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분야별 연구진은 다음과 같음.

- 제6장: 근로빈곤(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
- 제7장: 자산빈곤(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임병인 교수)
- 제8장: 주거빈곤(토지주택연구원 박신영 선임연구위원)

○ 그리고 부록에는 빈곤·불평등지수의 정의, LIS 자료를 이용한 주요 국가의 빈곤·불평등지수, 연도별 절대적 빈곤선(정부발표최저생계비, 동일비율최저생계비)이 포함되어 있음.

제부 빈곤·불평등 지수

0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제2장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제1절 절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지수의 특성과 구성

구분			특성
기준빈곤선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 3년 주기 계측 공식적 빈곤선 · 1999년~2010년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 계측년도 기준 동일비율 적용 · 1990년~2010년
빈곤지수	빈곤율		· 개인기준 빈곤율(개인가중치)
	빈곤가구율		· 가구기준 빈곤율(가구가중치)
	소득갭비율		·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 계층의 소득차를 개인(가구) 수와 빈곤선의 곱으로 나눈 값 · 빈곤의 심도측정지수
	빈곤갭비율		· 소득갭비율에 빈곤율을 곱한 값 · 빈곤의 심도측정지수
대상, 주기	전가구	연간	· 2003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	· 1990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표 2-1〉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7.8	6.1	6.9	7.8	3.9
2004		8.2	6.1	6.9	7.6	3.9
2005		9.4	6.8	7.9	9.3	5.1
2006		9.7	6.8	7.7	10.1	5.3
2007		10.0	7.0	7.7	10.3	5.9
2008		10.2	7.0	7.8	10.3	5.7
2009		10.9	7.0	8.1	13.3	7.4
2010		10.0	6.3	7.1	10.0	5.1
분기	1	-	9.1	10.0	15.2	7.6
	2	-	7.9	8.9	14.9	7.7
	3	-	7.8	8.9	13.9	7.2
	4	-	7.7	8.5	12.3	6.5
2006[2)]		10.7	7.6	8.5	10.9	6.0
2007[2)]		11.2	7.8	8.6	11.1	6.6
2008[2)]		11.6	8.0	8.8	11.2	6.5
2009[2)]		12.8	8.4	9.5	14.6	8.5
2010[2)]		12.1	7.8	8.7	11.4	6.2
분기	1	-	10.8	11.8	16.6	8.8
	2	-	9.5	10.5	16.4	9.2
	3	-	9.4	10.5	15.4	8.5
	4	-	9.3	10.1	13.6	7.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2〉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9		6.4	5.7	6.7	17.1	7.8
2000		4.4	3.9	4.4	10.8	5.3
2001		3.5	2.9	3.5	7.7	3.3
2002		2.6	2.1	2.5	6.8	2.9
2003		3.4	2.9	3.3	5.2	2.3
2004		3.6	2.7	3.3	4.7	2.2
2005		4.7	3.3	4.2	6.1	3.1
2006		4.2	2.9	3.4	6.5	2.7
2007		4.5	2.9	3.3	7.3	3.2
2008		4.6	2.9	3.3	6.2	3.1
2009		5.2	3.2	3.9	9.4	4.6
2010		4.7	2.6	3.2	7.1	3.2
분기	1	-	4.1	4.9	10.6	4.5
	2	-	3.6	4.5	10.8	5.0
	3	-	3.2	3.9	10.1	4.7
	4	-	3.3	3.9	9.2	4.4
2006[2)]		4.3	3.0	3.6	6.7	2.9
2007[2)]		4.7	3.0	3.4	7.4	3.3
2008[2)]		4.6	3.0	3.4	6.3	3.2
2009[2)]		5.3	3.3	4.0	9.7	5.0
2010[2)]		5.1	2.8	3.4	7.4	3.4
분기	1	-	4.4	5.3	11.0	4.8
	2	-	3.8	4.7	11.4	5.5
	3	-	3.5	4.3	10.6	5.2
	4	-	3.6	4.2	9.6	4.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3〉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가구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9.3	7.1	7.9	8.3	4.4
2004		9.5	7.0	7.7	8.0	4.4
2005		10.7	7.7	8.7	10.1	5.8
2006		11.2	7.9	8.8	11.0	6.2
2007		11.8	8.1	8.9	11.3	6.6
2008		12.1	8.4	9.1	11.4	6.6
2009		13.0	8.5	9.7	14.7	8.4
2010		12.2	7.6	8.6	11.5	6.1
분기	1	-	10.6	11.6	16.9	8.8
	2	-	9.4	10.4	16.7	9.0
	3	-	9.4	10.7	15.9	8.5
	4	-	9.3	10.1	14.2	7.7
2006[2)]		14.2	10.0	11.0	13.5	8.2
2007[2)]		14.8	10.2	11.1	13.5	8.5
2008[2)]		15.7	10.9	11.7	13.8	8.6
2009[2)]		17.9	12.2	13.2	18.1	11.5
20102)		17.6	11.7	12.8	15.1	8.8
분기	1	-	15.3	16.2	20.5	12.0
	2	-	13.8	14.8	20.8	12.8
	3	-	13.7	14.9	19.7	11.7
	4	-	13.5	14.3	17.4	10.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4〉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가구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9		6.0	5.4	6.4	16.7	7.8
2000		4.2	3.6	4.3	10.4	5.0
2001		3.5	2.9	3.4	7.5	3.3
2002		2.6	2.1	2.6	6.6	2.8
2003		3.5	3.0	3.4	4.8	2.2
2004		3.6	2.8	3.3	4.6	2.1
2005		4.5	3.2	3.9	5.9	3.0
2006		4.3	3.0	3.6	6.7	2.8
2007		4.6	3.0	3.3	7.6	3.3
2008		4.5	2.9	3.2	6.3	3.1
2009		5.4	3.5	4.2	10.2	5.1
2010		5.1	2.8	3.5	7.6	3.4
분기	1	-	4.2	5.0	11.1	4.8
	2	-	4.0	4.8	11.9	5.7
	3	-	3.7	4.4	11.3	5.3
	4	-	3.6	4.3	10.0	4.8
2006[2)]		4.6	3.3	3.9	7.4	3.4
2007[2)]		5.0	3.2	3.5	7.7	3.5
2008[2)]		4.7	3.1	3.6	6.8	3.3
2009[2)]		5.8	3.8	4.4	10.9	6.0
20102)		6.2	3.6	4.2	8.6	4.0
분기	1	-	5.3	6.1	12.4	5.6
	2	-	4.7	5.4	13.6	7.1
	3	-	4.6	5.4	12.8	6.6
	4	-	4.3	4.9	11.0	5.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5〉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소득갭비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41.4	31.9	32.3	18.2	18.7
2004		39.5	30.4	31.6	18.9	19.4
2005		41.9	33.5	32.7	19.9	19.6
2006		42.4	32.9	33.5	20.9	22.4
2007		43.1	32.5	33.6	21.9	22.5
2008		44.9	32.6	34.1	20.0	19.9
2009		46.2	35.9	35.6	21.1	19.9
2010		48.4	36.2	37.2	20.3	19.7
분기	1	-	45.8	45.7	23.0	23.1
	2	-	43.7	44.2	23.3	22.9
	3	-	44.6	46.5	24.1	23.8
	4	-	42.9	44.3	22.7	23.0
2006[2)]		44.5	33.8	34.3	21.9	23.1
2007[2)]		44.8	33.4	34.4	22.7	23.0
2008[2)]		47.0	33.6	34.8	21.0	21.0
2009[2)]		49.5	37.5	37.3	22.9	22.0
2010[2)]		51.7	38.1	39.0	22.6	22.6
분기	1	-	47.1	47.3	24.8	25.2
	2	-	45.1	45.6	25.4	25.3
	3	-	46.6	48.4	26.1	26.0
	4	-	45.2	46.2	24.9	25.3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6〉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소득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9		23.2	22.2	22.5	19.8	20.1
2000		20.3	18.3	19.4	16.3	14.8
2001		19.3	15.4	16.9	14.2	12.5
2002		21.0	19.1	19.6	15.2	14.1
2003		23.8	21.8	22.9	15.2	15.2
2004		26.0	25.5	26.3	16.1	14.4
2005		26.3	23.0	22.0	17.4	16.0
2006		26.0	22.4	23.2	15.7	16.3
2007		24.7	22.6	24.3	16.2	15.5
2008		29.7	26.6	28.5	16.5	15.1
2009		27.8	25.7	25.3	18.4	17.3
2010		27.7	22.1	22.3	17.3	15.1
분기	1	-	32.5	31.7	19.7	18.6
	2	-	33.7	31.9	20.4	19.0
	3	-	34.7	35.2	20.9	19.2
	4	-	32.2	32.2	19.9	18.4
2006[2)]		26.2	22.9	23.8	16.1	16.4
2007[2)]		24.8	22.6	24.4	16.5	15.7
2008[2)]		29.8	26.6	28.0	16.5	15.4
2009[2)]		28.7	26.0	25.6	19.0	17.9
2010[2)]		29.1	23.4	23.7	18.6	17.3
분기	1	-	34.4	33.7	20.4	19.9
	2	-	34.1	32.7	21.4	20.4
	3	-	36.4	36.9	22.2	21.1
	4	-	33.1	33.1	20.8	19.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7〉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갭비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3.2	1.9	2.2	1.4	0.7
2004		3.2	1.9	2.2	1.4	0.8
2005		3.9	2.3	2.6	1.8	1.0
2006		4.1	2.2	2.6	2.1	1.2
2007		4.3	2.3	2.6	2.2	1.3
2008		4.6	2.3	2.6	2.1	1.1
2009		5.0	2.5	2.9	2.8	1.5
2010		4.8	2.3	2.6	2.0	1.0
분기	1	-	4.2	4.6	3.5	1.8
	2	-	3.4	3.9	3.5	1.8
	3	-	3.5	4.1	3.4	1.7
	4	-	3.3	3.8	2.8	1.5
2006[2)]		4.8	2.6	2.9	2.4	1.4
2007[2)]		5.0	2.6	2.9	2.5	1.5
2008[2)]		5.4	2.7	3.1	2.4	1.4
2009[2)]		6.3	3.1	3.5	3.3	1.9
2010[2)]		6.2	3.0	3.4	2.6	1.4
분기	1	-	5.1	5.6	4.1	2.2
	2	-	4.3	4.8	4.2	2.3
	3	-	4.4	5.1	4.0	2.2
	4	-	4.2	4.7	3.4	1.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8〉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9		1.5	1.3	1.5	3.4	1.6
2000		0.9	0.7	0.9	1.8	0.8
2001		0.7	0.5	0.6	1.1	0.4
2002		0.5	0.4	0.5	1.0	0.4
2003		0.8	0.6	0.8	0.8	0.3
2004		0.9	0.7	0.9	0.8	0.3
2005		1.2	0.8	0.9	1.1	0.5
2006		1.1	0.6	0.8	1.0	0.4
2007		1.1	0.7	0.8	1.2	0.5
2008		1.4	0.8	0.9	1.0	0.5
2009		1.4	0.8	1.0	1.7	0.8
2010		1.3	0.6	0.7	1.2	0.5
분기	1	-	1.3	1.6	2.1	0.8
	2	-	1.2	1.4	2.2	1.0
	3	-	1.1	1.4	2.1	0.9
	4	-	1.1	1.3	1.8	0.8
2006[2)]		1.1	0.7	0.8	1.1	0.5
2007[2)]		1.2	0.7	0.8	1.2	0.5
2008[2)]		1.4	0.8	1.0	1.0	0.5
2009[2)]		1.5	0.9	1.0	1.8	0.9
2010[2)]		1.5	0.7	0.8	1.4	0.6
분기	1	-	1.5	1.8	2.2	0.9
	2	-	1.3	1.5	2.4	1.1
	3	-	1.3	1.6	2.4	1.1
	4	-	1.2	1.4	2.0	0.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9〉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8.4	6.6	7.6	9.3	4.6
2004		8.7	6.6	7.5	9.0	4.5
2005		9.5	6.9	8.1	9.6	5.2
2006		9.8	7.1	7.9	10.6	5.6
2007		10.3	7.2	8.1	10.9	6.2
2008		10.3	7.3	8.0	10.6	5.9
2009		10.9	7.1	8.1	13.3	7.4
2010		10.5	6.8	7.8	11.4	5.9
분기	1	-	9.7	10.8	17.0	8.7
	2	-	8.4	9.5	16.9	8.8
	3	-	8.4	9.6	15.9	8.1
	4	-	8.1	9.1	14.1	7.2
2006[2)]		10.9	7.9	8.7	11.5	6.4
2007[2)]		11.5	8.1	9.0	11.8	6.9
2008[2)]		11.7	8.3	9.0	11.6	6.6
2009[2)]		12.8	8.4	9.5	14.6	8.5
2010[2)]		12.6	8.4	9.4	12.8	7.1
분기	1	-	11.5	12.6	18.4	9.9
	2	-	10.2	11.3	18.4	10.2
	3	-	10.0	11.2	17.3	9.3
	4	-	9.7	10.7	15.4	8.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10〉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0		5.5	5.1	5.4	23.7	12.8
1991		3.5	3.2	3.3	20.3	10.0
1992		3.5	3.1	3.4	19.2	9.5
1993		3.8	3.5	3.9	21.4	10.0
1994		3.2	3.0	3.3	20.1	9.4
1995		2.7	2.6	2.9	15.1	7.0
1996		2.5	2.3	2.6	12.4	5.1
1997		2.5	2.1	2.4	12.1	5.1
1998		5.5	5.1	5.9	23.6	10.5
1999		6.4	5.7	6.7	17.1	7.8
2000		4.6	4.0	4.7	11.2	5.4
2001		3.7	3.1	3.8	8.3	3.6
2002		2.9	2.4	2.7	7.9	3.3
2003		3.8	3.3	3.6	6.6	2.8
2004		4.0	3.2	3.7	5.8	2.6
2005		4.8	3.4	4.3	6.5	3.3
2006		4.3	3.0	3.7	7.1	2.9
2007		4.7	3.2	3.6	7.9	3.5
2008		4.6	3.1	3.5	6.5	3.2
2009		5.2	3.2	3.9	9.5	4.6
2010		5.2	3.0	3.9	8.2	3.8
분기	1	-	4.8	5.7	12.1	5.4
	2	-	4.1	4.9	12.7	5.9
	3	-	3.7	4.5	11.8	5.5
	4	-	3.5	4.5	10.9	5.1
2006[2)]		4.4	3.1	3.8	7.4	3.2
2007[2)]		4.9	3.2	3.6	7.9	3.6
2008[2)]		4.7	3.1	3.6	6.7	3.2
2009[2)]		5.3	3.3	4.0	9.8	5.0
2010[2)]		5.6	3.3	4.2	8.6	4.1
분기	1	-	5.1	6.0	12.6	5.7
	2	-	4.4	5.2	13.3	6.4
	3	-	4.0	4.8	12.3	6.0
	4	-	3.8	4.7	11.2	5.3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11〉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가구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9.9	7.7	8.6	9.7	5.1
2004		10.1	7.5	8.3	9.5	5.0
2005		10.8	7.8	8.9	10.4	6.0
2006		11.4	8.2	9.1	11.7	6.5
2007		12.1	8.3	9.3	12.0	7.0
2008		12.3	8.6	9.4	11.8	6.8
2009		13.0	8.6	9.7	14.7	8.5
2010		12.7	8.2	9.2	12.9	6.9
분기	1	-	11.2	12.4	18.7	9.9
	2	-	10.0	11.1	18.8	10.0
	3	-	10.0	11.4	17.9	9.3
	4	-	9.7	10.7	15.9	8.5
2006[2)]		14.4	10.3	11.2	14.1	8.6
2007[2)]		15.2	10.7	11.6	14.4	8.9
2008[2)]		15.9	11.2	12.0	14.2	8.7
2009[2)]		17.9	12.2	13.2	18.1	11.5
2010[2)]		18.1	12.4	13.4	16.6	10.0
분기	1	-	16.0	17.1	22.5	13.2
	2	-	14.6	15.7	22.7	13.8
	3	-	14.4	15.6	21.5	12.7
	4	-	14.0	14.9	19.2	11.8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12〉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가구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0		5.0	4.6	4.9	23.2	12.3
1991		3.1	2.9	3.0	19.6	9.5
1992		3.2	2.9	3.1	18.5	9.1
1993		3.6	3.3	3.6	20.5	9.4
1994		3.1	2.9	3.2	18.9	8.6
1995		2.6	2.5	2.7	14.2	6.5
1996		2.3	2.2	2.4	11.6	4.7
1997		2.2	2.0	2.2	11.2	4.7
1998		5.3	5.0	5.7	22.9	10.3
1999		6.0	5.4	6.4	16.7	7.8
2000		4.3	3.8	4.6	10.8	5.1
2001		3.7	3.1	3.8	8.2	3.7
2002		2.9	2.4	2.8	7.6	3.2
2003		3.9	3.3	3.6	6.2	2.6
2004		4.0	3.2	3.7	5.6	2.5
2005		4.6	3.3	4.0	6.3	3.2
2006		4.4	3.1	3.8	7.3	3.0
2007		4.8	3.3	3.6	8.1	3.6
2008		4.6	3.0	3.4	6.7	3.2
2009		5.4	3.5	4.2	10.2	5.1
2010		5.6	3.3	4.2	8.8	4.0
분기	1	-	4.8	5.8	12.7	5.7
	2	-	4.4	5.3	13.7	6.6
	3	-	4.1	5.0	13.0	6.1
	4	-	3.9	4.8	11.7	5.5
2006[2)]		4.8	3.4	4.1	7.9	3.7
2007[2)]		5.2	3.5	3.8	8.3	3.8
2008[2)]		4.8	3.3	3.8	7.1	3.4
2009[2)]		5.8	3.8	4.4	11.0	6.0
2010[2)]		6.7	4.0	4.8	9.9	4.9
분기	1	-	5.9	6.7	14.1	6.5
	2	-	5.2	6.0	15.3	7.9
	3	-	5.0	5.9	14.4	7.4
	4	-	4.6	5.5	12.7	6.3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13〉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소득갭비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40.7	31.7	31.6	18.3	18.8
2004		39.8	31.0	31.9	19.3	20.2
2005		41.6	33.2	32.3	19.8	19.6
2006		42.5	32.7	33.5	20.9	22.3
2007		43.2	32.8	33.3	22.3	22.9
2008		45.0	32.3	33.7	20.3	20.3
2009		46.3	35.8	35.5	21.1	20.0
2010		48.0	35.7	36.3	20.7	19.8
분기	1	-	44.8	44.5	23.4	22.9
	2	-	42.9	43.2	23.3	23.1
	3	-	43.5	45.3	24.0	24.1
	4	-	43.2	43.6	22.7	23.4
2006[2)]		44.6	33.6	34.3	21.9	23.0
2007[2)]		44.8	33.6	34.2	22.9	23.6
2008[2)]		47.0	33.3	34.6	21.2	21.3
2009[2)]		49.6	37.4	37.3	22.9	22.0
2010[2)]		51.4	37.8	38.4	22.9	22.3
분기	1	-	46.3	46.2	25.0	24.9
	2	-	44.3	44.6	25.4	25.4
	3	-	45.7	47.4	26.0	26.2
	4	-	45.5	45.7	24.7	25.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14〉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소득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0		21.4	20.7	21.5	19.5	17.6
1991		19.5	18.2	19.2	18.8	17.3
1992		20.9	19.6	20.1	19.4	16.7
1993		23.4	23.6	24.0	19.5	18.2
1994		23.8	22.7	23.1	18.8	17.3
1995		18.6	18.5	19.2	17.9	15.5
1996		18.0	18.2	18.5	16.3	16.1
1997		17.5	18.1	19.6	16.3	14.3
1998		23.1	22.5	22.7	20.0	17.7
1999		23.2	22.2	22.5	19.8	20.1
2000		20.3	18.4	19.1	16.6	15.5
2001		19.8	16.2	17.1	15.0	13.2
2002		21.1	19.1	20.3	15.4	14.9
2003		24.5	22.2	23.8	14.8	15.4
2004		26.8	25.1	25.9	16.4	15.9
2005		26.2	22.9	21.8	16.9	15.9
2006		26.6	22.6	22.8	15.6	16.0
2007		25.3	22.6	24.2	16.9	16.1
2008		30.0	26.3	27.8	16.5	15.7
2009		27.9	25.7	25.3	18.3	17.4
2010		27.7	21.8	21.0	18.0	15.6
분기	1	-	30.2	30.2	20.2	18.4
	2	-	32.1	31.7	20.3	19.3
	3	-	32.9	33.2	20.8	19.6
	4	-	32.7	30.8	19.9	19.1
2006[2)]		26.7	23.1	23.3	16.0	16.1
2007[2)]		25.4	22.6	24.3	17.1	16.4
2008[2)]		30.0	26.0	27.3	16.6	16.1
2009[2)]		28.8	25.9	25.7	19.0	17.9
2010[2)]		29.1	23.2	22.5	19.1	17.3
분기	1	-	32.3	32.2	20.8	19.6
	2	-	32.5	32.2	21.3	20.6
	3	-	34.6	35.1	22.0	21.4
	4	-	33.7	31.8	20.6	20.0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15〉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갭비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3.4	2.1	2.4	1.7	0.9
2004		3.5	2.1	2.4	1.7	0.9
2005		4.0	2.3	2.6	1.9	1.0
2006		4.2	2.3	2.7	2.2	1.3
2007		4.4	2.4	2.7	2.4	1.4
2008		4.6	2.3	2.7	2.2	1.2
2009		5.1	2.5	2.9	2.8	1.5
2010		5.0	2.4	2.8	2.4	1.2
분기	1	-	4.4	4.8	4.0	2.0
	2	-	3.6	4.1	4.0	2.0
	3	-	3.6	4.3	3.8	1.9
	4	-	3.5	4.0	3.2	1.7
2006[2)]		4.9	2.6	3.0	2.5	1.5
2007[2)]		5.1	2.7	3.1	2.7	1.6
2008[2)]		5.5	2.7	3.1	2.4	1.4
2009[2)]		6.3	3.2	3.5	3.4	1.9
2010[2)]		6.5	3.2	3.6	2.9	1.6
분기	1	-	5.3	5.8	4.6	2.5
	2	-	4.5	5.0	4.7	2.6
	3	-	4.6	5.3	4.5	2.4
	4	-	4.4	4.9	3.8	2.2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16〉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0		1.2	1.1	1.2	4.6	2.3
1991		0.7	0.6	0.6	3.8	1.7
1992		0.7	0.6	0.7	3.7	1.6
1993		0.9	0.8	0.9	4.2	1.8
1994		0.8	0.7	0.8	3.8	1.6
1995		0.5	0.5	0.5	2.7	1.1
1996		0.4	0.4	0.5	2.0	0.8
1997		0.4	0.4	0.5	2.0	0.7
1998		1.3	1.1	1.4	4.7	1.9
1999		1.5	1.3	1.5	3.4	1.6
2000		0.9	0.7	0.9	1.9	0.8
2001		0.7	0.5	0.7	1.2	0.5
2002		0.6	0.5	0.6	1.2	0.5
2003		0.9	0.7	0.9	1.0	0.4
2004		1.1	0.8	1.0	0.9	0.4
2005		1.3	0.8	0.9	1.1	0.5
2006		1.1	0.7	0.8	1.1	0.5
2007		1.2	0.7	0.9	1.3	0.6
2008		1.4	0.8	1.0	1.1	0.5
2009		1.4	0.8	1.0	1.7	0.8
2010		1.4	0.7	0.8	1.5	0.6
분기	1	-	1.4	1.7	2.5	1.0
	2	-	1.3	1.6	2.6	1.1
	3	-	1.2	1.5	2.5	1.1
	4	-	1.2	1.4	2.2	1.0
2006[2)]		1.2	0.7	0.9	1.2	0.5
2007[2)]		1.2	0.7	0.9	1.4	0.6
2008[2)]		1.4	0.8	1.0	1.1	0.5
2009[2)]		1.5	0.9	1.0	1.9	0.9
2010[2)]		1.6	0.8	0.9	1.6	0.7
분기	1	-	1.7	1.9	2.6	1.1
	2	-	1.4	1.7	2.8	1.3
	3	-	1.4	1.7	2.7	1.3
	4	-	1.3	1.5	2.3	1.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2절 상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지수의 구성과 특성

구분			특성
기준	중위 40%		· 'Strict Poverty' line
	중위 50%		· OECD에서 사용. 가장 보편적인 기준
	중위 60%		· EU, OECD에서 사용
빈곤지수	빈곤율		· 개인기준 빈곤율(개인가중치)
	빈곤가구율		· 가구기준 빈곤율(가구가중치)
	소득갭비율		·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 계층의 소득차를 개인(가구) 수와 빈곤선의 곱으로 나눈 값 · 빈곤의 심도측정지수
	빈곤갭비율		· 소득갭비율에 빈곤율을 곱해서 산출 · 빈곤의 심도측정지수
대상, 주기	전가구	연간	· 2003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	· 1990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표 2-17〉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8.3	13.1	18.8	6.9	11.5	18.0	6.7	11.1	17.6	1.9	4.6	9.8	2.5	5.8	11.1
2004		8.9	13.8	19.9	7.2	12.1	18.7	7.0	11.8	18.1	2.2	5.2	10.7	2.9	6.4	12.8
2005		9.5	14.7	20.2	7.5	12.8	18.9	7.2	12.4	18.3	2.5	5.9	11.3	3.3	7.1	13.5
2006		10.1	14.8	20.7	7.9	12.8	19.3	7.6	12.1	18.8	2.9	6.5	12.4	3.7	7.7	14.5
2007		10.7	15.5	21.6	8.1	13.1	19.3	7.8	12.6	18.8	3.2	7.0	12.8	4.0	8.4	15.0
2008		10.4	15.0	20.3	7.7	12.9	18.2	7.5	12.6	18.0	2.7	6.3	12.0	3.8	8.0	14.5
2009		10.8	15.4	21.2	7.5	12.8	19.0	7.4	12.2	18.5	3.4	7.6	13.3	4.1	8.9	15.2
2010		10.5	14.9	20.1	7.5	12.1	17.8	7.4	12.0	17.4	2.9	6.9	12.5	3.8	8.4	14.3
분기	1	-	-	-	9.7	14.7	20.9	9.7	14.4	20.7	4.0	8.5	14.8	4.7	9.6	16.3
	2	-	-	-	8.7	12.9	18.8	8.6	12.5	18.6	4.1	8.3	14.6	4.6	9.6	15.9
	3	-	-	-	9.3	13.7	19.5	9.2	13.5	19.3	4.2	8.4	14.5	4.9	9.5	15.6
	4	-	-	-	8.6	13.0	18.9	8.5	12.8	19.0	3.8	7.6	13.5	4.2	8.7	14.5
2006[2)]		11.4	16.1	21.8	8.7	13.8	20.2	8.7	13.4	19.6	3.8	7.6	13.4	4.7	8.8	15.5
2007[2)]		12.0	16.7	22.5	9.4	14.6	20.6	8.8	14.1	20.0	4.1	8.1	14.1	5.0	9.4	16.1
2008[2)]		12.2	16.7	22.1	9.4	14.5	20.0	9.0	14.1	19.6	3.8	7.8	13.5	4.9	9.4	15.7
2009[2)]		13.0	17.3	23.0	9.4	14.6	20.8	9.2	14.1	20.2	4.7	9.0	14.9	5.4	10.5	16.6
2010[2)]		12.7	17.0	21.8	9.4	14.0	19.7	9.3	13.8	19.3	4.4	8.4	14.2	5.1	9.9	16.0
분기	1	-	-	-	11.7	16.6	22.3	11.6	16.3	22.2	5.3	10.0	16.3	6.1	11.1	17.7
	2	-	-	-	10.7	14.8	20.8	10.5	14.5	20.3	5.6	9.9	16.1	6.2	11.2	17.6
	3	-	-	-	11.0	15.4	21.1	11.1	15.3	20.8	5.6	10.0	16.0	6.3	11.1	17.0
	4	-	-	-	10.5	14.8	20.7	10.3	14.5	20.4	5.0	9.1	14.8	5.7	10.1	15.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18〉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0		2.8	6.3	12.3	2.6	6.0	11.9	2.4	5.7	11.5	1.0	3.6	8.9	1.4	5.0	11.0
1991		2.4	6.0	10.9	2.2	5.6	10.6	2.0	5.2	10.0	1.0	4.1	9.6	1.7	5.2	11.0
1992		2.9	5.9	11.0	2.8	5.7	10.8	2.4	5.2	10.1	1.0	4.6	11.5	1.6	6.5	13.1
1993		3.1	5.9	12.0	3.0	5.8	11.7	2.8	5.5	11.4	1.3	4.7	10.2	1.9	5.4	11.8
1994		2.5	6.0	12.1	2.4	5.9	11.7	2.2	5.5	11.2	1.0	4.1	10.3	1.5	5.7	12.3
1995		2.5	6.1	11.9	2.5	6.0	11.7	2.3	5.6	11.1	1.0	3.7	9.5	1.4	5.1	11.2
1996		2.9	7.0	13.9	2.8	6.7	13.6	2.6	6.3	13.2	1.2	3.6	9.5	1.7	5.2	11.9
1997		3.1	6.9	13.5	2.9	6.6	13.1	2.7	6.2	12.5	0.9	3.5	9.5	1.7	4.4	10.6
1998		4.4	8.8	15.5	4.4	8.5	15.4	4.0	8.2	14.8	1.7	4.6	10.4	2.2	5.9	12.3
1999		4.9	9.9	16.9	4.4	9.6	16.6	4.2	9.2	16.2	1.5	5.4	10.1	2.8	6.6	12.8
2000		3.4	8.0	14.5	3.1	7.4	14.2	2.9	6.9	13.0	0.9	3.6	9.3	1.4	5.8	11.3
2001		4.1	8.3	15.0	3.5	7.7	14.3	2.8	7.3	13.7	0.8	3.3	8.5	1.3	4.6	11.1
2002		3.5	7.8	14.4	2.9	7.3	13.9	2.8	6.9	13.1	0.8	3.5	8.5	1.4	4.6	10.5
2003		4.6	9.9	15.6	4.2	9.2	15.2	3.9	8.2	14.7	0.8	3.1	7.7	1.5	4.2	9.7
2004		5.6	10.6	16.9	5.0	9.9	16.5	4.4	9.3	15.6	1.1	3.2	8.0	1.8	4.9	10.9
2005		6.1	10.4	17.3	5.2	9.8	16.7	4.9	9.2	16.4	1.5	3.9	9.2	1.9	5.5	11.6
2006		6.0	11.0	17.5	4.8	10.0	16.5	4.4	9.2	15.5	1.5	4.4	10.8	2.0	6.2	13.2
2007		6.4	11.8	18.3	5.1	10.1	17.3	4.3	9.1	15.9	1.7	5.6	11.2	2.5	7.2	13.7
2008		6.8	11.3	17.7	5.2	10.1	16.6	4.4	9.2	15.2	1.3	4.8	11.2	2.8	7.1	13.8
2009		6.5	11.9	17.8	5.1	10.3	16.6	4.4	9.7	15.8	2.3	6.2	11.9	3.3	7.2	13.6
2010		6.4	10.9	16.9	4.3	9.1	15.5	4.0	8.3	14.4	1.9	5.3	10.8	2.6	7.3	13.2
분기	1	-	-	-	6.5	11.7	18.2	5.9	11.1	17.6	2.5	6.5	12.7	3.2	8.1	14.7
	2	-	-	-	5.1	9.5	15.7	4.9	9.0	15.1	2.7	6.5	12.7	3.5	8.1	14.3
	3	-	-	-	5.4	10.1	16.7	5.0	9.8	16.4	3.0	7.1	13.0	3.7	8.3	14.6
	4	-	-	-	5.0	9.7	16.0	4.6	9.0	15.5	2.5	6.2	11.7	3.3	7.2	13.2
2006[2)]		6.2	11.1	17.6	5.0	10.2	16.8	4.7	9.3	15.8	1.8	5.0	11.0	2.3	6.7	14.0
2007[2)]		6.7	12.2	18.6	5.3	10.6	17.7	4.6	9.6	16.3	1.9	5.9	11.7	2.8	7.6	14.1
2008[2)]		7.1	11.8	18.2	5.6	10.4	17.1	4.8	9.5	15.8	1.7	5.2	11.4	3.1	7.7	14.4
2009[2)]		6.9	12.2	18.4	5.4	10.8	17.1	4.9	10.2	16.4	2.8	6.6	12.1	3.7	7.9	14.0
2010[2)]		6.9	11.5	17.3	4.9	9.8	16.0	4.6	9.0	15.0	2.2	6.1	11.8	3.2	8.0	13.9
분기	1	-	-	-	6.9	12.2	18.5	6.4	11.6	18.0	3.0	7.1	13.1	3.8	8.7	15.3
	2	-	-	-	5.8	10.1	16.5	5.5	9.5	15.8	3.4	7.4	13.6	4.3	9.0	15.3
	3	-	-	-	6.0	10.7	17.4	5.6	10.2	16.8	3.5	7.8	13.8	4.3	9.1	15.2
	4	-	-	-	5.5	10.2	16.6	5.0	9.6	16.1	2.9	6.7	12.3	3.6	7.8	13.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19〉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가구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0.1	14.9	20.7	8.3	12.9	19.4	8.0	12.5	19.1	2.5	5.6	11.2	3.2	6.8	12.4
2004		10.5	15.4	21.2	8.4	13.4	19.8	8.2	13.1	19.2	2.8	6.1	11.6	3.6	7.4	13.8
2005		11.1	16.2	21.7	8.6	14.1	20.0	8.5	13.8	19.6	3.3	7.1	12.6	4.2	8.3	14.4
2006		11.8	16.7	22.4	9.1	14.2	20.5	8.9	13.7	20.0	3.7	7.6	13.6	4.6	8.8	15.6
2007		12.5	17.1	22.9	9.5	14.6	20.8	8.9	14.2	20.1	4.1	7.9	14.1	4.9	9.4	16.2
2008		12.3	16.9	22.0	9.3	14.4	19.9	9.0	14.2	19.6	3.5	7.5	13.4	4.6	9.1	15.6
2009		13.1	17.5	23.5	9.3	14.5	20.9	9.0	14.1	20.4	4.1	8.8	14.7	4.9	10.3	16.7
2010		12.6	17.3	22.4	9.1	14.1	20.1	8.9	13.8	19.6	3.7	8.0	14.2	4.6	9.5	15.9
분기	1	-	-	-	11.3	16.3	22.6	11.2	16.2	22.3	4.8	9.6	16.1	5.7	10.8	17.6
	2	-	-	-	10.3	14.8	20.7	10.2	14.4	20.3	5.0	9.5	16.0	5.6	10.9	17.4
	3	-	-	-	10.9	15.6	21.3	11.1	15.5	21.2	5.1	9.8	16.0	5.9	10.8	17.1
	4	-	-	-	10.4	15.1	21.0	10.2	14.7	20.9	4.6	9.0	15.2	5.3	10.0	16.1
2006[2)]		15.0	19.9	25.0	11.9	16.9	22.9	11.4	16.3	22.3	5.9	10.6	16.3	7.1	11.8	18.5
2007[2)]		15.7	20.3	26.1	12.3	17.7	23.6	12.0	17.2	23.1	6.0	10.6	17.1	7.4	12.0	18.9
2008[2)]		16.4	21.2	26.4	12.7	18.1	23.9	12.3	17.8	23.5	5.8	10.9	16.9	7.0	12.2	18.4
2009[2)]		17.5	22.0	27.1	13.7	18.9	24.6	13.3	18.4	24.1	7.2	12.1	18.5	8.1	14.0	19.6
2010[2)]		18.4	22.7	27.5	14.0	18.9	24.4	13.7	18.3	24.1	6.9	12.1	18.5	7.7	13.2	19.9
분기	1	-	-	-	16.5	21.3	26.5	16.0	20.8	26.1	7.7	13.1	19.7	8.8	14.3	20.9
	2	-	-	-	15.3	19.7	24.6	14.8	19.4	24.1	8.2	13.2	19.8	9.4	14.6	21.4
	3	-	-	-	15.4	20.0	24.9	15.4	19.8	24.8	8.4	13.4	19.4	9.2	14.3	20.4
	4	-	-	-	14.8	19.3	24.4	14.4	18.9	23.9	7.7	12.1	18.1	8.6	13.7	19.5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20〉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가구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0		2.8	6.1	12.1	2.6	5.9	11.8	2.5	5.5	11.2	1.1	3.6	8.9	1.5	4.7	10.5
1991		2.4	6.0	11.1	2.2	5.6	10.7	1.9	5.1	10.2	1.0	4.2	10.0	1.6	5.3	11.2
1992		2.9	5.8	11.0	2.7	5.5	10.7	2.3	5.1	10.1	1.0	4.7	11.4	1.6	6.2	12.8
1993		3.2	6.1	12.0	3.1	5.9	11.7	2.9	5.7	11.5	1.4	4.7	10.0	1.9	5.4	11.9
1994		2.7	6.3	12.3	2.6	6.1	12.0	2.4	5.8	11.4	1.0	3.8	10.0	1.6	5.4	12.1
1995		2.7	6.4	12.3	2.7	6.3	12.0	2.5	5.9	11.7	1.0	3.8	9.8	1.5	5.3	11.3
1996		2.9	7.2	14.0	2.9	6.9	13.7	2.8	6.6	13.3	1.2	3.7	9.5	1.7	5.3	12.1
1997		3.1	7.2	13.7	3.0	7.2	13.5	2.8	6.9	13.3	1.0	3.7	9.6	1.8	4.6	10.8
1998		4.7	9.1	15.9	4.7	8.8	15.7	4.3	8.6	15.1	1.7	5.0	10.8	2.3	6.3	12.4
1999		5.0	10.1	17.3	4.5	9.9	16.9	4.3	9.4	16.5	1.7	5.8	10.5	2.9	7.0	13.2
2000		3.7	8.4	14.8	3.3	7.9	14.8	3.1	7.3	13.6	1.0	3.9	9.8	1.5	5.9	11.6
2001		4.3	8.8	15.6	3.8	8.2	14.8	3.0	7.7	14.1	0.9	3.7	9.2	1.4	5.0	11.9
2002		3.8	8.5	15.2	3.2	8.1	14.6	3.1	7.6	14.0	1.1	3.8	8.6	1.6	4.9	10.8
2003		5.1	10.6	16.2	4.6	9.9	15.8	4.3	9.0	15.2	0.9	3.2	7.8	1.5	4.4	9.8
2004		6.0	11.0	17.5	5.4	10.2	17.0	4.8	9.6	16.2	1.3	3.4	8.4	1.9	5.1	11.4
2005		6.4	10.9	17.9	5.6	10.3	17.3	5.2	9.6	17.0	1.6	4.3	9.6	2.1	6.0	12.0
2006		6.4	11.5	17.9	5.2	10.4	17.0	4.9	9.8	16.2	1.7	5.1	11.1	2.2	6.7	13.9
2007		6.8	12.5	19.1	5.4	10.8	18.2	4.7	9.8	16.9	1.9	5.8	11.7	2.9	7.5	14.3
2008		7.0	11.7	18.2	5.4	10.4	17.2	4.6	9.4	15.9	1.6	5.1	11.5	2.8	7.5	14.2
2009		7.1	12.5	18.8	5.6	10.8	17.4	5.0	10.4	16.7	2.7	6.7	12.5	3.8	8.2	14.6
2010		7.0	11.8	17.6	4.8	9.8	16.3	4.5	9.3	15.3	2.1	6.0	11.8	3.1	7.8	13.9
분기	1	-	-	-	6.9	12.3	19.0	6.3	11.7	18.4	2.9	7.0	13.1	3.7	8.6	15.5
	2	-	-	-	5.9	10.4	16.8	5.5	9.9	16.3	3.3	7.2	13.8	4.2	9.0	15.5
	3	-	-	-	6.3	11.2	18.0	5.8	10.8	17.5	3.2	7.8	14.2	4.1	9.2	15.5
	4	-	-	-	5.7	10.6	17.1	5.2	9.9	16.5	2.9	7.0	12.7	3.7	7.9	14.4
2006[2)]		7.1	12.2	18.6	5.8	10.9	17.6	5.3	10.0	16.7	2.4	6.3	12.2	3.2	7.4	14.8
2007[2)]		7.6	13.3	19.6	6.3	12.0	19.0	5.6	11.1	17.9	2.3	6.7	13.0	3.3	8.2	15.4
2008[2)]		7.8	12.7	19.0	6.2	11.4	18.4	5.4	10.3	17.0	2.3	6.4	12.6	3.6	9.0	15.5
2009[2)]		8.2	14.0	20.1	6.5	12.4	18.5	6.2	11.7	18.1	3.7	7.7	13.6	4.7	9.6	15.7
2010[2)]		8.9	13.6	19.5	6.5	11.5	17.6	5.7	11.1	17.1	3.3	8.0	14.2	4.0	9.1	15.4
분기	1	-	-	-	8.2	13.6	19.9	7.8	12.9	19.2	4.2	8.7	14.5	5.1	10.1	16.7
	2	-	-	-	7.6	11.8	18.6	7.2	11.4	17.9	4.9	9.3	15.6	6.0	11.0	17.8
	3	-	-	-	7.6	12.5	19.5	7.3	12.1	18.6	4.9	9.5	16.0	5.7	11.0	17.2
	4	-	-	-	6.8	11.7	18.4	6.1	11.2	18.0	4.0	8.2	14.1	4.6	9.2	15.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21〉 중위소득 · 지출 기준 소득갭비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42.0	37.5	35.9	33.2	31.6	30.4	34.3	32.2	30.6	18.2	19.8	19.7	19.7	20.7	21.3
2004		40.6	37.1	35.6	31.8	30.9	30.2	32.8	31.5	30.7	20.2	20.4	20.2	21.0	21.7	21.2
2005		43.1	38.9	37.7	34.2	32.0	31.8	35.7	32.4	32.2	20.1	20.4	21.3	21.5	21.8	21.9
2006		43.0	40.2	38.0	33.1	32.1	31.5	34.7	33.2	31.5	24.8	23.1	22.6	24.5	23.4	23.0
2007		43.4	40.3	38.4	33.3	32.4	32.2	34.9	33.2	32.3	22.1	22.2	22.9	24.3	23.6	24.0
2008		45.6	42.0	40.4	34.2	32.3	33.4	35.8	32.8	33.3	20.4	20.7	21.8	21.5	22.5	23.1
2009		47.0	43.1	40.6	36.6	32.9	32.4	38.6	34.5	32.8	20.1	20.9	22.8	22.0	23.1	24.3
2010		48.5	44.3	41.9	35.9	33.6	33.0	37.7	34.2	33.6	20.9	20.8	22.2	20.9	21.8	23.8
분기	1	-	-	-	45.5	40.6	38.1	47.7	42.3	38.6	22.2	22.8	23.8	24.1	24.1	24.8
	2	-	-	-	43.5	39.9	36.7	46.3	42.4	37.5	22.7	23.4	24.0	24.7	24.0	25.3
	3	-	-	-	43.0	40.0	37.5	48.5	43.1	39.1	23.7	24.2	24.7	24.3	24.8	25.8
	4	-	-	-	43.5	39.4	36.5	46.3	40.8	36.9	22.3	23.4	23.9	24.6	24.3	25.2
2006[2)]		45.3	42.6	40.6	34.8	34.1	33.4	35.7	34.7	33.6	26.1	25.1	24.8	26.2	26.0	25.4
2007[2)]		45.3	43.0	41.0	34.5	33.9	33.9	36.8	34.6	34.4	23.1	24.2	24.6	25.4	26.0	26.0
2008[2)]		47.5	44.7	42.9	34.9	34.2	35.1	36.9	34.8	35.3	21.4	22.4	23.9	23.4	25.0	25.6
2009[2)]		50.1	47.3	44.3	38.7	36.4	35.4	40.2	37.3	35.6	24.2	24.9	25.8	25.9	26.0	27.1
2010[2)]		52.3	48.7	46.4	39.2	37.6	36.5	40.7	38.2	37.1	24.8	25.2	25.6	25.7	25.7	26.7
분기	1	-	-	-	47.7	44.2	41.9	49.7	45.4	42.1	26.3	26.3	26.9	27.6	27.4	27.8
	2	-	-	-	45.6	43.6	39.9	48.3	45.4	41.2	26.5	27.3	27.4	28.5	27.9	28.4
	3	-	-	-	46.8	43.9	41.0	50.6	46.6	42.9	27.6	27.9	27.9	28.1	28.2	28.9
	4	-	-	-	46.4	43.4	40.1	48.9	44.6	40.5	26.6	27.0	27.1	28.4	28.3	28.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22〉 중위소득 · 지출 기준 소득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0		21.1	21.2	21.6	20.1	20.3	20.9	21.4	20.4	20.5	13.6	14.0	16.2	15.3	15.6	17.3
1991		17.8	18.8	21.0	16.5	18.1	20.4	16.7	18.1	20.1	11.8	13.8	16.5	12.1	15.3	18.3
1992		19.5	22.2	22.5	17.3	20.9	21.4	18.4	21.1	21.5	13.4	13.1	15.8	13.0	14.0	18.0
1993		21.8	23.9	21.9	21.7	23.4	21.8	23.0	23.7	21.4	15.6	15.5	18.0	14.2	16.9	18.3
1994		24.8	21.6	20.7	23.2	20.5	20.3	25.3	21.1	20.4	14.2	13.2	15.8	14.2	15.1	17.9
1995		19.2	20.5	21.0	18.8	20.5	20.8	19.0	20.5	20.7	12.5	13.8	15.9	14.4	15.4	17.9
1996		20.3	20.0	20.8	20.5	20.2	20.7	20.3	19.8	20.2	13.4	15.6	15.9	14.8	16.2	17.7
1997		17.5	19.8	20.6	18.1	19.8	20.6	18.5	20.0	20.6	13.9	14.2	15.2	12.5	16.1	17.3
1998		21.8	23.2	23.6	20.6	22.7	23.1	21.6	22.6	23.2	12.6	16.2	17.7	16.9	18.1	19.5
1999		22.7	23.3	24.3	22.0	22.0	23.6	22.3	22.2	23.3	15.9	15.7	19.3	14.3	18.9	20.3
2000		21.6	22.0	22.6	19.0	20.8	21.4	18.2	20.3	21.5	12.8	14.1	16.0	14.9	14.1	18.1
2001		18.4	21.8	22.7	15.4	20.0	21.5	17.8	19.3	20.9	12.2	13.2	15.5	12.3	14.8	16.2
2002		21.1	21.6	22.4	19.7	19.5	21.1	18.8	19.0	21.0	17.5	14.8	16.2	14.7	15.7	17.4
2003		25.7	23.9	26.3	23.3	22.2	24.7	23.5	23.0	23.8	14.9	13.8	15.6	14.6	17.1	17.5
2004		25.8	26.1	27.3	23.0	24.1	25.3	25.4	24.2	25.1	11.0	16.0	16.7	13.1	16.4	18.1
2005		26.9	28.6	27.6	22.2	24.9	25.4	21.9	24.7	24.1	12.6	16.6	16.9	16.9	17.4	19.1
2006		26.9	26.8	27.6	23.5	23.4	25.2	23.5	22.9	24.5	15.1	16.5	16.4	17.3	16.4	18.7
2007		27.4	26.8	28.2	23.2	24.2	25.0	24.8	24.2	24.6	14.4	14.9	18.6	15.9	16.9	20.1
2008		29.1	29.8	29.2	24.2	25.1	25.7	26.6	25.0	25.8	16.4	15.9	17.0	14.1	17.7	19.7
2009		27.6	27.2	28.8	23.4	23.7	25.6	25.3	23.2	25.1	17.6	18.4	20.3	17.1	20.8	21.7
2010		27.7	29.1	29.2	22.8	23.3	24.3	22.6	23.3	24.3	16.2	17.2	19.2	16.6	17.7	20.9
분기	1	-	-	-	28.2	27.7	28.4	30.5	27.8	28.2	17.0	18.4	20.0	19.2	19.6	21.7
	2	-	-	-	31.4	28.5	27.8	32.6	28.8	27.6	20.3	20.3	20.9	20.5	20.9	22.9
	3	-	-	-	30.5	28.3	27.6	34.8	29.4	27.6	19.2	20.1	21.8	20.2	21.4	23.0
	4	-	-	-	29.7	27.2	27.0	32.3	28.1	26.7	17.8	18.7	20.7	18.4	20.9	22.3
2006[2)]		27.5	27.8	28.2	24.5	24.0	25.4	24.4	23.9	24.9	16.2	17.6	17.8	19.0	17.6	19.4
2007[2)]		28.2	27.6	29.0	24.5	24.8	25.6	25.4	24.6	25.2	15.4	15.5	18.9	16.6	17.7	20.8
2008[2)]		29.5	30.0	29.7	24.8	26.0	26.2	26.9	25.8	26.3	15.9	17.0	18.3	15.3	18.3	20.3
2009[2)]		29.0	28.5	29.6	24.8	24.7	26.6	25.7	24.1	25.9	19.4	20.0	21.8	19.5	21.7	22.9
2010[2)]		29.9	30.8	30.9	24.6	24.4	25.7	24.4	24.7	25.8	21.5	19.7	20.9	19.7	19.6	22.4
분기	1	-	-	-	30.7	29.4	29.8	32.9	29.8	29.6	20.0	20.5	21.7	21.3	21.2	23.0
	2	-	-	-	31.9	29.9	28.8	32.7	30.4	28.4	22.8	22.4	22.7	22.6	23.0	24.4
	3	-	-	-	32.8	30.0	28.7	36.7	31.2	29.0	24.1	22.6	23.6	23.4	23.4	24.7
	4	-	-	-	31.4	28.5	27.9	33.4	29.1	27.6	20.5	20.8	22.1	21.0	22.3	23.3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23〉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갭비율(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3.5	4.9	6.7	2.3	3.6	5.5	2.3	3.6	5.4	0.4	0.9	1.9	0.5	1.2	2.4
2004		3.6	5.1	7.1	2.3	3.7	5.6	2.3	3.7	5.6	0.4	1.1	2.2	0.6	1.4	2.7
2005		4.1	5.7	7.6	2.6	4.1	6.0	2.6	4.0	5.9	0.5	1.2	2.4	0.7	1.6	3.0
2006		4.3	5.9	7.9	2.6	4.1	6.1	2.6	4.0	5.9	0.7	1.5	2.8	0.9	1.8	3.3
2007		4.6	6.3	8.3	2.7	4.2	6.2	2.7	4.2	6.1	0.7	1.5	2.9	1.0	2.0	3.6
2008		4.7	6.3	8.2	2.6	4.2	6.1	2.7	4.1	6.0	0.6	1.3	2.6	0.8	1.8	3.4
2009		5.1	6.6	8.6	2.8	4.2	6.2	2.8	4.2	6.1	0.7	1.6	3.0	0.9	2.1	3.7
2010		5.1	6.6	8.4	2.7	4.1	5.9	2.8	4.1	5.9	0.6	1.4	2.8	0.8	1.8	3.4
분기	1	-	-	-	4.4	6.0	7.9	4.6	6.1	8.0	0.9	1.9	3.5	1.1	2.3	4.1
	2	-	-	-	3.8	5.2	6.9	4.0	5.3	7.0	0.9	1.9	3.5	1.1	2.3	4.0
	3	-	-	-	4.0	5.5	7.3	4.5	5.8	7.5	1.0	2.0	3.6	1.2	2.4	4.0
	4	-	-	-	3.7	5.1	6.9	3.9	5.2	7.0	0.8	1.8	3.2	1.0	2.1	3.7
2006[2)]		5.2	6.9	8.9	3.1	4.7	6.7	3.1	4.6	6.6	1.0	1.9	3.3	1.2	2.3	3.9
2007[2)]		5.4	7.2	9.2	3.2	4.9	7.0	3.2	4.9	6.9	1.0	2.0	3.5	1.3	2.5	4.2
2008[2)]		5.8	7.5	9.5	3.3	5.0	7.0	3.3	4.9	6.9	0.8	1.8	3.2	1.2	2.3	4.0
2009[2)]		6.5	8.2	10.2	3.6	5.3	7.4	3.7	5.2	7.2	1.1	2.2	3.8	1.4	2.7	4.5
2010[2)]		6.7	8.3	10.1	3.7	5.3	7.2	3.8	5.3	7.2	1.1	2.1	3.6	1.3	2.5	4.3
분기	1	-	-	-	5.6	7.3	9.3	5.8	7.4	9.4	1.4	2.6	4.4	1.7	3.0	4.9
	2	-	-	-	4.9	6.5	8.3	5.1	6.6	8.3	1.5	2.7	4.4	1.8	3.1	5.0
	3	-	-	-	5.2	6.8	8.7	5.6	7.1	8.9	1.6	2.8	4.5	1.8	3.1	4.9
	4	-	-	-	4.9	6.4	8.3	5.0	6.5	8.3	1.3	2.5	4.0	1.6	2.8	4.5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24〉 중위소득 · 지출 기준 빈곤갭비율(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0		0.6	1.3	2.6	0.5	1.2	2.5	0.5	1.2	2.4	0.1	0.5	1.4	0.2	0.8	1.9
1991		0.4	1.1	2.3	0.4	1.0	2.2	0.3	0.9	2.0	0.1	0.6	1.6	0.2	0.8	2.0
1992		0.6	1.3	2.5	0.5	1.2	2.3	0.4	1.1	2.2	0.1	0.6	1.8	0.2	0.9	2.3
1993		0.7	1.4	2.6	0.6	1.3	2.6	0.6	1.3	2.4	0.2	0.7	1.8	0.3	0.9	2.2
1994		0.6	1.3	2.5	0.6	1.2	2.4	0.6	1.2	2.3	0.1	0.5	1.6	0.2	0.9	2.2
1995		0.5	1.3	2.5	0.5	1.2	2.4	0.4	1.1	2.3	0.1	0.5	1.5	0.2	0.8	2.0
1996		0.6	1.4	2.9	0.6	1.4	2.8	0.5	1.3	2.7	0.2	0.6	1.5	0.3	0.8	2.1
1997		0.5	1.4	2.8	0.5	1.3	2.7	0.5	1.2	2.6	0.1	0.5	1.4	0.2	0.7	1.8
1998		1.0	2.0	3.7	0.9	1.9	3.6	0.9	1.9	3.4	0.2	0.7	1.8	0.4	1.1	2.4
1999		1.1	2.3	4.1	1.0	2.1	3.9	0.9	2.0	3.8	0.2	0.8	2.0	0.4	1.2	2.6
2000		0.7	1.7	3.3	0.6	1.5	3.0	0.5	1.4	2.8	0.1	0.5	1.5	0.2	0.8	2.1
2001		0.8	1.8	3.4	0.5	1.5	3.1	0.5	1.4	2.9	0.1	0.4	1.3	0.2	0.7	1.8
2002		0.7	1.7	3.2	0.6	1.4	2.9	0.5	1.3	2.7	0.1	0.5	1.4	0.2	0.7	1.8
2003		1.2	2.4	4.1	1.0	2.1	3.8	0.9	1.9	3.5	0.1	0.4	1.2	0.2	0.7	1.7
2004		1.4	2.8	4.6	1.2	2.4	4.2	1.1	2.3	3.9	0.1	0.5	1.3	0.2	0.8	2.0
2005		1.6	3.0	4.8	1.2	2.4	4.2	1.1	2.3	3.9	0.2	0.6	1.6	0.3	1.0	2.2
2006		1.6	2.9	4.8	1.1	2.3	4.2	1.0	2.1	3.8	0.2	0.7	1.8	0.3	1.0	2.5
2007		1.8	3.2	5.2	1.2	2.4	4.3	1.1	2.2	3.9	0.2	0.8	2.1	0.4	1.2	2.8
2008		2.0	3.4	5.2	1.3	2.5	4.3	1.2	2.3	3.9	0.2	0.8	1.9	0.4	1.3	2.7
2009		1.8	3.2	5.1	1.2	2.4	4.2	1.1	2.3	4.0	0.4	1.1	2.4	0.6	1.5	2.9
2010		1.8	3.2	4.9	1.0	2.1	3.8	0.9	1.9	3.5	0.3	0.9	2.1	0.4	1.3	2.8
분기	1	-	-	-	1.8	3.2	5.2	1.8	3.1	5.0	0.4	1.2	2.5	0.6	1.6	3.2
	2	-	-	-	1.6	2.7	4.4	1.6	2.6	4.2	0.5	1.3	2.7	0.7	1.7	3.3
	3	-	-	-	1.7	2.9	4.6	1.8	2.9	4.5	0.6	1.4	2.8	0.7	1.8	3.4
	4	-	-	-	1.5	2.6	4.3	1.5	2.5	4.1	0.4	1.2	2.4	0.6	1.5	2.9
2006[2)]		1.7	3.1	5.0	1.2	2.4	4.3	1.1	2.2	3.9	0.3	0.9	2.0	0.4	1.2	2.7
2007[2)]		1.9	3.4	5.4	1.3	2.6	4.5	1.2	2.4	4.1	0.3	0.9	2.2	0.5	1.3	2.9
2008[2)]		2.1	3.5	5.4	1.4	2.7	4.5	1.3	2.5	4.1	0.3	0.9	2.1	0.5	1.4	2.9
2009[2)]		2.0	3.5	5.4	1.3	2.7	4.5	1.3	2.5	4.2	0.5	1.3	2.6	0.7	1.7	3.2
2010[2)]		2.1	3.5	5.3	1.2	2.4	4.1	1.1	2.2	3.9	0.5	1.2	2.5	0.6	1.6	3.1
분기	1	-	-	-	2.1	3.6	5.5	2.1	3.4	5.3	0.6	1.4	2.9	0.8	1.8	3.5
	2	-	-	-	1.8	3.0	4.7	1.8	2.9	4.5	0.8	1.7	3.1	1.0	2.1	3.7
	3	-	-	-	2.0	3.2	5.0	2.0	3.2	4.9	0.8	1.8	3.2	1.0	2.1	3.8
	4	-	-	-	1.7	2.9	4.6	1.7	2.8	4.4	0.6	1.4	2.7	0.8	1.7	3.2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03

인구유형별 빈곤

제3장 인구유형별 빈곤

제1절 여성가구주 가구

□ 여성가구주가구 빈곤율의 구성과 특성

구분			특성
기준빈곤선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 3년 주기 계측 공식적 빈곤선 · 1999년~2010년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 계측년도 기준 동일비율 적용 · 1990년~2010년
	중위소득·지출		· 40%, 50%, 60%
빈곤지수	빈곤율		· 여성가구주가구의 가구원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원의 비율
대상, 주기	전가구	연간	· 2003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연간	· 1990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1. 절대적 빈곤율

〈표 3-1〉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전가구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14.7	11.7	13.2	13.3	7.7
2004		15.8	11.6	13.0	13.1	7.7
2005		19.1	13.3	15.1	16.5	10.5
2006		20.0	14.9	16.2	18.4	11.0
2007		18.8	12.1	13.4	18.9	12.0
2008		19.8	13.6	14.2	18.3	12.0
2009		21.3	14.1	15.7	22.2	13.7
2010		20.1	12.4	14.5	18.4	11.8
분기	1	-	17.5	19.5	24.3	14.8
	2	-	14.7	16.5	25.0	15.5
	3	-	14.9	17.1	24.8	14.8
	4	-	15.3	17.0	22.7	13.9
2006[2)]		22.9	16.9	18.1	20.8	13.2
2007[2)]		21.6	14.7	16.0	20.9	14.0
2008[2)]		23.6	16.4	17.2	20.8	13.8
2009[2)]		27.1	18.5	19.8	26.2	17.1
2010[2)]		26.1	17.2	19.1	22.3	14.7
분기	1	-	22.2	23.8	28.7	18.3
	2	-	19.4	20.9	29.4	19.6
	3	-	19.8	21.7	28.7	18.2
	4	-	20.3	21.7	26.1	17.5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2〉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9		15.6	12.2	13.7	27.3	16.8
2000		10.0	8.3	9.2	15.3	8.1
2001		10.9	9.1	10.5	11.8	6.6
2002		7.5	6.1	6.7	10.5	6.4
2003		8.4	6.6	7.7	9.9	4.5
2004		11.4	8.8	10.4	11.4	5.9
2005		12.1	8.1	9.7	13.2	7.2
2006		13.3	9.5	10.8	14.7	7.6
2007		13.6	7.9	8.7	18.8	9.5
2008		13.2	8.4	8.8	13.3	8.4
2009		15.6	9.9	11.6	21.2	12.9
2010		16.1	8.6	10.9	17.8	10.2
분기	1	-	13.0	16.1	22.3	11.9
	2	-	11.4	13.7	25.6	14.7
	3	-	10.4	12.7	25.6	14.0
	4	-	10.3	12.9	22.4	12.7
2006[2)]		12.9	9.2	10.5	14.9	8.0
2007[2)]		13.2	7.5	8.4	18.0	9.2
2008[2)]		12.4	8.1	8.8	13.2	7.8
2009[2)]		15.2	9.7	11.1	21.3	13.4
2010[2)]		16.4	9.2	11.1	17.7	10.7
분기	1	-	13.6	16.1	23.7	12.8
	2	-	11.4	13.3	26.4	15.7
	3	-	11.0	13.2	26.2	15.0
	4	-	10.4	12.6	22.5	13.0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3〉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전가구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15.8	12.4	14.1	15.8	8.7
2004		16.8	13.0	14.6	15.2	8.7
2005		19.2	14.0	15.2	16.7	10.8
2006		20.4	15.6	16.8	19.2	11.7
2007		18.9	13.0	14.2	19.8	13.0
2008		19.9	13.9	14.4	18.9	12.3
2009		21.3	14.2	15.7	22.0	13.8
2010		20.9	13.7	16.4	19.4	12.7
분기	1	-	18.0	20.3	25.7	15.6
	2	-	15.4	17.5	26.5	16.5
	3	-	15.6	17.8	25.8	15.6
	4	-	15.8	17.6	23.4	14.7
2006[2)]		23.3	17.6	18.8	21.5	14.0
2007[2)]		22.4	15.7	16.9	22.1	14.8
2008[2)]		23.8	16.8	17.4	21.4	14.1
2009[2)]		27.1	18.6	19.8	26.2	17.2
2010[2)]		27.0	18.4	20.8	23.5	15.9
분기	1	-	22.9	24.8	30.1	19.2
	2	-	20.2	22.0	30.7	20.5
	3	-	20.5	22.4	29.6	19.1
	4	-	20.7	22.2	26.9	18.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4〉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0		19.3	17.7	18.7	31.6	23.6
1991		10.8	9.5	9.6	24.1	16.7
1992		13.8	11.3	11.9	28.2	16.4
1993		12.4	11.2	11.4	24.6	15.9
1994		11.6	10.4	11.5	20.8	13.3
1995		8.4	7.9	8.7	16.7	11.1
1996		8.0	7.8	7.8	17.9	10.2
1997		5.7	5.3	5.7	16.9	8.1
1998		12.7	12.0	13.5	30.3	19.4
1999		15.6	12.2	13.7	27.3	16.8
2000		10.8	8.7	9.8	15.5	8.2
2001		11.7	9.8	10.7	13.7	7.3
2002		8.3	6.6	7.5	11.9	6.8
2003		9.0	7.3	8.1	12.6	5.5
2004		12.4	10.4	12.1	12.6	6.9
2005		12.1	8.5	9.7	13.4	7.3
2006		13.6	10.3	11.9	15.4	7.7
2007		14.2	8.8	9.3	19.1	10.2
2008		13.5	8.8	9.0	14.3	8.6
2009		15.6	10.0	11.6	21.3	12.9
2010		17.6	10.7	13.7	19.2	10.9
분기	1	-	13.6	17.2	24.2	13.0
	2	-	12.0	14.7	26.9	15.9
	3	-	10.9	13.5	26.8	14.9
	4	-	10.7	13.6	23.2	13.9
2006[2)]		13.3	10.0	11.5	15.5	8.2
2007[2)]		13.9	8.5	8.9	18.3	9.7
2008[2)]		12.7	8.4	8.9	14.1	8.0
2009[2)]		15.2	9.7	11.1	21.4	13.4
2010[2)]		17.7	10.9	13.5	19.3	11.5
분기	1	-	14.1	17.0	25.3	13.8
	2	-	12.1	14.3	27.7	16.8
	3	-	11.6	13.9	27.1	15.8
	4	-	10.8	13.3	23.3	14.0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대적 빈곤율

〈표 3-5〉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중위소득·지출,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6.5	24.6	34.8	14.0	22.1	33.3	12.8	21.3	31.6	3.9	9.1	19.2	5.6	12.1	21.3
2004		17.8	26.6	36.1	14.3	23.5	34.2	13.6	21.9	32.4	3.9	9.9	19.6	5.8	13.8	23.8
2005		19.7	29.1	37.0	15.4	25.7	35.2	14.7	24.5	34.0	6.0	11.8	20.8	7.5	14.9	24.9
2006		20.7	29.4	36.9	16.8	25.6	34.3	15.8	24.2	32.8	6.2	12.9	22.5	8.3	15.2	27.8
2007		19.8	27.7	37.2	15.1	24.3	35.3	13.7	23.2	32.8	5.6	12.6	23.3	8.2	17.2	27.4
2008		20.3	26.9	36.0	15.0	23.7	33.7	14.0	22.2	32.1	5.1	12.1	21.6	7.6	16.1	27.1
2009		21.8	29.3	37.7	15.1	25.0	34.3	13.6	23.5	33.5	6.7	12.5	21.8	7.6	16.4	27.5
2010		20.6	28.0	37.1	15.0	25.6	34.8	14.5	24.9	33.4	5.8	13.2	22.4	7.7	17.4	26.9
분기	1	-	-	-	19.0	29.2	37.3	18.4	27.8	35.9	6.8	15.1	24.0	9.8	17.6	29.1
	2	-	-	-	16.6	26.0	34.1	15.5	23.8	33.2	7.7	15.2	24.4	9.3	19.2	30.2
	3	-	-	-	16.8	25.8	33.9	16.4	24.9	32.8	7.8	15.0	24.0	9.8	18.2	28.1
	4	-	-	-	17.3	25.9	34.9	15.9	24.4	33.7	6.8	14.1	22.6	8.7	16.9	26.9
2006[2)]		25.4	34.1	41.7	21.0	30.2	39.0	19.8	28.7	37.4	10.0	18.3	28.1	12.4	20.5	32.7
2007[2)]		25.2	33.4	42.2	20.4	30.1	40.2	18.8	28.5	38.0	9.8	17.7	28.9	12.4	21.8	32.4
2008[2)]		26.5	33.8	42.3	20.9	30.4	40.0	19.9	28.7	38.0	9.6	18.4	28.5	12.5	22.1	33.1
2009[2)]		29.5	36.7	44.4	22.9	32.6	41.3	21.2	30.8	40.3	12.4	20.0	30.1	14.0	23.6	34.1
2010[2)]		29.1	35.8	44.1	22.6	32.6	41.6	21.8	31.7	40.1	12.1	20.4	30.3	13.8	23.6	33.3
분기	1	-	-	-	26.5	36.1	44.3	25.5	34.4	42.2	13.0	22.7	32.0	15.7	24.9	35.8
	2	-	-	-	24.0	32.9	41.4	22.6	30.6	39.7	14.5	22.9	32.6	16.0	25.9	36.9
	3	-	-	-	23.7	32.6	40.9	23.4	31.8	39.5	14.1	22.1	31.4	15.5	24.3	34.0
	4	-	-	-	23.9	32.5	41.3	22.4	30.9	39.7	12.6	20.6	29.2	14.5	22.9	32.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6〉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중위소득·지출,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0		13.5	23.4	29.8	13.4	21.7	28.7	11.5	20.2	28.1	2.7	8.3	18.6	4.7	12.7	26.8
1991		8.9	17.0	27.2	7.9	14.9	25.0	7.1	14.2	24.3	1.9	9.9	18.0	5.2	11.7	21.7
1992		13.3	21.0	30.3	11.4	19.4	27.9	9.8	18.7	26.9	2.0	9.0	20.5	4.5	14.9	22.0
1993		12.1	17.6	28.4	10.8	16.8	27.5	10.6	16.0	27.1	3.6	9.2	18.2	4.6	11.7	21.3
1994		9.0	16.9	26.6	8.8	16.0	25.0	7.6	16.3	24.3	1.3	7.1	16.2	2.7	9.4	18.1
1995		8.1	19.5	28.8	8.0	19.7	27.8	7.7	18.6	26.7	1.9	5.8	14.4	3.2	9.8	17.8
1996		8.5	18.0	28.7	8.4	18.0	28.7	8.3	16.5	28.0	3.4	7.3	17.4	4.6	10.7	22.8
1997		8.0	14.6	26.4	7.9	15.3	26.7	7.3	14.3	26.3	2.4	7.3	16.8	4.1	8.8	21.9
1998		8.1	16.7	25.5	7.4	16.6	25.5	7.2	15.7	24.4	3.7	9.4	16.7	4.8	12.8	23.1
1999		9.7	18.7	29.5	7.5	17.4	29.0	7.4	15.8	26.5	4.2	13.9	19.4	7.6	14.1	24.8
2000		8.5	14.8	24.2	7.8	14.0	24.8	7.7	12.9	22.7	2.4	8.7	16.9	3.3	10.3	20.0
2001		7.7	17.6	28.6	7.3	16.5	26.9	5.6	15.3	25.8	2.0	7.1	15.8	2.7	8.7	22.5
2002		8.9	17.6	26.1	7.8	16.5	25.8	6.6	15.0	25.6	3.1	7.6	14.0	3.8	8.9	18.8
2003		9.1	17.4	29.5	7.7	15.6	29.5	7.4	15.1	28.6	1.7	5.0	14.4	3.1	8.2	16.6
2004		12.5	22.1	32.7	10.9	20.0	31.7	10.8	19.1	29.1	2.6	7.9	16.4	4.1	11.3	21.6
2005		12.5	21.4	31.4	10.0	20.0	29.7	8.9	18.7	29.0	3.9	8.3	17.6	4.3	11.4	22.5
2006		13.5	22.3	30.2	10.5	19.2	28.5	10.2	18.3	27.6	3.5	8.8	18.3	4.1	11.1	25.2
2007		14.4	22.0	31.7	9.1	19.9	31.4	8.3	19.0	28.4	2.6	10.0	22.2	4.8	15.1	25.7
2008		13.6	19.9	29.7	8.7	16.8	29.0	7.5	15.2	26.8	2.3	7.5	16.8	3.8	11.8	23.9
2009		15.8	24.5	35.1	10.9	20.9	32.3	10.1	20.3	31.1	5.6	11.4	21.3	6.2	15.1	25.5
2010		16.1	24.7	34.2	10.7	22.9	32.6	10.0	22.2	32.4	4.3	12.1	22.7	4.7	16.0	27.7
분기	1	-	-	-	14.4	27.2	35.8	14.3	25.5	34.9	4.9	11.9	20.9	6.9	14.8	26.8
	2	-	-	-	13.5	24.7	34.5	12.4	21.4	33.4	6.8	14.7	24.8	7.6	18.3	31.8
	3	-	-	-	12.1	22.4	31.9	11.7	21.7	30.5	7.0	14.5	24.7	7.7	17.1	28.3
	4	-	-	-	12.6	22.7	32.3	10.8	21.2	30.7	5.0	12.7	22.3	6.3	15.7	27.0
2006[2)]		13.5	22.3	30.7	10.8	19.4	29.0	10.6	18.3	28.0	4.7	10.8	20.8	5.5	12.9	26.9
2007[2)]		14.9	22.8	32.3	10.0	21.1	32.3	9.1	19.8	29.5	3.7	11.0	23.8	5.9	15.7	27.5
2008[2)]		13.8	20.5	30.0	9.5	17.9	30.0	8.4	16.3	27.1	3.2	9.8	19.2	4.6	13.6	26.0
2009[2)]		17.1	24.9	35.2	12.6	21.9	32.9	11.7	21.2	31.5	7.1	13.6	23.9	8.2	16.7	26.7
2010[2)]		18.1	26.2	35.2	12.7	23.8	33.8	11.8	23.0	33.5	6.5	15.2	26.5	7.0	18.1	30.0
분기	1	-	-	-	16.2	27.5	36.6	15.7	25.7	35.0	7.8	15.8	24.9	9.1	17.7	29.1
	2	-	-	-	14.8	25.3	35.8	13.7	22.0	34.0	9.8	18.3	28.5	10.7	21.0	33.8
	3	-	-	-	13.9	23.3	32.9	13.7	22.6	31.5	9.8	17.8	28.1	10.6	19.7	30.4
	4	-	-	-	13.3	22.9	32.9	11.7	21.4	31.3	7.5	15.2	24.8	8.2	17.5	28.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2절 아동

1. 절대적 빈곤율

□ 아동 빈곤율의 구성과 특성

구분			특성
기준빈곤선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 3년 주기 계측 공식적 빈곤선 · 1999년~2010년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 계측년도 기준 동일비율 적용 · 1990년~2010년
	중위소득·지출		· 40%, 50%, 60%
빈곤지수	빈곤율		· 전체 아동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의 비율
대상, 주기	전가구	연간	· 2003년 ~ 2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	· 1990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표 3-7〉 아동 빈곤율(전가구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6.5	5.4	6.2	7.5	3.8
2004		6.9	5.4	6.3	7.5	3.8
2005		8.1	5.7	7.0	8.9	4.6
2006		7.8	5.7	6.2	8.3	4.6
2007		8.0	5.7	6.4	8.1	5.0
2008		8.0	5.2	5.9	7.6	4.5
2009		7.9	4.8	5.8	9.3	4.9
2010		7.4	4.7	5.4	6.6	3.2
분기	1	-	7.7	8.7	11.3	5.4
	2	-	5.8	6.8	10.4	5.3
	3	-	6.0	7.0	10.0	5.2
	4	-	6.0	6.9	8.3	4.1
2006[2)]		7.8	5.7	6.2	8.3	4.6
2007[2)]		8.0	5.7	6.6	8.1	5.0
2008[2)]		8.0	5.2	5.9	7.6	4.5
2009[2)]		7.9	4.8	5.8	9.3	4.9
2010[2)]		7.4	4.7	5.4	6.6	3.2
분기	1	-	7.7	8.7	11.3	5.4
	2	-	5.8	6.8	10.4	5.3
	3	-	6.0	7.0	10.0	5.2
	4	-	6.0	6.9	8.3	4.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8〉 아동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9		7.3	6.7	7.7	18.4	8.8
2000		4.8	4.4	4.8	11.3	5.5
2001		3.8	3.6	3.9	7.4	3.4
2002		3.2	2.6	2.9	7.5	3.4
2003		3.9	3.3	3.9	5.4	2.5
2004		4.0	2.8	3.4	5.0	2.6
2005		5.8	3.9	4.8	6.8	3.6
2006		4.8	3.3	3.6	5.6	2.6
2007		5.2	2.9	3.2	5.5	2.9
2008		5.4	3.4	3.7	5.4	3.3
2009		5.3	3.1	3.8	7.0	3.6
2010		4.6	2.6	3.2	5.1	2.3
분기	1	-	4.6	5.6	9.2	4.0
	2	-	3.3	4.1	8.2	3.9
	3	-	2.9	3.5	7.4	3.7
	4	-	3.2	4.0	6.9	3.1
2006[2)]		4.8	3.3	3.6	5.6	2.6
2007[2)]		5.2	2.9	3.2	5.5	2.9
2008[2)]		5.4	3.4	3.7	5.4	3.3
2009[2)]		5.3	3.1	3.8	7.0	3.6
2010[2)]		4.6	2.6	3.2	5.1	2.3
분기	1	-	4.6	5.6	9.2	4.0
	2	-	3.3	4.1	8.2	3.9
	3	-	2.9	3.5	7.4	3.7
	4	-	3.2	4.0	6.9	3.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9〉 아동 빈곤율(전가구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7.1	6.0	7.0	8.9	4.6
2004		7.5	6.0	6.9	9.2	4.3
2005		8.3	6.0	7.3	9.3	4.8
2006		7.9	5.8	6.4	8.9	4.9
2007		8.2	5.9	6.8	8.7	5.3
2008		8.0	5.4	6.2	7.9	4.7
2009		7.9	4.9	5.8	9.3	4.9
2010		7.6	4.9	5.7	7.2	3.7
분기	1	-	7.9	9.1	11.8	5.8
	2	-	6.0	7.0	10.9	5.7
	3	-	6.2	7.3	10.6	5.6
	4	-	6.1	7.1	8.8	4.3
2006[2)]		7.9	5.8	6.4	8.9	4.9
2007[2)]		8.2	5.9	6.8	8.7	5.3
2008[2)]		8.0	5.4	6.2	7.9	4.7
2009[2)]		7.9	4.9	5.8	9.3	4.9
2010[2)]		7.6	4.9	5.7	7.2	3.7
분기	1	-	7.9	9.1	11.8	5.8
	2	-	6.0	7.0	10.9	5.7
	3	-	6.2	7.3	10.6	5.6
	4	-	6.1	7.1	8.8	4.3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10〉 아동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0		6.0	5.5	5.9	25.1	13.9
1991		3.8	3.5	3.6	20.8	10.7
1992		3.6	3.3	3.5	20.3	10.4
1993		4.1	3.9	4.2	22.7	10.8
1994		3.9	3.6	4.1	22.1	10.3
1995		3.2	3.0	3.3	17.0	7.8
1996		2.5	2.4	2.6	13.4	5.7
1997		2.8	2.6	2.9	13.3	5.8
1998		6.3	5.9	6.7	26.5	11.7
1999		7.3	6.7	7.7	18.4	8.8
2000		4.9	4.5	5.1	11.7	5.6
2001		4.1	3.5	4.3	8.2	3.7
2002		3.5	2.9	3.1	8.5	3.7
2003		4.3	3.8	4.4	6.9	3.2
2004		4.4	3.4	3.9	6.4	2.9
2005		5.8	4.1	5.0	7.2	3.7
2006		4.9	3.4	3.7	6.3	2.8
2007		5.4	3.2	3.5	6.1	3.1
2008		5.4	3.5	4.0	5.6	3.4
2009		5.3	3.1	3.8	7.1	3.6
2010		4.9	2.9	3.5	5.8	2.6
분기	1	-	4.8	5.8	9.7	4.3
	2	-	3.4	4.1	8.6	4.2
	3	-	3.1	3.7	7.9	3.9
	4	-	3.3	4.1	7.3	3.4
2006[2)]		4.9	3.4	3.7	6.3	2.8
2007[2)]		5.4	3.2	3.5	6.1	3.1
2008[2)]		5.4	3.5	4.0	5.6	3.4
2009[2)]		5.3	3.1	3.8	7.1	3.6
2010[2)]		4.9	2.9	3.5	5.8	2.6
분기	1	-	4.8	5.8	9.7	4.3
	2	-	3.4	4.1	8.6	4.2
	3	-	3.1	3.7	7.9	3.9
	4	-	3.3	4.1	7.3	3.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대적 빈곤율

〈표 3-11〉 아동 빈곤율 (중위소득·지출,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6.3	11.1	17.2	5.6	10.5	17.1	5.4	10.0	16.6	1.3	3.6	8.2	1.9	4.9	10.1
2004		7.1	12.2	18.5	5.9	10.9	18.3	5.8	10.7	17.7	1.2	3.8	9.3	2.0	5.3	12.6
2005		7.6	12.9	18.7	5.9	11.6	18.2	5.5	11.2	17.6	1.3	4.1	9.5	1.9	5.7	12.7
2006		7.4	12.0	18.2	5.7	10.4	17.5	5.5	10.0	16.9	1.4	4.0	8.6	2.3	5.5	11.7
2007		7.8	12.2	18.5	6.1	10.9	17.8	5.6	10.6	16.9	1.6	4.4	8.8	2.5	6.2	11.7
2008		7.3	11.3	16.6	5.3	10.0	15.5	5.0	9.6	15.3	1.2	3.5	7.5	2.1	5.4	10.6
2009		7.3	11.6	17.0	4.7	9.1	15.9	4.4	8.8	15.5	1.3	3.5	7.3	1.7	5.1	9.9
2010		7.3	10.8	15.3	5.0	8.9	14.3	4.9	8.6	13.9	0.9	2.9	6.7	1.7	4.5	9.4
분기	1	-	-	-	7.7	12.6	19.3	7.5	12.1	18.9	1.7	4.6	8.9	2.5	5.7	11.2
	2	-	-	-	5.9	9.9	15.8	5.9	9.4	15.5	1.5	3.8	8.0	2.1	5.5	10.4
	3	-	-	-	6.2	9.4	14.9	6.1	9.3	14.5	1.7	4.0	7.9	2.5	5.5	9.9
	4	-	-	-	6.0	9.6	15.2	5.9	9.4	15.2	1.2	2.7	6.4	1.8	4.4	8.8
2006[2)]		7.4	12.0	18.2	5.7	10.5	17.5	5.5	10.0	16.9	1.4	4.0	8.6	2.4	5.5	11.7
2007[2)]		7.9	12.2	18.5	6.1	11.0	17.8	5.6	10.6	16.9	1.6	4.3	8.8	2.5	6.2	11.7
2008[2)]		7.3	11.4	16.7	5.3	10.1	15.6	5.0	9.7	15.4	1.2	3.5	7.5	2.1	5.4	10.6
2009[2)]		7.3	11.6	17.0	4.7	9.2	15.9	4.4	8.8	15.5	1.3	3.5	7.3	1.7	5.1	9.9
2010[2)]		7.3	10.8	15.3	5.0	8.9	14.3	4.9	8.6	13.9	0.9	2.9	6.7	1.7	4.5	9.4
분기	1	-	-	-	7.7	12.6	19.3	7.5	12.1	18.9	1.7	4.6	8.9	2.5	5.7	11.2
	2	-	-	-	5.9	9.9	15.8	5.9	9.4	15.5	1.5	3.8	8.0	2.1	5.5	10.4
	3	-	-	-	6.2	9.4	14.9	6.1	9.3	14.5	1.7	4.0	7.9	2.5	5.5	9.9
	4	-	-	-	6.0	9.6	15.2	5.9	9.4	15.2	1.2	2.7	6.4	1.8	4.4	8.8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12〉 아동 빈곤율 (중위소득·지출,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0	3.0	6.7	13.3	2.9	6.4	13.1	2.7	6.3	12.8	1.2	4.6	11.4	1.8	5.7	13.3
1991	2.4	5.4	10.9	2.2	5.4	10.8	2.1	5.2	10.6	1.3	4.9	11.6	1.9	6.1	12.5
1992	2.8	6.0	11.3	2.8	5.9	11.1	2.5	5.7	10.9	1.3	5.4	12.7	1.7	7.0	14.1
1993	3.2	6.2	12.7	3.1	6.1	12.6	3.0	5.8	12.6	1.5	5.6	11.7	2.1	6.1	13.0
1994	3.0	6.6	12.9	2.9	6.5	12.7	2.7	6.2	12.6	1.0	4.5	11.6	1.5	5.8	13.6
1995	2.8	6.9	12.9	2.8	6.9	12.9	2.6	6.7	12.8	1.0	4.2	11.2	1.5	5.5	12.4
1996	2.8	6.1	13.5	2.7	6.0	13.6	2.5	5.9	13.5	1.3	4.3	10.9	1.8	5.3	13.0
1997	3.1	6.8	13.4	3.0	6.7	13.4	2.9	6.7	13.3	1.1	4.0	10.4	1.9	5.1	12.0
1998	3.7	7.4	12.8	3.5	7.3	13.0	3.5	7.0	13.1	1.6	4.3	10.8	1.9	5.7	12.5
1999	4.3	8.1	13.6	4.0	7.9	13.8	4.1	7.6	13.3	1.3	5.3	10.1	2.6	5.8	11.7
2000	2.9	6.6	12.0	2.7	6.6	12.6	2.6	6.3	12.1	0.5	3.0	8.3	1.0	5.2	11.1
2001	2.8	7.0	12.2	2.6	6.5	12.4	2.2	6.3	12.0	0.4	2.6	6.8	0.9	3.6	8.9
2002	3.3	6.2	11.7	2.8	5.7	12.0	2.5	5.5	11.7	0.4	3.1	7.6	1.1	4.0	9.7
2003	3.7	7.7	12.9	3.4	7.5	13.0	3.3	7.0	12.8	0.7	2.5	6.2	1.3	3.5	7.8
2004	4.0	8.5	13.4	3.3	7.5	13.2	3.2	7.1	12.7	0.6	2.6	6.6	1.2	3.6	9.3
2005	5.3	9.2	14.3	4.0	8.3	13.7	3.5	7.9	12.9	1.1	3.1	7.6	1.5	4.6	10.5
2006	4.5	8.2	13.6	3.2	6.6	12.7	3.2	6.3	12.2	0.7	2.1	5.8	1.0	3.3	9.4
2007	5.0	8.1	13.1	3.2	6.8	12.5	2.9	6.5	11.6	0.4	2.2	6.4	0.9	3.9	8.8
2008	5.2	7.6	11.4	3.4	6.6	10.9	3.1	6.2	10.6	0.7	2.2	5.5	1.2	4.0	7.4
2009	4.6	8.6	13.5	3.0	6.6	12.8	2.9	6.3	12.2	0.9	2.5	5.3	1.1	3.6	6.9
2010	4.5	7.9	11.6	2.7	6.2	11.0	2.6	5.8	10.9	0.5	2.2	5.4	1.1	3.4	7.3
분기 1	-	-	-	4.5	8.7	14.3	4.4	8.2	14.3	0.9	3.4	7.2	1.5	4.1	8.6
분기 2	-	-	-	3.3	6.8	11.7	3.3	5.9	11.9	0.9	2.8	6.1	1.4	3.8	8.2
분기 3	-	-	-	3.0	5.6	10.4	3.0	5.4	9.8	0.9	2.6	5.6	1.4	3.8	7.1
분기 4	-	-	-	3.4	6.5	11.1	3.1	6.2	11.2	0.7	1.9	5.2	1.1	3.4	6.9
2006[2)]	4.5	8.2	13.6	3.2	6.6	12.7	3.2	6.3	12.2	0.7	2.1	5.8	1.0	3.3	9.4
2007[2)]	5.0	8.1	13.1	3.2	6.8	12.5	2.9	6.5	11.6	0.4	2.2	6.4	0.9	3.9	8.8
2008[2)]	5.2	7.6	11.4	3.4	6.6	10.9	3.1	6.2	10.6	0.7	2.2	5.5	1.2	4.0	7.4
2009[2)]	4.6	8.6	13.5	3.0	6.6	12.8	2.9	6.3	12.2	0.9	2.5	5.3	1.1	3.6	6.9
2010[2)]	4.5	7.9	11.6	2.7	6.2	11.0	2.6	5.8	10.9	0.5	2.2	5.4	1.1	3.4	7.3
분기 1	-	-	-	4.5	8.7	14.3	4.4	8.2	14.3	0.9	3.4	7.2	1.5	4.1	8.6
분기 2	-	-	-	3.3	6.8	11.7	3.3	5.9	11.9	0.9	2.8	6.1	1.4	3.8	8.2
분기 3	-	-	-	3.0	5.6	10.4	3.0	5.4	9.8	0.9	2.6	5.6	1.4	3.8	7.1
분기 4	-	-	-	3.4	6.5	11.1	3.1	6.2	11.2	0.7	1.9	5.2	1.1	3.4	6.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3절 노인

□ 노인 빈곤율의 구성과 특성

구분			특성
기준빈곤선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 3년 주기 계측 공식적 빈곤선 · 1999년~2010년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 계측년도 기준 동일비율 적용 · 1990년~2010년
	중위소득·지출		· 40%, 50%, 60%
빈곤지수	빈곤율		· 전체 노인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노인의 비율
대상, 주기	전가구	연간	· 2003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	· 1990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1. 절대적 빈곤율

〈표 3-13〉 노인 빈곤율(전가구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31.8	22.7	24.5	23.6	15.9
2004		30.3	20.6	21.6	23.3	15.0
2005		32.0	22.2	23.4	27.6	18.5
2006		34.7	24.4	26.7	30.4	20.7
2007		35.4	24.4	26.2	31.4	21.7
2008		36.3	26.1	27.1	31.8	21.8
2009		40.0	27.2	28.8	38.9	26.4
2010		40.0	25.1	27.0	35.2	21.5
분기	1	-	29.2	30.7	43.7	28.9
	2	-	28.3	29.5	43.9	30.0
	3	-	28.2	30.4	42.9	26.8
	4	-	27.3	28.7	38.7	26.1
2006[2)]		39.4	27.1	29.2	34.3	24.2
2007[2)]		40.4	27.4	29.0	34.4	24.6
2008[2)]		41.7	29.0	30.1	35.5	25.0
2009[2)]		47.7	32.2	33.6	44.4	31.7
2010[2)]		48.2	31.1	32.5	39.6	26.0
분기	1	-	34.6	36.0	47.6	33.2
	2	-	33.4	34.6	48.6	35.2
	3	-	33.3	35.7	46.9	31.4
	4	-	33.2	34.5	43.0	31.2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14〉 노인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9		10.1	8.2	11.0	24.2	13.3
2000		8.0	5.8	6.5	18.7	9.3
2001		4.8	3.3	5.0	13.7	6.1
2002		4.3	3.0	4.7	14.8	4.6
2003		9.3	7.5	9.3	12.6	5.8
2004		10.1	7.8	9.2	12.2	5.9
2005		9.7	7.2	8.8	16.2	8.7
2006		13.6	9.7	12.0	19.1	8.6
2007		15.7	11.0	12.2	23.4	11.9
2008		13.9	10.3	11.0	21.2	12.5
2009		17.6	11.5	12.6	32.5	19.3
2010		20.1	10.8	12.4	27.2	14.8
분기	1	-	10.0	10.9	30.5	17.8
	2	-	12.0	12.9	34.9	22.3
	3	-	13.0	14.2	35.0	19.4
	4	-	11.1	12.7	31.6	20.1
2006[2)]		15.0	10.5	13.0	21.0	10.2
2007[2)]		17.2	11.6	12.7	23.2	12.1
2008[2)]		15.3	11.4	12.2	23.6	13.9
2009[2)]		20.4	14.4	15.5	35.7	23.1
2010[2)]		24.4	12.9	14.4	29.7	17.4
분기	1	-	13.6	14.4	34.9	21.4
	2	-	13.5	14.4	39.4	26.4
	3	-	14.7	16.3	38.6	23.5
	4	-	13.6	15.0	35.5	23.3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15〉 노인 빈곤율(전가구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33.0	24.7	26.4	26.1	17.7
2004		31.1	22.1	22.7	25.5	16.6
2005		32.3	22.4	23.5	28.1	18.7
2006		36.6	25.1	27.1	31.1	21.4
2007		37.5	25.3	26.9	32.7	22.5
2008		37.5	26.9	27.9	32.4	22.2
2009		41.0	27.2	28.8	38.9	26.5
2010		41.8	26.4	27.7	37.2	23.8
분기	1	-	29.8	31.4	44.9	30.4
	2	-	29.0	30.3	44.9	31.4
	3	-	29.1	31.4	44.4	28.1
	4	-	27.9	29.4	40.2	27.4
2006[2)]		40.3	27.9	29.6	35.0	24.9
2007[2)]		41.3	28.4	29.7	36.1	25.3
2008[2)]		42.1	29.8	30.9	36.1	25.5
2009[2)]		47.7	32.2	33.6	44.4	31.7
2010[2)]		49.0	32.3	33.3	41.6	28.2
분기	1	-	35.6	37.1	49.1	34.9
	2	-	34.6	35.7	49.7	36.5
	3	-	34.4	36.6	48.2	32.7
	4	-	34.0	35.1	44.4	32.5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16〉 노인 빈곤율(도시근로자기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0		10.8	9.8	10.4	24.3	14.2
1991		6.4	6.1	6.3	21.6	11.8
1992		9.5	7.7	8.5	18.6	10.9
1993		6.8	6.4	6.8	24.6	12.8
1994		6.8	6.2	7.2	24.3	14.2
1995		5.2	4.6	5.0	18.6	9.7
1996		5.5	5.2	5.5	15.4	8.0
1997		6.2	5.5	6.0	21.7	9.2
1998		6.5	6.2	6.5	30.2	14.9
1999		10.1	8.2	11.0	24.2	13.3
2000		8.0	5.8	7.2	20.5	9.7
2001		5.0	3.6	5.9	13.9	6.9
2002		4.5	3.3	4.7	15.7	5.8
2003		10.6	8.8	9.7	15.8	7.8
2004		10.3	9.4	9.6	12.7	7.4
2005		10.0	7.2	8.8	17.1	9.0
2006		13.7	9.7	12.5	19.1	9.8
2007		16.0	11.6	12.3	24.8	12.0
2008		14.0	10.7	11.2	22.2	12.5
2009		17.6	11.5	12.6	32.7	19.3
2010		21.1	11.4	13.6	29.2	16.9
분기	1	-	10.6	11.8	31.1	19.0
	2	-	12.7	14.0	35.8	24.2
	3	-	13.3	15.3	36.0	20.6
	4	-	11.4	13.3	32.8	21.7
2006[2)]		15.4	11.0	13.9	21.0	11.4
2007[2)]		17.4	12.1	12.8	25.2	12.2
2008[2)]		15.5	11.9	12.3	24.5	14.0
2009[2)]		20.4	14.4	15.5	35.9	23.1
2010[2)]		25.2	13.5	15.4	32.2	19.4
분기	1	-	14.2	15.3	35.5	22.7
	2	-	14.6	15.8	40.4	28.1
	3	-	15.1	17.2	39.5	24.7
	4	-	13.9	15.6	36.9	24.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대적 빈곤율

〈표 3-17〉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지출,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35.3	44.6	51.9	28.1	36.7	46.5	27.2	36.1	45.8	11.5	21.4	32.1	14.4	24.2	34.1
2004		33.5	42.7	51.8	25.8	34.8	44.3	24.3	33.5	43.1	12.8	22.6	32.5	15.3	24.7	34.3
2005		34.8	45.0	52.5	26.3	36.4	45.3	24.9	34.8	44.1	14.5	24.9	34.5	17.3	27.1	37.6
2006		39.1	48.1	56.2	28.9	39.3	47.9	27.3	37.0	46.5	16.1	25.3	36.3	18.4	28.1	40.2
2007		39.9	48.6	57.2	29.3	39.5	48.5	27.5	37.8	46.3	17.0	26.0	37.5	18.9	29.2	41.7
2008		38.8	46.9	54.9	29.5	38.6	46.0	28.2	37.2	45.7	14.6	24.8	36.8	17.4	28.5	39.9
2009		42.1	49.5	57.3	28.4	38.9	48.1	28.3	37.0	46.4	16.0	28.6	39.9	18.7	31.3	42.7
2010		41.7	50.9	58.0	28.9	38.8	48.5	28.2	38.3	46.7	15.0	28.4	40.8	17.6	31.8	43.4
분기	1	-	-	-	32.2	41.2	50.2	30.3	39.5	48.0	20.0	31.8	44.1	22.5	34.1	45.0
	2	-	-	-	30.6	39.1	47.7	29.4	37.2	45.7	21.4	32.7	44.5	22.8	35.8	46.4
	3	-	-	-	31.2	39.3	47.9	30.9	39.1	47.1	20.3	31.2	43.9	21.1	32.5	43.9
	4	-	-	-	29.7	38.3	47.7	28.4	36.4	46.0	17.2	27.8	39.7	19.5	31.6	42.2
2006[2)]		45.3	54.5	62.1	35.0	46.1	54.5	33.1	43.8	52.9	21.4	32.9	43.6	24.7	35.7	47.1
2007[2)]		46.2	55.3	63.0	35.9	47.0	55.4	33.8	44.6	53.3	22.2	33.0	45.2	25.0	36.4	48.6
2008[2)]		45.8	54.6	62.3	36.5	46.5	54.1	34.7	44.8	52.9	21.1	33.4	45.4	25.0	37.3	48.1
2009[2)]		50.8	58.2	65.0	37.9	48.5	57.1	37.1	46.4	55.4	24.3	37.9	48.7	27.8	40.7	51.1
2010[2)]		51.0	59.1	65.6	37.6	47.8	56.9	36.9	47.1	55.1	23.2	36.7	48.6	25.8	39.8	50.9
분기	1	-	-	-	41.5	50.3	58.6	39.2	48.5	56.2	26.9	39.8	51.8	29.5	42.1	52.6
	2	-	-	-	39.8	48.0	56.3	38.0	46.2	54.2	29.3	40.9	52.0	31.1	43.5	53.8
	3	-	-	-	39.1	47.6	55.9	38.8	47.2	54.8	27.4	38.5	50.6	28.3	39.9	50.7
	4	-	-	-	37.8	47.0	55.8	36.2	45.1	53.9	24.5	35.4	46.2	27.1	38.9	49.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18〉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지출,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0		5.7	12.4	17.2	5.6	11.5	16.2	5.2	11.3	16.4	0.8	7.1	13.1	2.6	7.8	13.7
1991		5.8	11.7	16.8	5.0	10.3	15.0	4.4	9.7	14.8	2.4	8.4	14.2	3.9	8.5	13.8
1992		8.1	13.4	17.2	7.5	11.3	15.1	7.3	11.5	15.8	2.6	7.8	12.2	4.3	9.2	13.3
1993		7.2	10.9	16.8	7.4	10.5	16.5	6.3	10.2	15.9	3.1	8.5	16.1	4.0	9.3	15.6
1994		6.3	11.1	18.1	5.8	10.4	17.1	5.6	10.2	16.0	3.9	10.5	19.4	5.1	11.2	20.2
1995		5.7	10.5	18.7	5.4	9.7	17.8	5.0	9.3	18.0	3.7	8.4	13.6	3.8	8.1	15.0
1996		6.6	13.8	22.3	6.7	13.0	21.1	6.5	12.1	20.8	4.5	8.7	16.2	4.6	10.2	18.0
1997		6.5	14.0	23.7	6.4	13.6	22.6	6.5	13.2	22.6	2.1	9.3	20.3	3.4	9.1	18.7
1998		4.6	12.7	24.1	5.7	12.9	22.5	4.7	13.2	22.2	3.2	10.7	18.2	3.7	10.6	18.7
1999		5.9	13.0	22.6	5.6	13.7	21.6	4.3	12.2	20.9	4.6	9.8	17.8	4.8	12.7	19.2
2000		7.1	15.3	26.1	5.3	14.2	25.4	4.3	13.4	24.0	5.0	10.0	21.0	4.5	14.1	21.8
2001		5.0	14.1	18.2	3.8	12.6	17.8	3.1	13.0	17.7	2.0	8.5	17.7	3.4	9.7	18.4
2002		5.4	14.8	23.0	3.8	13.1	21.9	5.2	10.8	21.2	1.6	7.3	17.8	3.3	9.9	18.0
2003		10.7	19.5	26.4	9.7	16.5	25.7	9.5	15.6	25.1	2.3	8.1	15.6	3.9	11.3	19.3
2004		11.1	19.5	27.1	10.0	17.6	25.9	10.0	17.4	24.6	4.6	10.0	19.9	4.8	12.5	21.6
2005		10.8	19.1	27.5	8.5	16.9	25.3	8.5	15.9	24.1	6.2	13.9	19.3	7.8	14.8	21.9
2006		15.9	22.0	32.7	12.7	19.0	29.9	11.4	18.4	27.5	5.1	14.1	23.3	6.6	14.8	26.7
2007		17.6	24.9	34.8	13.9	23.1	31.9	12.2	21.2	29.2	6.3	15.8	26.9	8.8	18.1	30.8
2008		15.0	23.4	32.6	11.8	20.6	29.2	10.4	19.6	28.9	6.2	13.1	27.6	8.1	16.3	29.8
2009		17.4	26.5	35.8	12.4	21.1	31.0	11.9	19.5	28.3	11.3	20.1	32.3	11.8	23.5	33.4
2010		21.5	30.9	38.6	13.8	22.1	32.1	13.3	21.9	31.4	10.8	20.0	31.4	10.8	22.9	34.4
분기	1	-	-	-	11.7	19.9	28.0	10.9	17.9	26.5	10.5	18.9	28.9	12.0	21.2	30.8
	2	-	-	-	14.3	23.9	31.8	13.2	20.7	30.7	15.4	24.7	34.9	14.9	27.6	36.4
	3	-	-	-	15.8	23.5	32.3	15.0	22.9	31.0	13.1	22.5	35.4	13.5	24.5	36.7
	4	-	-	-	12.8	21.5	32.3	11.4	19.4	30.5	10.2	21.0	31.6	12.8	22.9	34.8
2006[2)]		17.8	24.4	35.1	14.7	21.4	32.3	13.7	20.8	29.9	7.0	16.9	26.2	8.7	17.3	29.4
2007[2)]		19.9	27.7	37.4	15.8	25.9	34.7	14.0	23.1	32.2	7.2	17.9	30.1	10.5	20.5	34.3
2008[2)]		16.7	25.9	35.8	13.5	23.1	32.1	12.3	22.4	31.0	9.0	17.1	31.3	11.0	20.5	33.5
2009[2)]		21.3	30.6	39.6	16.4	25.1	35.0	15.3	23.1	32.1	16.0	24.5	36.2	16.5	28.0	37.2
2010[2)]		27.0	36.6	44.1	18.0	27.8	37.6	17.8	27.4	36.9	14.6	26.3	37.1	15.9	28.2	40.8
분기	1	-	-	-	17.4	25.8	34.1	16.0	23.3	32.5	15.0	24.4	34.5	16.7	26.2	36.2
	2	-	-	-	20.1	29.5	38.4	17.9	26.2	37.0	20.7	31.2	41.1	21.1	33.6	42.3
	3	-	-	-	20.2	29.0	38.0	19.2	27.8	36.5	18.2	28.1	40.5	19.5	30.4	42.6
	4	-	-	-	16.6	26.6	37.3	15.0	24.2	35.2	15.4	26.9	37.0	17.8	28.8	40.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04

불평등

제4장 불평등

제1절 소득점유율

□ 소득점유율 지수의 구성과 특성

구분			특성
분위수배율	1/10		· 하위 10%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10		· 하위 20%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9/10		· 하위 90%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5분위배율		· 상위 20% 점유율 / 하위 20% 점유율
	10분위배율		· 상위 10% 점유율 / 하위 10% 점유율
	10분위 분배율		· 하위 40% 점유율 / 상위 20% 점유율
대상, 주기	전가구	연간	· 2003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	· 1990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표 4-1〉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시장소득)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2003	2.52	4.92	6.31	7.53	8.64	9.80	11.09	12.64	15.00	21.55	4.91	8.54	58.24
2004	2.45	4.74	6.15	7.38	8.52	9.72	11.12	12.78	15.26	21.87	5.16	8.91	55.84
2005	2.29	4.66	6.15	7.41	8.54	9.74	11.07	12.74	15.26	22.16	5.38	9.68	54.81
2006	2.20	4.58	6.04	7.31	8.48	9.68	11.12	12.90	15.29	22.42	5.57	10.21	53.36
2007	2.09	4.48	5.94	7.18	8.37	9.68	11.00	12.84	15.45	22.97	5.84	10.97	51.26
2008	2.01	4.47	6.03	7.14	8.31	9.56	10.98	12.85	15.57	23.07	5.96	11.46	50.85
2009	1.93	4.54	6.03	7.33	8.45	9.68	11.03	12.95	15.49	22.57	5.89	11.71	52.09
2010	1.92	4.62	6.23	7.48	8.53	9.70	11.06	12.75	15.41	22.31	5.77	11.63	53.67
2006[2)]	1.94	4.36	5.89	7.24	8.45	9.68	11.17	12.98	15.51	22.79	6.08	11.75	50.72
2007[2)]	1.83	4.22	5.78	7.12	8.32	9.66	11.12	12.93	15.64	23.38	6.44	12.77	48.58
2008[2)]	1.70	4.18	5.80	7.11	8.24	9.56	11.08	12.98	15.78	23.57	6.69	13.84	47.74
2009[2)]	1.48	4.18	5.82	7.20	8.45	9.71	11.13	13.09	15.77	23.17	6.88	15.67	47.97
2010[2)]	1.44	4.19	5.98	7.41	8.52	9.73	11.20	12.87	15.68	22.97	6.87	15.98	49.1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2〉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경상소득)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2003		2.94	5.08	6.38	8.57	8.60	9.76	10.99	12.57	14.79	21.34	4.50	7.25	60.78
2004		2.89	4.94	6.25	7.40	8.51	9.69	11.00	12.61	15.09	21.63	4.69	7.49	58.49
2005		2.77	4.88	6.23	7.44	8.54	9.69	10.97	12.60	14.98	21.89	4.82	7.91	57.84
2006		2.72	4.84	6.15	7.34	8.43	9.63	11.01	12.72	15.15	22.01	4.91	8.08	56.65
2007		2.67	4.77	6.12	7.23	8.40	9.56	10.92	12.63	15.22	22.48	5.07	8.40	55.13
2008		2.67	4.79	6.15	7.22	8.30	9.46	10.88	12.61	15.34	22.58	5.09	8.47	54.92
2009		2.68	4.82	4.19	7.35	8.45	9.58	10.92	12.70	15.27	22.03	4.97	8.21	56.42
2010		2.72	4.96	6.33	7.50	8.47	9.61	10.95	12.55	15.13	21.79	4.81	8.00	58.25
분기	1	1.94	4.44	5.82	6.73	8.06	9.29	10.73	12.64	15.54	24.82	6.33	12.80	46.9
	2	2.30	4.80	6.23	7.37	8.43	9.64	10.95	12.70	15.19	22.39	5.30	9.74	55.0
	3	2.16	4.68	6.12	7.29	8.39	9.61	10.92	12.66	15.34	22.81	5.57	10.55	53.1
	4	2.28	4.80	6.19	7.37	8.45	9.66	10.94	12.60	15.19	22.52	5.32	9.87	54.8
2006[2)]		2.50	4.66	6.04	7.27	8.40	9.62	11.04	12.81	15.29	22.38	5.26	8.96	54.31
2007[2)]		2.43	4.56	5.98	7.15	8.34	9.58	10.96	12.75	15.40	22.85	5.48	9.42	52.58
2008[2)]		2.40	4.49	6.00	7.14	8.27	9.55	10.85	12.75	15.50	2.04	5.59	9.60	51.99
2009[2)]		2.30	4.55	6.00	7.25	8.41	9.65	10.97	12.81	15.54	22.51	5.55	9.78	52.85
2010[2)]		2.28	4.66	6.14	7.40	8.48	9.64	11.01	12.71	15.33	22.37	5.44	9.83	54.31
분기	1	1.56	4.02	5.54	6.82	8.02	9.32	10.80	12.75	15.74	25.43	7.38	16.34	43.6
	2	1.85	4.65	5.91	7.24	8.40	9.64	11.05	12.83	15.42	23.02	5.92	12.43	51.1
	3	1.78	4.35	5.93	7.23	8.53	9.45	11.05	12.70	15.61	23.37	6.37	13.15	49.5
	4	1.85	4.51	6.01	7.31	8.44	9.65	11.00	12.75	15.35	23.12	6.05	12.48	51.2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3〉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2003		2.92	5.15	6.46	7.65	8.69	9.82	11.02	12.52	14.74	20.99	4.43	7.19	62.03
2004		2.85	5.05	6.37	7.52	8.61	9.80	11.03	12.65	14.96	21.21	4.61	7.45	60.10
2005		2.73	4.93	6.35	7.55	8.64	9.75	11.01	12.60	14.99	21.43	4.75	7.84	59.22
2006		2.69	4.91	6.26	7.48	8.55	9.73	11.05	12.70	15.05	21.56	4.82	8.03	58.22
2007		2.64	4.85	6.24	7.37	8.50	9.69	10.97	12.67	15.15	21.93	4.95	8.31	56.90
2008		2.63	4.85	6.28	7.37	8.46	9.59	10.93	12.63	15.22	22.03	4.98	8.39	56.71
2009		2.61	4.87	6.23	7.43	8.55	9.69	11.02	12.71	15.24	21.67	4.94	8.31	57.24
2010		2.62	4.99	6.36	7.55	8.57	9.72	11.03	12.63	15.10	21.44	4.80	8.17	58.91
분기	1	1.93	4.43	5.82	7.01	8.16	9.38	10.82	12.61	15.50	24.34	6.26	12.59	48.2
	2	2.25	4.91	6.28	7.42	8.52	9.67	11.00	12.68	15.14	22.13	5.20	9.82	56.0
	3	2.08	4.77	6.19	7.39	8.48	9.69	11.01	12.66	15.32	22.42	5.51	10.75	54.1
	4	2.27	4.89	6.24	7.44	8.54	9.69	11.00	12.67	15.09	22.17	5.21	9.76	55.9
2006[2)]		2.45	4.74	6.15	7.38	8.55	9.73	11.10	12.78	15.22	21.91	5.17	8.95	55.79
2007[2)]		2.39	4.64	6.10	7.30	8.45	9.72	11.07	12.72	15.30	22.31	5.35	9.35	54.30
2008[2)]		2.33	4.60	6.12	7.27	8.43	9.60	11.02	12.76	15.46	22.40	5.46	9.60	53.69
2009[2)]		2.26	4.58	6.05	7.32	8.52	9.71	11.09	12.84	15.42	22.22	5.50	9.85	53.72
2010[2)]		2.21	4.66	6.18	7.45	8.55	9.75	11.10	12.75	15.32	22.02	5.44	9.96	54.92
분기	1	1.56	4.12	5.63	6.91	8.12	9.41	10.87	12.76	15.69	24.93	7.15	15.99	44.9
	2	1.85	4.56	6.10	7.34	8.47	9.71	11.06	12.80	15.37	22.74	5.94	12.29	52.1
	3	1.68	4.44	6.01	7.30	8.45	9.71	11.09	12.79	15.56	22.97	6.29	13.66	50.4
	4	1.85	4.60	6.08	7.36	8.50	9.72	11.06	12.78	15.28	22.78	5.90	12.30	52.2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4〉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소비지출)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2003		4.46	6.16	7.17	8.00	8.77	9.65	10.64	11.88	13.80	19.47	3.13	4.36	77.52
2004		4.32	6.04	7.10	7.98	8.78	9.64	10.63	11.86	13.77	19.88	3.25	4.61	75.60
2005		4.17	5.92	6.94	7.86	8.68	9.56	10.64	11.96	14.03	20.23	3.39	4.85	72.66
2006		3.99	5.74	6.76	7.71	8.62	9.59	10.63	12.04	14.17	20.75	3.59	5.20	69.30
2007		3.90	5.68	6.76	7.68	8.58	9.57	10.61	12.02	14.12	21.08	3.68	5.41	68.23
2008		4.07	5.83	6.85	7.81	8.64	9.63	10.71	12.11	14.11	20.25	3.47	4.97	71.49
2009		3.87	5.63	6.79	7.69	8.60	9.62	10.59	11.98	14.37	20.86	3.71	5.39	68.05
2010		4.00	5.79	6.89	7.83	8.69	9.62	10.72	12.03	14.32	20.12	3.52	5.03	71.17
분기	1	3.35	4.96	5.98	6.90	7.79	8.77	9.95	11.57	14.29	26.45	4.90	7.89	52.0
	2	3.55	5.28	6.38	7.35	8.27	9.24	10.33	11.72	13.88	24.00	4.29	6.76	59.6
	3	3.39	5.11	6.17	7.08	8.00	8.95	10.02	11.50	14.11	25.67	4.68	7.58	54.7
	4	3.61	5.35	6.41	7.31	8.21	9.13	10.17	11.61	13.72	24.49	4.26	6.78	59.3
2006[2)]		3.74	5.63	6.68	7.69	8.61	9.62	10.69	12.12	14.26	20.96	3.76	5.61	67.41
2007[2)]		3.67	5.52	6.67	7.64	8.57	9.56	10.66	12.14	14.22	21.35	3.87	5.82	66.08
2008[2)]		3.81	5.63	6.76	7.76	8.86	9.60	10.76	12.21	14.23	20.56	3.69	5.40	68.85
2009[2)]		3.53	5.43	6.64	7.65	8.59	9.61	10.69	12.10	14.47	21.28	3.99	6.03	65.05
2010[2)]		3.62	5.59	6.76	7.77	8.68	9.65	10.78	12.19	14.45	20.51	3.80	5.66	67.90
분기	1	3.04	4.78	5.87	6.85	7.77	8.79	9.99	11.65	14.42	26.84	5.28	8.82	49.8
	2	3.19	5.08	6.24	7.28	8.24	9.27	10.40	11.83	14.08	24.40	4.65	7.65	56.6
	3	3.06	4.93	6.07	7.03	7.99	8.97	10.09	11.58	14.25	26.03	5.04	8.52	52.4
	4	3.28	5.20	6.31	7.28	8.20	9.18	10.23	11.71	13.90	24.71	4.55	7.52	57.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5〉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가계지출)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2003		4.17	5.90	6.92	7.81	8.63	9.58	10.61	12.06	14.17	20.14	3.40	4.82	72.32
2004		4.02	5.72	6.80	7.74	8.63	9.57	10.60	12.07	14.28	20.57	3.58	5.11	69.69
2005		3.89	5.60	6.68	7.63	8.56	9.48	10.65	12.20	14.42	20.89	3.72	5.38	67.40
2006		3.71	5.40	6.52	7.46	8.46	9.46	10.68	12.28	14.61	21.41	3.95	5.77	64.12
2007		3.60	5.33	6.47	7.37	8.37	9.43	10.62	12.11	14.63	22.09	4.12	6.14	61.98
2008		3.72	5.44	6.50	7.52	8.47	9.53	10.73	12.21	14.51	21.38	3.91	5.74	64.59
2009		3.59	5.35	6.47	7.48	8.48	9.46	10.65	12.27	14.61	21.65	4.06	6.04	63.08
2010		3.74	5.50	6.63	7.56	8.56	9.58	10.65	12.18	14.62	20.97	3.85	5.61	65.84
분기	1	3.19	4.82	5.91	6.84	7.78	8.84	10.10	11.89	14.80	25.83	5.08	8.11	51.1
	2	3.36	5.11	6.26	7.28	8.22	9.25	10.39	11.88	14.31	23.93	4.51	7.11	57.6
	3	3.24	5.00	6.08	7.06	8.01	9.03	10.27	11.94	14.65	24.72	4.78	7.63	54.3
	4	3.43	5.22	6.30	7.27	8.18	9.16	10.32	11.83	14.19	24.10	4.42	7.02	58.0
2006[2)]		3.47	5.27	6.43	7.43	8.46	9.46	10.70	12.35	14.73	21.71	4.17	6.26	61.99
2007[2)]		3.35	5.18	6.37	7.34	8.32	9.43	10.63	12.22	14.76	22.41	4.36	6.69	59.82
2008[2)]		3.45	5.28	6.38	7.43	8.47	9.49	10.76	12.31	14.68	21.75	4.17	6.30	61.86
2009[2)]		3.27	5.13	6.35	7.38	8.41	9.49	10.69	12.38	14.75	22.15	4.39	6.77	59.99
2010[2)]		3.38	5.28	6.50	7.50	8.53	9.61	10.71	12.25	14.76	21.48	4.19	6.35	62.53
분기	1	2.88	4.62	5.78	6.76	7.75	8.82	10.13	11.95	14.89	26.39	5.50	9.16	48.6
	2	3.01	4.88	6.11	7.19	8.19	9.28	10.43	11.99	14.50	24.42	4.94	8.12	54.4
	3	2.92	4.80	5.97	6.99	7.99	9.04	10.32	12.01	14.76	25.20	5.17	8.62	51.8
	4	3.10	5.05	6.21	7.21	8.19	9.18	10.38	11.94	14.35	24.40	4.76	7.88	55.6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6〉 소득점유율(도시근로자기준, 시장소득)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1990	4.00	5.70	6.81	7.61	8.46	9.49	10.74	11.92	14.08	21.18	3.63	5.29	68.42
1991	4.20	5.91	6.92	7.77	8.66	9.46	10.46	11.93	14.01	20.69	3.43	4.93	71.44
1992	4.23	6.01	6.96	7.86	8.83	9.53	10.51	11.81	13.94	20.33	3.35	4.81	73.12
1993	3.89	5.79	6.93	7.89	8.67	9.56	10.55	11.85	14.17	20.71	3.60	5.32	70.25
1994	4.11	5.84	6.99	7.86	8.58	9.65	10.74	12.00	14.06	20.18	3.44	4.91	72.42
1995	4.11	5.89	6.84	7.74	8.65	9.55	10.67	12.04	14.18	20.34	3.45	4.94	71.18
1996	3.92	5.53	6.66	7.72	8.75	9.71	10.90	12.31	14.20	20.30	3.65	5.18	69.07
1997	4.01	5.69	6.77	7.73	8.81	9.81	10.82	12.28	14.41	19.66	3.51	4.91	71.03
1998	3.60	5.32	6.43	7.45	8.49	9.47	10.79	12.42	14.75	21.27	4.03	5.90	63.3
1999	3.49	5.17	6.36	7.39	8.49	9.61	10.70	12.32	14.78	21.70	4.22	6.22	61.4
2000	3.78	5.45	6.56	7.46	8.52	9.54	10.74	12.46	14.78	20.71	3.84	5.48	65.5
2001	4.23	6.11	7.23	8.34	9.52	10.78	12.41	14.32	16.95	24.76	4.03	5.85	62.1
2002	3.74	5.36	6.39	7.39	8.37	9.40	10.73	12.53	14.66	21.42	3.96	5.72	63.4
2003	3.53	5.37	6.68	7.62	8.63	9.67	10.85	12.34	14.56	20.75	3.97	5.88	65.73
2004	3.34	5.19	6.38	7.49	8.52	9.73	11.00	12.38	14.90	21.07	4.21	6.30	62.31
2005	3.25	5.16	6.38	7.49	8.55	9.64	10.88	12.45	14.96	21.24	4.30	6.53	61.57
2006	3.28	5.12	6.33	7.36	8.47	9.71	11.02	12.57	14.86	21.28	4.30	6.48	61.14
2007	3.18	4.97	6.25	7.30	8.46	9.57	10.82	12.60	15.00	21.85	4.52	6.88	58.88
2008	3.12	5.04	6.23	7.33	8.43	9.55	10.90	12.67	15.10	21.63	4.50	6.93	59.15
2009	3.18	5.02	6.25	7.41	8.48	9.55	11.03	12.65	14.96	21.47	4.44	6.75	60.01
2010	3.23	5.21	6.46	7.47	8.47	9.56	10.77	12.44	14.92	21.48	4.32	6.66	61.43
2006[2)]	3.23	5.09	6.31	7.31	8.48	9.71	10.98	12.63	14.81	21.46	4.36	6.65	60.48
2007[2)]	3.09	4.93	6.20	7.27	8.47	9.62	10.79	12.60	15.02	22.00	4.62	7.12	58.07
2008[2)]	3.03	5.00	6.18	7.31	8.37	9.60	10.90	12.69	15.14	21.78	4.60	7.19	58.29
2009[2)]	3.06	4.95	6.19	7.34	8.49	9.60	10.96	12.70	15.03	21.68	4.58	7.07	58.70
2010[2)]	3.06	5.15	6.34	7.47	8.41	9.54	10.78	12.47	14.99	21.78	4.48	7.12	59.92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7〉 소득점유율(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1990		4.00	5.70	6.81	7.61	8.46	9.49	10.74	11.92	14.08	21.18	3.63	5.29	68.42
1991		4.25	5.94	6.94	7.66	8.75	9.47	10.50	11.94	13.96	16.46	2.99	3.87	81.51
1992		4.27	5.93	6.99	7.84	8.75	9.70	10.42	11.83	14.09	20.18	3.36	4.73	73.04
1993		3.92	5.77	6.91	7.90	8.68	9.55	10.49	11.93	14.10	20.75	3.59	5.29	70.35
1994		4.10	5.89	6.94	7.84	8.57	9.63	10.77	11.94	14.16	20.14	3.43	4.91	72.22
1995		4.14	5.81	6.96	7.72	8.61	9.59	10.63	12.02	14.17	20.35	3.47	4.91	71.35
1996		3.94	5.56	6.65	7.80	8.69	9.71	10.88	12.42	14.03	20.31	3.61	5.15	69.75
1997		4.02	5.72	6.80	7.78	8.81	9.82	10.85	12.18	14.38	19.62	3.49	4.88	71.54
1998		3.63	5.37	6.48	7.41	8.50	9.47	10.81	12.48	14.68	21.18	3.98	5.83	63.9
1999		3.55	5.19	6.34	7.42	8.50	9.56	10.73	12.29	14.80	21.63	4.17	6.09	61.8
2000		3.88	5.49	6.56	7.48	8.50	9.59	10.67	12.41	14.77	20.64	3.78	5.32	66.1
2001		4.35	6.18	7.24	8.35	9.57	10.80	12.41	14.30	16.93	24.69	3.95	5.68	62.8
2002		3.83	5.38	6.46	7.36	8.37	9.36	10.70	12.42	14.80	21.32	3.92	5.56	63.8
2003		3.63	5.44	6.67	7.64	8.64	9.65	10.82	12.38	14.43	20.70	3.87	5.70	66.55
2004		3.49	5.23	6.42	7.50	8.53	9.67	10.96	12.36	14.82	21.02	4.11	6.02	63.16
2005		3.43	5.22	6.43	7.53	8.55	9.60	10.84	12.36	14.90	21.13	4.16	6.16	62.77
2006		3.49	5.21	6.37	7.37	8.50	9.66	10.95	12.63	14.62	21.18	4.11	6.06	62.72
2007		3.39	5.09	6.29	7.33	8.43	9.53	10.82	12.56	14.92	21.65	4.31	6.38	60.43
2008		3.35	5.18	6.34	7.33	8.39	9.57	10.81	12.58	15.07	21.39	4.28	6.38	60.87
2009		3.41	5.13	6.36	7.43	8.47	9.58	10.95	12.54	14.91	21.23	4.23	6.23	61.77
2010		3.54	5.31	6.49	7.47	8.42	9.54	10.80	12.32	14.88	21.23	4.08	6.00	63.16
분기	1	3.52	4.98	5.97	6.86	7.80	8.85	10.14	11.88	14.66	25.33	4.70	7.20	53.40
	2	3.66	5.30	6.37	7.30	8.26	9.19	10.32	11.91	14.29	23.39	4.21	6.40	60.10
	3	3.55	5.17	6.21	7.16	8.09	9.10	10.30	12.00	14.65	23.78	4.41	6.71	57.50
	4	3.74	5.37	6.41	7.33	8.21	9.16	10.30	11.90	14.17	23.40	4.13	6.26	60.80
2006[2)]		3.23	5.09	6.31	7.31	8.48	9.71	10.98	12.63	14.81	21.46	4.18	6.21	61.95
2007[2)]		3.09	4.93	6.20	7.27	8.47	9.62	10.79	12.60	15.02	22.00	4.39	6.55	59.63
2008[2)]		3.03	5.00	6.18	7.31	8.37	9.60	10.90	12.69	15.14	21.78	4.36	6.56	60.00
2009[2)]		3.06	4.95	6.19	7.34	8.49	9.60	10.96	12.70	15.03	21.68	4.35	6.47	60.57
2010[2)]		3.06	5.15	6.34	7.47	8.41	9.54	10.78	12.47	14.99	21.78	4.23	6.35	61.69
분기	1	2.92	4.71	5.93	6.99	8.00	9.18	10.56	12.29	15.13	24.30	5.17	8.34	52.10
	2	3.27	5.26	6.41	7.42	8.41	9.53	10.85	12.45	14.74	21.66	4.26	6.62	61.40
	3	3.20	5.09	6.31	7.36	8.43	9.45	10.69	12.44	15.00	22.04	4.47	6.90	59.30
	4	3.30	5.25	6.33	7.42	8.40	9.48	10.71	12.39	14.89	21.81	4.29	6.60	60.80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8〉 소득점유율(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1990		4.16	5.92	7.01	7.84	8.56	9.57	10.95	11.73	13.94	20.31	3.40	4.88	72.78
1991		4.38	6.07	7.04	7.84	8.84	9.48	10.40	11.98	13.86	20.12	3.25	4.60	74.56
1992		4.45	6.06	7.15	8.02	8.84	9.83	10.33	11.81	13.75	19.76	3.19	4.45	76.61
1993		4.05	5.88	7.02	7.99	8.78	9.57	10.58	11.79	14.03	20.32	3.46	5.02	72.61
1994		4.21	6.01	7.09	7.86	8.76	9.66	10.75	11.90	14.03	19.72	3.30	4.68	74.58
1995		4.26	5.97	7.05	7.95	8.70	9.72	10.57	11.94	14.06	19.78	3.31	4.64	74.56
1996		4.06	5.76	6.86	7.84	8.83	9.75	11.04	12.06	13.94	19.87	3.44	4.90	72.52
1997		4.13	5.90	6.90	7.89	8.88	9.77	10.80	12.19	14.31	19.24	3.35	4.66	73.97
1998		3.71	5.48	6.60	7.57	8.60	9.59	10.82	12.32	14.70	20.63	3.84	5.55	66.1
1999		3.64	5.31	6.46	7.58	8.58	9.61	10.88	12.34	14.54	21.06	3.98	5.78	64.6
2000		3.98	5.60	6.74	7.65	8.63	9.59	10.78	12.35	14.59	20.10	3.62	5.05	69.1
2001		4.44	6.30	7.44	8.47	9.66	10.88	12.36	14.18	16.68	23.88	3.78	5.38	65.7
2002		3.92	5.52	6.59	7.57	8.42	9.46	10.76	12.33	14.50	20.92	3.75	5.34	66.6
2003		3.74	5.55	6.81	7.77	8.72	9.72	10.83	12.26	14.32	20.28	3.72	5.43	68.98
2004		3.54	5.41	6.58	7.66	8.66	9.71	10.99	12.28	14.59	20.57	3.93	5.81	65.95
2005		3.51	5.35	6.60	7.67	8.69	9.68	10.83	12.34	14.74	20.59	3.99	5.86	65.49
2006		3.58	5.37	6.56	7.55	8.63	9.71	10.99	12.43	14.58	20.59	3.93	5.75	65.57
2007		3.50	5.27	6.45	7.53	8.52	9.65	10.87	12.50	14.76	20.97	4.08	6.00	63.66
2008		3.46	5.34	6.50	7.54	8.54	9.63	10.89	12.51	14.81	20.77	4.04	6.01	64.22
2009		3.41	5.27	6.45	7.58	8.59	9.68	10.97	12.52	14.77	20.76	4.09	6.08	63.92
2010		3.53	5.39	6.57	7.59	8.62	9.62	10.93	12.34	14.73	20.68	3.97	5.86	65.15
분기	1	3.01	4.83	6.06	7.11	8.13	9.29	10.60	12.28	14.98	23.71	4.93	7.87	54.3
	2	3.37	5.38	6.50	7.51	8.54	9.58	10.81	12.38	14.67	21.25	4.10	6.30	63.4
	3	3.26	5.25	6.45	7.46	8.52	9.58	10.78	12.42	14.81	21.47	4.27	6.59	61.8
	4	3.39	5.33	6.46	7.53	8.53	9.54	10.78	12.39	14.70	21.34	4.13	6.29	63.0
2006[2)]		3.53	5.34	6.51	7.54	8.61	9.72	10.98	12.47	14.58	20.72	3.98	5.88	64.92
2007[2)]		3.42	5.22	6.43	7.50	8.52	9.65	10.89	12.49	14.78	21.10	4.16	6.17	62.86
2008[2)]		3.41	5.27	6.45	7.54	8.51	9.64	10.88	12.57	14.96	20.78	4.12	6.10	63.40
2009[2)]		3.35	5.15	6.42	7.55	8.57	9.68	10.98	12.53	14.82	20.95	4.21	6.25	62.81
2010[2)]		3.40	5.30	6.51	7.57	8.55	9.66	10.84	12.45	14.80	20.90	4.11	6.15	63.79
분기	1	2.87	4.77	6.03	7.09	8.13	9.24	10.62	12.28	15.04	23.93	5.10	8.35	53.3
	2	3.23	5.30	6.45	7.50	8.51	9.56	10.81	12.40	14.75	21.50	4.25	6.66	62.0
	3	3.12	5.17	6.38	7.48	8.48	9.59	10.78	12.40	14.93	21.68	4.42	6.95	60.5
	4	3.28	5.27	6.43	7.49	8.50	9.55	10.75	12.37	14.74	21.62	4.26	6.60	61.8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9〉 소득점유율(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1990		4.50	5.91	6.82	7.53	8.25	9.07	10.31	11.66	13.97	21.98	3.45	4.89	68.83
1991		4.47	5.85	6.65	7.51	8.38	9.32	10.18	11.83	14.12	21.68	3.47	4.85	68.39
1992		4.35	5.72	6.71	7.61	8.39	9.26	10.31	11.88	14.09	21.68	3.55	4.99	68.19
1993		4.20	5.77	6.62	7.45	8.28	9.23	10.30	11.56	13.88	22.71	3.67	5.41	65.69
1994		4.29	5.67	6.61	7.43	8.41	9.32	10.34	11.77	14.01	22.16	3.63	5.17	66.35
1995		4.49	5.93	6.85	7.56	8.49	9.48	10.37	11.82	14.01	21.00	3.36	4.67	70.96
1996		4.32	5.74	6.68	7.44	8.25	9.19	10.28	11.65	14.33	22.11	3.62	5.12	66.37
1997		4.60	5.90	6.84	7.65	8.34	9.25	10.26	11.80	14.23	21.13	3.37	4.60	70.66
1998		4.36	5.75	6.72	7.53	8.38	9.26	10.37	11.73	14.12	21.78	3.55	4.99	67.8
1999		4.26	5.84	6.74	7.56	8.43	9.30	10.51	11.85	14.02	21.49	3.52	5.04	68.7
2000		4.61	6.05	6.98	7.79	8.61	9.46	10.43	11.72	13.79	20.55	3.22	4.46	74.1
2001		5.27	6.76	7.75	8.66	9.62	10.58	11.71	13.37	15.95	22.72	3.21	4.31	73.6
2002		4.72	6.14	7.02	7.84	8.63	9.54	10.61	11.88	13.88	19.75	3.10	4.19	76.5
2003		4.90	6.42	7.28	8.01	8.78	9.61	10.56	11.82	13.60	19.02	2.88	3.88	81.57
2004		4.78	6.31	7.25	8.01	8.73	9.56	10.49	11.74	13.66	19.47	2.99	4.08	79.52
2005		4.61	6.13	7.00	7.87	8.66	9.55	10.54	11.84	13.89	19.90	3.15	4.32	75.79
2006		4.52	5.91	6.87	7.78	8.69	9.64	10.58	11.98	13.95	20.07	3.26	4.44	73.72
2007		4.33	5.86	6.88	7.76	8.60	9.53	10.64	11.91	14.02	20.47	3.38	4.72	72.01
2008		4.50	6.05	7.08	7.84	8.74	9.65	10.71	12.07	13.78	19.56	3.16	4.34	76.42
2009		4.20	5.87	6.90	7.67	8.63	9.61	10.54	12.07	14.32	20.19	3.43	4.80	71.40
2010		4.35	6.03	7.05	7.91	8.75	9.58	10.66	11.97	14.17	19.52	3.24	4.49	75.24
분기	1	3.75	5.19	6.14	6.98	7.79	8.81	9.93	11.53	14.01	25.88	4.46	6.90	55.3
	2	3.92	5.51	6.56	7.47	8.34	9.24	10.26	11.64	13.70	23.36	3.93	5.96	63.3
	3	3.76	5.35	6.34	7.22	8.13	9.05	10.05	11.53	14.04	24.54	4.24	6.53	58.7
	4	3.97	5.57	6.58	7.42	8.28	9.11	10.17	11.61	13.57	23.72	3.91	5.97	63.1
2006[2)]		4.42	5.88	6.84	7.76	8.68	9.60	10.64	12.03	13.98	20.17	3.32	4.57	56.82
2007[2)]		4.25	5.86	6.82	7.72	8.60	9.55	10.57	12.02	13.98	20.63	3.42	4.85	59.88
2008[2)]		4.38	5.99	7.00	7.90	8.75	9.62	10.73	12.05	13.88	19.70	3.24	4.50	75.25
2009[2)]		4.05	5.78	6.88	7.65	8.63	9.54	10.57	12.14	14.26	20.51	3.54	5.06	70.08
2010[2)]		4.19	5.92	7.01	7.84	8.77	9.58	10.68	12.02	14.26	19.74	3.36	4.71	73.40
분기	1	3.59	5.14	6.08	6.95	7.77	8.78	9.93	11.56	14.05	26.15	4.61	7.29	54.1
	2	3.72	5.42	6.49	7.41	8.33	9.24	10.31	11.73	13.79	23.57	4.08	6.33	61.7
	3	3.57	5.27	6.29	7.19	8.12	9.03	10.07	11.56	14.09	24.82	4.40	6.96	57.3
	4	3.83	5.51	6.55	7.39	8.27	9.13	10.18	11.63	13.69	23.82	4.01	6.21	62.1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0〉 소득점유율(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1990		4.15	5.54	6.50	7.29	8.03	9.14	10.33	11.92	14.57	22.53	3.83	5.43	63.27
1991		4.18	5.61	6.44	7.27	8.21	9.13	10.39	12.04	14.68	22.05	3.75	5.27	63.96
1992		4.02	5.42	6.54	7.41	8.23	9.38	10.35	11.97	14.36	22.32	3.88	5.55	63.78
1993		3.99	5.47	6.40	7.34	8.24	9.21	10.38	11.90	14.32	22.74	3.91	5.69	62.62
1994		4.01	5.45	6.35	7.35	8.32	9.24	10.40	12.06	14.67	22.16	3.89	5.53	62.86
1995		4.24	5.68	6.58	7.48	8.32	9.51	10.57	12.24	14.35	21.02	3.56	4.96	67.83
1996		4.04	5.48	6.51	7.31	8.17	9.33	10.44	11.95	14.40	22.36	3.86	5.53	63.49
1997		4.28	5.63	6.67	7.37	8.21	9.33	10.53	12.08	14.47	21.43	3.62	5.00	66.71
1998		4.03	5.49	6.43	7.34	8.26	9.19	10.41	12.05	14.42	22.38	3.87	5.56	63.3
1999		3.95	5.47	6.43	7.32	8.28	9.32	10.49	12.05	14.43	22.24	3.89	5.62	63.2
2000		4.25	5.73	6.70	7.49	8.44	9.42	10.64	12.01	14.22	21.09	3.54	4.97	68.4
2001		4.92	6.42	7.49	8.36	9.47	10.61	11.83	13.80	16.30	23.94	3.55	4.87	67.6
2002		4.40	5.76	6.70	7.55	8.52	9.41	10.76	12.07	14.24	20.57	3.42	4.67	70.1
2003		4.51	6.06	7.04	7.79	8.59	9.54	10.53	12.04	14.10	19.81	3.21	4.39	74.89
2004		4.39	5.87	6.84	7.73	8.61	9.50	10.54	12.05	14.20	20.27	3.36	4.62	72.03
2005		4.18	5.76	6.69	7.61	8.47	9.47	10.61	12.16	14.31	20.75	3.53	4.96	69.13
2006		4.11	5.55	6.60	7.46	8.45	9.47	10.77	12.19	14.46	20.94	3.66	5.09	67.00
2007		3.95	5.48	6.47	7.41	8.44	9.34	10.53	12.11	14.53	21.75	3.85	5.51	64.21
2008		4.06	5.63	6.62	7.54	8.53	9.64	10.66	12.10	14.48	20.73	3.63	5.10	67.77
2009		3.86	5.50	6.51	7.49	8.46	9.48	10.75	12.28	14.59	21.10	3.81	5.46	65.46
2010		4.03	5.65	6.72	7.53	8.62	9.50	10.48	12.24	14.62	20.62	3.64	5.11	67.90
분기	1	3.52	4.98	5.97	6.86	7.80	8.85	10.14	11.88	14.66	25.33	4.70	7.20	53.4
	2	3.66	5.30	6.37	7.30	8.26	9.19	10.32	11.91	14.29	23.39	4.21	6.40	60.1
	3	3.55	5.17	6.21	7.16	8.09	9.10	10.30	12.00	14.65	23.78	4.41	6.71	57.5
	4	3.74	5.37	6.41	7.33	8.21	9.16	10.30	11.90	14.17	23.40	4.13	6.26	60.8
2006[2)]		4.03	5.49	6.53	7.47	8.43	9.50	10.71	12.30	14.46	21.08	3.73	5.24	66.17
2007[2)]		3.87	5.40	6.44	7.39	8.41	9.39	10.51	12.16	14.59	21.84	3.93	5.64	63.45
2008[2)]		3.96	5.53	6.62	7.50	8.55	9.58	10.68	12.19	14.48	20.91	3.73	5.29	66.71
2009[2)]		3.75	5.43	6.41	7.44	8.43	9.45	10.70	12.26	14.66	21.46	3.93	5.72	63.75
2010[2)]		3.86	5.55	6.60	7.54	8.56	9.52	10.51	12.29	14.60	20.97	3.78	5.43	66.21
분기	1	3.39	4.91	5.92	6.81	7.78	8.83	10.12	11.87	14.70	25.67	4.86	7.58	52.1
	2	3.47	5.18	6.30	7.25	8.22	9.21	10.36	11.93	14.39	23.68	4.40	6.82	58.3
	3	3.36	5.08	6.14	7.11	8.05	9.07	10.31	11.99	14.66	24.21	4.60	7.20	55.8
	4	3.62	5.30	6.37	7.30	8.18	9.17	10.33	11.93	14.31	23.51	4.24	6.49	59.7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2절 분위수배율

□ 분위수배율 지수의 구성과 특성

구분			특성
분위수배율	P90/10		· 상위 10% 기준 / 하위 10% 기준
	P90/50		· 상위 10% 기준 / 중위 소득·지출 기준
	P80/20		· 상위 20% 기준 / 하위 20% 기준
대상, 주기	전가구	연간	· 2003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	· 1990년 ~ 2010년
		분기	·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

〈표 4-11〉 분위수배율(전가구기준, 시장소득)

(단위: 원, 배)

구분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554,789	772,014	1,250,679	1,848,877	2,269,178	4.09	1.81	2.39
2004	567,154	794,844	1,317,381	1,993,713	2,465,957	4.35	1.87	2.51
2005	573,116	823,577	1,375,439	2,065,284	2,581,735	4.50	1.88	2.51
2006	574,531	847,324	1,429,677	2,201,152	2,694,274	4.69	1.88	2.60
2007	592,775	872,052	1,501,215	2,331,033	2,899,817	4.89	1.93	2.67
2008	621,748	931,719	1,558,344	2,460,238	3,073,005	4.94	1.97	2.64
2009	634,072	942,583	1,609,883	2,484,925	3,073,584	4.85	1.91	2.64
2010	676,265	1,036,522	1,705,231	2,619,244	3,237,078	4.79	1.90	2.53
2006[2)]	524,357	809,297	1,406,996	2,176,297	2,682,384	5.12	1.91	2.69
2007[2)]	533,406	828,607	1,468,720	2,317,245	2,891,792	5.42	1.97	2.80
2008[2)]	543,015	860,363	1,521,883	2,434,860	3,050,992	5.62	2.00	2.83
2009[2)]	530,392	875,174	1,570,923	2,456,951	3,054,352	5.76	1.94	2.81
2010[2)]	556,101	948,290	1,669,940	2,583,574	3,223,607	5.80	1.93	2.72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2〉 분위수배율(전가구기준, 경상소득)

(단위: 원, 배)

구분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600,642	797,606	1,272,318	1,869,825	2,295,840	3.82	1.80	2.34
2004		619,232	831,119	1,340,867	2,011,403	2,489,362	4.02	1.86	2.42
2005		626,669	863,049	1,408,310	2,095,258	2,608,559	4.16	1.85	2.43
2006		665,177	896,560	1,467,715	2,242,904	2,719,665	4.09	1.85	2.50
2007		687,929	942,862	1,545,584	2,370,191	2,946,225	4.28	1.91	2.51
2008		718,845	1,013,236	1,608,546	2,506,261	3,135,106	4.36	1.95	2.47
2009		743,502	1,020,303	1,658,585	2,537,889	3,134,486	4.22	1.89	2.49
2010		811,271	1,117,602	1,765,569	2,671,343	3,308,118	4.08	1.87	2.39
분기	1	697,455	1,000,000	1,706,070	2,713,100	3,486,345	5.00	2.04	2.71
	2	750,000	1,066,741	1,727,650	2,636,251	3,290,556	4.39	1.90	2.47
	3	751,314	1,093,501	1,792,384	2,750,000	3,480,267	4.63	1.94	2.51
	4	770,145	1,085,800	1,767,758	2,681,804	3,334,710	4.33	1.89	2.47
2006[2)]		611,782	857,404	1,436,005	2,225,299	2,707,487	4.43	1.89	2.60
2007[2)]		629,526	895,674	1,515,777	2,350,718	2,934,374	4.66	1.94	2.62
2008[2)]		657,641	944,646	1,573,488	2,476,935	3,111,033	4.73	1.98	2.62
2009[2)]		672,365	954,947	1,621,271	2,504,135	3,108,347	4.62	1.92	2.62
2010[2)]		710,258	1,041,021	1,722,759	2,652,795	3,283,198	4.62	1.91	2.55
분기	1	586,596	926,310	1,661,545	2,680,345	3,462,680	5.90	2.08	2.89
	2	638,382	1,000,000	1,684,000	2,609,313	3,267,803	5.12	1.94	2.61
	3	650,000	1,010,869	1,750,000	2,708,330	3,456,270	5.32	1.98	2.68
	4	672,284	1,014,691	1,732,051	2,650,000	3,318,772	4.94	1.92	2.6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3〉 분위수배율(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단위: 원, 배)

구분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568,371	750,789	1,193,160	1,731,282	2,126,855	3.74	1.78	2.31
2004		575,880	784,322	1,251,830	1,854,055	2,278,082	3.96	1.82	2.36
2005		582,963	814,696	1,313,655	1,936,645	2,394,233	4.11	1.82	2.38
2006		616,778	843,394	1,367,320	2,050,442	2,492,026	4.04	1.82	2.43
2007		636,652	882,131	1,433,830	2,167,644	2,679,508	4.21	1.87	2.46
2008		670,095	946,716	1,497,826	2,288,364	2,838,977	4.24	1.90	2.42
2009		678,408	941,074	1,532,979	2,306,360	2,861,746	4.22	1.87	2.45
2010		738,006	1,024,822	1,622,448	2,434,829	3,004,762	4.07	1.85	2.38
분기	1	650,225	935,502	1,591,785	2,489,032	3,197,962	4.92	2.01	2.66
	2	693,950	989,770	1,593,790	2,405,574	2,976,142	4.29	1.87	2.43
	3	692,428	1,006,280	1,650,490	2,502,340	3,120,425	4.51	1.89	2.49
	4	718,564	1,009,688	1,637,352	2,454,098	3,047,555	4.24	1.86	2.43
2006[2)]		568,497	808,214	1,347,019	2,032,006	2,484,844	4.37	1.84	2.51
2007[2)]		586,455	842,251	1,412,207	2,155,183	2,663,093	4.54	1.89	2.56
2008[2)]		610,344	885,818	1,469,561	2,269,377	2,825,637	4.63	1.92	2.56
2009[2)]		608,398	880,944	1,496,744	2,281,555	2,847,601	4.68	1.90	2.59
2010[2)]		642,180	957,042	1,586,507	2,403,222	2,989,405	4.66	1.88	2.51
분기	1	558,739	872,697	1,550,440	2,464,125	3,181,981	5.69	2.05	2.82
	2	601,041	930,363	1,561,323	2,376,485	2,962,269	4.93	1.90	2.55
	3	594,177	948,746	1,611,939	2,472,791	3,106,508	5.23	1.93	2.61
	4	626,709	950,865	1,600,510	2,425,697	3,026,969	4.83	1.89	2.55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4〉 분위수배율(전가구기준, 소비지출)

(단위: 원, 배)

구분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517,525	621,658	854,727	1,175,024	1,414,464	2.73	1.65	1.89
2004		538,380	657,337	911,379	1,257,208	1,507,149	2.80	1.65	1.91
2005		552,078	672,630	950,397	1,334,161	1,619,455	2.93	1.70	1.98
2006		562,478	681,492	995,330	1,407,868	1,714,983	3.05	1.72	2.07
2007		567,253	713,335	1,026,479	1,458,985	1,816,259	3.20	1.77	2.05
2008		605,811	753,693	1,073,295	1,531,136	1,848,412	3.05	1.72	2.03
2009		595,887	748,167	1,090,183	1,564,666	1,925,519	3.23	1.77	2.09
2010		658,106	820,624	1,173,644	1,663,884	2,034,029	3.09	1.73	2.03
분기	1	573,078	723,729	1,086,066	1,659,439	2,157,394	3.76	1.99	2.29
	2	573,061	725,486	1,086,015	1,560,866	1,926,024	3.36	1.77	2.15
	3	581,927	740,351	1,099,952	1,627,819	2,109,997	3.63	1.92	2.20
	4	610,893	765,760	1,125,346	1,616,249	1,982,629	3.25	1.76	2.11
2006[2)]		531,459	660,906	975,616	1,394,105	1,695,650	3.19	1.74	2.11
2007[2)]		537,080	687,173	1,009,943	1,448,711	1,787,446	3.33	1.77	2.11
2008[2)]		570,067	719,964	1,053,547	1,510,830	1,822,644	3.20	1.73	2.10
2009[2)]		552,627	714,659	1,068,020	1,541,696	1,909,537	3.46	1.79	2.16
2010[2)]		606,452	782,027	1,148,117	1,639,753	2,021,846	3.33	1.76	2.10
분기	1	530,879	688,439	1,062,832	1,638,973	2,133,546	4.02	2.01	2.38
	2	530,630	690,712	1,057,960	1,541,033	1,909,281	3.60	1.80	2.23
	3	538,353	705,576	1,076,486	1,600,883	2,082,967	3.87	1.93	2.27
	4	568,878	731,301	1,098,979	1,598,680	1,966,961	3.46	1.79	2.1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5〉 분위수배율(전가구기준, 가계지출)

(단위: 원, 배)

구분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618,782	753,080	1,065,518	1,521,178	1,838,424	2.97	1.73	2.02
2004		640,138	790,000	1,141,369	1,628,244	1,996,360	3.12	1.75	2.06
2005		655,430	813,215	1,184,090	1,724,687	2,117,184	3.23	1.79	2.12
2006		661,143	828,782	1,234,532	1,836,848	2,231,523	3.38	1.81	2.22
2007		679,369	865,072	1,291,206	1,907,980	2,411,407	3.55	1.87	2.21
2008		728,816	906,392	1,362,715	1,989,506	2,475,490	3.40	1.82	2.19
2009		721,634	920,992	1,392,920	2,042,916	2,567,210	3.56	1.84	2.22
2010		795,364	1,013,241	1,505,701	2,206,518	2,703,806	3.40	1.80	2.18
분기	1	715,428	919,017	1,409,144	2,219,950	2,901,201	4.06	2.06	2.42
	2	710,649	923,336	1,402,629	2,064,552	2,599,968	3.66	1.85	2.24
	3	730,390	942,287	1,430,727	2,198,208	2,842,603	3.89	1.99	2.33
	4	757,572	963,243	1,434,604	2,124,056	2,645,745	3.49	1.84	2.21
2006[2)]		631,153	797,704	1,216,484	1,816,987	2,218,999	3.52	1.82	2.28
2007[2)]		644,007	832,296	1,268,244	1,888,792	2,400,663	3.73	1.89	2.27
2008[2)]		680,618	867,842	1,335,156	1,968,003	2,450,862	3.60	1.84	2.27
2009[2)]		663,122	879,033	1,357,924	2,026,464	2,553,050	3.85	1.88	2.31
2010[2)]		740,741	963,570	1,471,818	2,183,033	2,687,189	3.63	1.83	2.27
분기	1	662,915	872,719	1,377,686	2,192,896	2,875,991	4.34	2.09	2.51
	2	656,492	869,928	1,368,070	2,039,951	2,577,279	3.93	1.88	2.34
	3	671,388	894,536	1,401,003	2,162,604	2,811,996	4.19	2.01	2.42
	4	699,800	921,915	1,404,727	2,100,702	2,627,514	3.75	1.87	2.28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6〉 분위수배율(도시근로자기준, 시장소득)

(단위: 원, 배)

구분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0	226,660	287,596	409,475	590,381	702,588	3.10	1.72	2.05
1991	299,250	361,967	515,075	719,314	873,953	2.92	1.70	1.99
1992	358,815	434,671	617,332	840,502	1,065,916	2.97	1.73	1.93
1993	375,002	473,181	670,915	946,752	1,183,643	3.16	1.76	2.00
1994	448,219	554,318	785,620	1,094,352	1,356,029	3.03	1.73	1.97
1995	504,260	617,462	879,488	1,253,546	1,504,850	2.98	1.71	2.03
1996	548,323	677,205	1,021,468	1,452,254	1,772,986	3.23	1.74	2.14
1997	587,172	721,879	1,079,209	1,524,503	1,844,461	3.14	1.71	2.11
1998	560,591	705,076	1,046,836	1,593,292	1,946,166	3.47	1.86	2.26
1999	585,011	717,807	1,097,711	1,669,711	2,107,576	3.60	1.92	2.33
2000	707,640	867,454	1,346,469	2,049,556	2,424,649	3.43	1.80	2.36
2001	739,716	967,298	1,527,303	2,281,897	2,791,555	3.77	1.83	2.36
2002	735,516	1,026,757	1,541,169	2,191,476	2,851,035	3.88	1.85	2.13
2003	692,733	918,543	1,374,682	1,997,126	2,441,998	3.53	1.78	2.17
2004	720,087	932,034	1,463,578	2,166,238	2,675,347	3.72	1.83	2.32
2005	750,353	974,130	1,515,725	2,272,112	2,784,440	3.71	1.84	2.33
2006	786,610	1,030,011	1,611,364	2,395,365	2,930,058	3.72	1.82	2.33
2007	823,954	1,066,294	1,712,214	2,570,668	3,170,642	3.85	1.85	2.41
2008	860,363	1,139,782	1,806,083	2,723,689	3,409,761	3.96	1.89	2.39
2009	845,451	1,121,744	1,770,666	2,675,159	3,337,928	3.95	1.89	2.38
2010	931,040	1,212,489	1,861,779	2,806,287	3,470,141	3.73	1.86	2.31
2006[2)]	774,664	1,016,256	1,601,312	2,392,522	2,919,099	3.77	1.82	2.35
2007[2)]	808,304	1,056,024	1,702,257	2,561,953	3,167,855	3.92	1.86	2.43
2008[2)]	848,727	1,119,118	1,799,514	2,720,914	3,407,477	4.01	1.89	2.43
2009[2)]	827,196	1,102,311	1,763,401	2,672,231	3,344,919	4.04	1.90	2.42
2010[2)]	885,750	1,193,159	1,852,221	2,794,651	3,470,625	3.92	1.87	2.34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7〉 분위수배율(도시근로자기준, 경상소득)

(단위: 원, 배)

구분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0		230,940	291,098	411,974	592,296	704,649	3.05	1.71	2.03
1991		301,914	367,148	518,380	722,381	876,044	2.90	1.69	1.97
1992		360,584	435,138	621,876	848,693	1,073,121	2.98	1.73	1.95
1993		377,327	475,744	674,880	949,965	1,190,177	3.15	1.76	2.00
1994		449,503	555,289	789,049	1,100,342	1,367,126	3.04	1.73	1.98
1995		507,107	620,166	888,792	1,261,228	1,513,530	2.98	1.70	2.03
1996		554,223	683,397	1,028,675	1,463,752	1,781,646	3.21	1.73	2.14
1997		593,166	734,722	1,089,076	1,541,093	1,849,808	3.12	1.70	2.10
1998		561,240	705,076	1,049,805	1,594,102	1,946,254	3.47	1.85	2.26
1999		589,420	724,318	1,100,125	1,691,078	2,107,815	3.58	1.92	2.33
2000		718,393	868,909	1,379,218	2,051,038	2,480,015	3.45	1.80	2.36
2001		755,776	1,002,953	1,529,872	2,299,480	2,852,206	3.77	1.86	2.29
2002		743,086	1,027,639	1,545,568	2,195,665	2,923,066	3.93	1.89	2.14
2003		711,148	931,744	1,387,391	2,009,037	2,456,841	3.45	1.77	2.16
2004		741,611	951,034	1,478,268	2,180,703	2,687,098	3.62	1.82	2.29
2005		779,891	993,559	1,546,380	2,289,574	2,808,156	3.60	1.82	2.30
2006		819,757	1,059,554	1,637,521	2,424,124	2,953,906	3.60	1.80	2.29
2007		863,099	1,105,827	1,732,435	2,596,733	3,200,092	3.71	1.85	2.35
2008		914,072	1,181,383	1,832,422	2,754,563	3,457,396	3.78	1.89	2.33
2009		898,045	1,170,003	1,812,883	2,741,729	3,375,004	3.76	1.86	2.34
2010		983,030	1,259,625	1,903,434	2,860,600	3,510,870	3.57	1.84	2.27
분기	1	887,387	1,187,939	1,892,555	2,976,177	3,853,123	4.34	2.04	2.51
	2	941,435	1,218,726	1,860,534	2,768,235	3,445,880	3.66	1.85	2.27
	3	971,890	1,251,380	1,947,055	2,949,520	3,713,845	3.82	1.91	2.36
	4	963,695	1,237,437	1,904,566	2,855,175	3,568,014	3.70	1.87	2.31
2006[2)]		806,243	1,043,899	1,625,820	2,419,741	2,943,565	3.65	1.81	2.32
2007[2)]		848,092	1,092,051	1,724,982	2,586,802	3,199,555	3.77	1.85	2.37
2008[2)]		894,283	1,161,345	1,824,168	2,747,405	3,442,547	3.85	1.89	2.37
2009[2)]		875,345	1,150,562	1,804,798	2,732,070	3,379,868	3.86	1.87	2.37
2010[2)]		948,816	1,234,302	1,886,381	2,849,429	3,522,850	3.71	1.87	2.31
분기	1	870,000	1,169,134	1,877,219	2,968,148	3,853,123	4.43	2.05	2.54
	2	919,239	1,198,002	1,845,549	2,755,693	3,455,045	3.76	1.87	2.30
	3	941,450	1,230,565	1,935,870	2,937,896	3,711,873	3.94	1.92	2.39
	4	943,159	1,212,436	1,893,391	2,838,626	3,562,500	3.78	1.88	2.34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8〉 분위수배율(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단위: 원, 배)

구분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0		224,713	283,282	392,481	555,720	664,202	2.96	1.69	1.96
1991		294,450	358,426	494,949	688,645	821,734	2.79	1.66	1.92
1992		351,518	424,379	589,705	800,405	978,945	2.78	1.66	1.89
1993		368,111	455,709	645,399	891,027	1,116,166	3.03	1.73	1.96
1994		434,084	534,769	747,965	1,044,222	1,265,420	2.92	1.69	1.95
1995		491,756	598,070	837,789	1,159,214	1,408,279	2.86	1.68	1.94
1996		532,276	659,130	975,198	1,356,062	1,615,363	3.03	1.66	2.06
1997		575,152	706,369	1,027,172	1,431,942	1,730,204	3.01	1.68	2.03
1998		536,352	666,675	981,381	1,493,506	1,775,567	3.31	1.81	2.24
1999		551,871	690,819	1,038,660	1,564,016	1,860,135	3.37	1.79	2.26
2000		659,496	831,647	1,304,141	1,904,477	2,238,886	3.39	1.72	2.29
2001		707,650	921,450	1,418,283	2,041,122	2,571,665	3.63	1.81	2.22
2002		710,925	955,963	1,445,460	2,034,061	2,636,136	3.71	1.82	2.13
2003		667,938	872,603	1,284,592	1,833,585	2,213,311	3.31	1.72	2.10
2004		691,811	895,401	1,368,378	1,980,302	2,396,136	3.46	1.75	2.21
2005		737,309	933,418	1,434,260	2,082,049	2,532,864	3.44	1.77	2.23
2006		771,816	992,006	1,509,113	2,183,032	2,637,209	3.42	1.75	2.20
2007		811,284	1,035,699	1,587,378	2,361,500	2,874,600	3.54	1.81	2.28
2008		852,438	1,103,576	1,684,191	2,506,000	3,035,017	3.56	1.80	2.27
2009		822,719	1,081,832	1,665,374	2,456,998	3,028,565	3.68	1.82	2.27
2010		895,714	1,140,829	1,740,953	2,563,010	3,126,266	3.49	1.80	2.25
분기	1	820,000	1,088,559	1,732,051	2,686,682	3,420,380	4.17	1.97	2.47
	2	855,500	1,103,860	1,683,595	2,498,695	3,085,085	3.61	1.83	2.26
	3	877,700	1,134,008	1,768,696	2,624,144	3,295,754	3.75	1.86	2.31
	4	881,945	1,122,735	1,733,540	2,552,263	3,184,489	3.61	1.84	2.27
2006[2)]		759,242	978,929	1,500,097	2,180,663	2,633,406	3.47	1.76	2.23
2007[2)]		795,518	1,026,396	1,581,715	2,358,114	2,867,396	3.60	1.81	2.30
2008[2)]		842,781	1,091,124	1,676,852	2,503,702	3,035,017	3.60	1.81	2.29
2009[2)]		809,555	1,071,665	1,656,534	2,455,593	3,029,498	3.74	1.83	2.29
2010[2)]		865,204	1,121,229	1,724,024	2,551,781	3,130,021	3.62	1.82	2.28
분기	1	558,739	872,697	1,550,440	2,464,125	3,181,981	5.69	2.05	2.82
	2	601,041	930,363	1,561,323	2,376,485	2,962,269	4.93	1.90	2.55
	3	594,177	948,746	1,611,939	2,472,791	3,106,508	5.23	1.93	2.61
	4	626,709	950,865	1,600,510	2,425,697	3,026,969	4.83	1.89	2.55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9〉 분위수배율(도시근로자기준, 소비지출)

(단위: 원, 배)

구분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0		154,899	187,955	251,051	367,675	474,672	3.06	1.89	1.96
1991		185,597	216,805	304,972	438,435	546,499	2.94	1.79	2.02
1992		209,115	255,066	361,481	516,642	635,264	3.04	1.76	2.03
1993		237,961	284,001	398,731	569,296	713,504	3.00	1.79	2.00
1994		274,344	328,643	473,435	680,138	845,837	3.08	1.79	2.07
1995		315,209	378,477	528,097	746,417	933,313	2.96	1.77	1.97
1996		351,190	424,686	591,204	851,890	1,095,323	3.12	1.85	2.01
1997		383,114	452,575	617,369	898,056	1,120,197	2.92	1.81	1.98
1998		347,969	423,324	610,619	999,111	1,301,182	3.74	2.13	2.36
1999		418,387	500,322	706,271	1,077,382	1,389,605	3.32	1.97	2.15
2000		480,738	601,294	904,297	1,321,782	1,664,547	3.46	1.84	2.20
2001		552,819	663,305	898,671	1,371,788	1,745,904	3.16	1.94	2.07
2002		554,066	662,438	981,518	1,383,298	1,707,703	3.08	1.74	2.09
2003		570,640	665,552	887,383	1,210,132	1,453,306	2.55	1.64	1.82
2004		590,345	705,369	940,224	1,292,951	1,544,531	2.62	1.64	1.83
2005		603,539	716,264	984,297	1,387,275	1,653,959	2.74	1.68	1.94
2006		616,534	728,318	1,038,970	1,458,726	1,750,813	2.84	1.69	2.00
2007		628,692	769,536	1,081,810	1,531,147	1,895,535	3.02	1.75	1.99
2008		681,431	830,532	1,162,111	1,610,395	1,938,006	2.84	1.67	1.94
2009		662,937	822,973	1,160,548	1,656,915	1,998,322	3.01	1.72	2.01
2010		720,640	880,244	1,225,372	1,721,827	2,095,571	2.91	1.71	1.96
분기	1	573,078	723,729	1,086,066	1,659,439	2,157,394	3.76	1.99	2.29
	2	573,061	725,486	1,086,015	1,560,866	1,926,024	3.36	1.77	2.15
	3	581,927	740,351	1,099,952	1,627,819	2,109,997	3.63	1.92	2.20
	4	610,893	765,760	1,125,346	1,616,249	1,982,629	3.25	1.76	2.11
2006[2)]		608,091	719,702	1,030,890	1,447,795	1,745,505	2.87	1.69	2.01
2007[2)]		615,943	758,876	1,072,329	1,523,461	1,873,868	3.04	1.75	2.01
2008[2)]		670,359	815,820	1,150,831	1,606,433	1,933,456	2.88	1.68	1.97
2009[2)]		650,957	807,104	1,147,615	1,650,263	1,991,260	3.06	1.74	2.04
2010[2)]		694,312	862,868	1,216,304	1,709,479	2,083,775	3.00	1.71	1.98
분기	1	530,879	688,439	1,062,832	1,638,973	2,133,546	4.02	2.01	2.38
	2	530,630	690,712	1,057,960	1,541,033	1,909,281	3.60	1.80	2.23
	3	538,353	705,576	1,076,486	1,600,883	2,082,967	3.87	1.93	2.27
	4	568,878	731,301	1,098,979	1,598,680	1,966,961	3.46	1.79	2.19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20〉 분위수배율(도시근로자기준, 가계지출)

(단위: 원, 배)

구분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0		186,489	224,046	316,448	474,760	629,246	3.37	1.99	2.12
1991		223,913	266,714	381,078	577,463	729,892	3.26	1.92	2.17
1992		256,904	317,639	461,164	691,361	845,268	3.29	1.83	2.18
1993		289,958	347,558	506,724	755,909	950,270	3.28	1.88	2.17
1994		337,299	408,949	606,594	909,227	1,141,342	3.38	1.88	2.22
1995		391,117	476,584	688,912	999,420	1,236,073	3.16	1.79	2.10
1996		431,674	527,648	771,082	1,148,097	1,453,623	3.37	1.89	2.18
1997		474,025	560,649	802,684	1,203,505	1,511,295	3.19	1.88	2.15
1998		455,981	539,463	825,284	1,301,500	1,767,255	3.88	2.14	2.41
1999		530,583	639,472	909,853	1,439,256	1,814,723	3.42	1.99	2.25
2000		586,537	746,743	1,160,489	1,747,715	2,124,817	3.62	1.83	2.34
2001		668,883	790,713	1,147,633	1,825,209	2,303,781	3.44	2.01	2.31
2002		683,532	791,791	1,264,358	1,802,539	2,267,615	3.32	1.79	2.28
2003		677,353	813,230	1,122,897	1,595,341	1,932,457	2.85	1.72	1.96
2004		701,184	847,541	1,201,528	1,714,105	2,093,670	2.99	1.74	2.02
2005		712,425	873,256	1,242,320	1,826,805	2,214,131	3.11	1.78	2.09
2006		728,657	895,391	1,313,443	1,930,560	2,320,486	3.18	1.77	2.16
2007		750,564	935,635	1,378,081	2,033,662	2,525,215	3.36	1.83	2.17
2008		836,600	1,014,612	1,500,742	2,156,700	2,660,901	3.18	1.77	2.13
2009		815,891	1,003,860	1,485,600	2,175,190	2,733,938	3.35	1.84	2.17
2010		883,594	1,098,314	1,603,134	2,336,961	2,856,276	3.23	1.78	2.13
분기	1	715,428	919,017	1,409,144	2,219,950	2,901,201	4.06	2.06	2.42
	2	710,649	923,336	1,402,629	2,064,552	2,599,968	3.66	1.85	2.24
	3	730,390	942,287	1,430,727	2,198,208	2,842,603	3.89	1.99	2.33
	4	757,572	963,243	1,434,604	2,124,056	2,645,745	3.49	1.84	2.21
2006[2)]		712,998	878,908	1,306,358	1,922,319	2,311,456	3.24	1.77	2.19
2007[2)]		728,951	924,132	1,367,892	2,025,327	2,516,680	3.45	1.84	2.19
2008[2)]		810,951	1,000,425	1,487,056	2,147,805	2,656,333	3.28	1.79	2.15
2009[2)]		796,650	989,133	1,474,785	2,166,858	2,728,628	3.43	1.85	2.19
2010[2)]		848,258	1,074,751	1,586,186	2,325,366	2,838,898	3.35	1.79	2.16
분기	1	662,915	872,719	1,377,686	2,192,896	2,875,991	4.34	2.09	2.51
	2	656,492	869,928	1,368,070	2,039,951	2,577,279	3.93	1.88	2.34
	3	671,388	894,536	1,401,003	2,162,604	2,811,996	4.19	2.01	2.42
	4	699,800	921,915	1,404,727	2,100,702	2,627,514	3.75	1.87	2.28

주: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3절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 지니계수, 앳킨슨지수의 특성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특성</th></tr>
<tr><td colspan="2">지니계수</td><td colspan="2">· 소득크기대로 순서를 매기고, 횡축에서 낮은 소득을 가진사람부터 인구를 누적하고, 종축에서 이들의 소득을 누적해서 그려진 로렌츠 곡선과 연관
· 지니계수는 위와 같은 로렌츠 곡선에서 절대적 평등선(사선)과 로렌츠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ito)로 계산됨.</td></tr>
<tr><td colspan="2" rowspan="3">앳킨슨 지수</td><td colspan="2">· $A = 1 - \frac{Y_e}{\mu} = 1 - [\frac{1}{N}\sum_{i=1}^{n}(\frac{y_i}{\mu})^{1-\epsilon}]^{\frac{1}{(1-\epsilon)}}$
Y_e: 균등분배대등소득(현재와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에서의 평균소득)
μ: 현재의 평균소득</td></tr>
<tr><td>ε=0.5</td><td colspan="2">· 불평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td></tr>
<tr><td>ε=1.0</td><td colspan="2">· 불평등에 대한 혐오도 또는 분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경우</td></tr>
<tr><td rowspan="4">대상, 주기</td><td rowspan="2">전가구</td><td>연간</td><td>· 2003년 ~ 2010년</td></tr>
<tr><td>분기</td><td>·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td></tr>
<tr><td rowspan="2">도시근로자 가구</td><td>연간</td><td>· 1990년 ~ 2010년</td></tr>
<tr><td>분기</td><td>· 2010년 1/4분기 ~ 2010년 4/4분기</td></tr>
</table>

〈표 4-21〉 지니계수(전가구기준)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0.292	0.281	0.275	0.226	0.241
2004		0.301	0.289	0.282	0.231	0.250
2005		0.306	0.292	0.285	0.241	0.257
2006		0.312	0.296	0.288	0.251	0.269
2007		0.321	0.302	0.293	0.255	0.276
2008		0.323	0.303	0.294	0.244	0.267
2009		0.320	0.297	0.290	0.255	0.272
2010		0.314	0.291	0.283	0.245	0.262
분기	1	-	0.345	0.339	0.327	0.328
	2	-	0.309	0.306	0.270	0.302
	3	-	0.316	0.312	0.315	0.314
	4	-	0.309	0.305	0.299	0.301
2006[2)]		0.323	0.305	0.297	0.258	0.276
2007[2)]		0.333	0.312	0.303	0.263	0.285
2008[2)]		0.337	0.315	0.306	0.253	0.277
2009[2)]		0.336	0.311	0.304	0.266	0.284
2010[2)]		0.332	0.306	0.298	0.256	0.274
분기	1	-	0.359	0.353	0.336	0.340
	2	-	0.324	0.321	0.308	0.315
	3	-	0.330	0.327	0.325	0.325
	4	-	0.324	0.320	0.307	0.31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22〉 지니계수(도시근로자가구기준)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990		0.256	0.254	0.243	0.262	0.281
1991		0.246	0.244	0.236	0.260	0.274
1992		0.242	0.241	0.231	0.261	0.275
1993		0.242	0.241	0.234	0.261	0.272
1994		0.240	0.239	0.231	0.252	0.264
1995		0.243	0.243	0.234	0.240	0.253
1996		0.250	0.250	0.240	0.255	0.267
1997		0.247	0.245	0.237	0.244	0.258
1998		0.271	0.270	0.261	0.255	0.272
1999		0.278	0.277	0.267	0.253	0.272
2000		0.263	0.261	0.251	0.235	0.253
2001		0.276	0.273	0.262	0.236	0.256
2002		0.272	0.270	0.260	0.228	0.247
2003		0.264	0.261	0.252	0.213	0.233
2004		0.275	0.271	0.261	0.219	0.242
2005		0.279	0.273	0.262	0.230	0.252
2006		0.280	0.273	0.262	0.236	0.258
2007		0.289	0.281	0.269	0.242	0.267
2008		0.288	0.280	0.267	0.229	0.255
2009		0.287	0.277	0.265	0.244	0.263
2010		0.283	0.272	0.259	0.232	0.254
분기	1	-	0.347	0.341	0.318	0.321
	2	-	0.310	0.307	0.288	0.296
	3	-	0.317	0.314	0.307	0.307
	4	-	0.310	0.306	0.290	0.295
2006[2)]		0.283	0.276	0.264	0.239	0.261
2007[2)]		0.292	0.284	0.271	0.245	0.270
2008[2)]		0.291	0.283	0.270	0.233	0.259
2009[2)]		0.291	0.281	0.270	0.248	0.269
2010[2)]		0.289	0.277	0.265	0.237	0.261
분기	1	-	0.360	0.353	0.327	0.331
	2	-	0.324	0.321	0.299	0.307
	3	-	0.331	0.328	0.316	0.317
	4	-	0.324	0.320	0.298	0.303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23〉 앳킨슨지수(전가구기준)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ε=0.5	ε=1.0	ε=0.5	ε=1.0	ε=0.5	ε=1.0	ε=0.5	ε=1.0	ε=0.5	ε=1.0
2003		0.076	0.164	0.067	0.136	0.063	0.130	0.042	0.081	0.047	0.157
2004		0.080	0.169	0.070	0.142	0.066	0.136	0.044	0.086	0.051	0.161
2005		0.084	0.180	0.073	0.148	0.068	0.139	0.048	0.093	0.054	0.169
2006		0.087	0.186	0.074	0.150	0.069	0.142	0.052	0.101	0.059	0.171
2007		0.093	0.201	0.077	0.156	0.070	0.144	0.053	0.104	0.062	0.170
2008		0.094	0.201	0.078	0.157	0.071	0.145	0.049	0.095	0.058	0.169
2009		0.094	0.210	0.075	0.157	0.070	0.144	0.053	0.104	0.060	0.177
2010		0.092	0.201	0.072	0.148	0.067	0.139	0.049	0.096	0.055	0.172
분기	1	-	-	0.104	0.197	0.092	0.186	0.087	0.158	0.087	0.161
	2	-	-	0.084	0.162	0.076	0.156	0.075	0.136	0.076	0.141
	3	-	-	0.087	0.172	0.078	0.163	0.082	0.150	0.080	0.149
	4	-	-	0.084	0.163	0.076	0.158	0.077	0.138	0.076	0.140
2006[2)]		0.095	0.204	0.080	0.160	0.073	0.151	0.055	0.108	0.063	0.123
2007[2)]		0.101	0.219	0.083	0.168	0.075	0.155	0.057	0.111	0.066	0.129
2008[2)]		0.104	0.224	0.085	0.171	0.077	0.158	0.053	0.103	0.062	0.122
2009[2)]		0.107	0.239	0.084	0.174	0.077	0.160	0.058	0.115	0.066	0.129
2010[2)]		0.107	0.231	0.082	0.167	0.075	0.157	0.054	0.107	0.061	0.121
분기	1	-	-	0.115	0.214	0.101	0.203	0.093	0.171	0.093	0.174
	2	-	-	0.095	0.179	0.084	0.171	0.081	0.149	0.082	0.155
	3	-	-	0.098	0.189	0.086	0.179	0.088	0.162	0.086	0.163
	4	-	-	0.095	0.180	0.085	0.174	0.081	0.147	0.080	0.15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24〉 앳킨슨지수(도시근로자가구기준)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ε=0.5	ε=1.0	ε=0.5	ε=1.0	ε=0.5	ε=1.0	ε=0.5	ε=1.0	ε=0.5	ε=1.0
1990		0.053	0.104	0.053	0.102	0.048	0.094	0.057	0.106	0.064	0.120
1991		0.049	0.095	0.048	0.093	0.045	0.088	0.056	0.104	0.061	0.114
1992		0.048	0.094	0.047	0.092	0.044	0.085	0.057	0.105	0.061	0.115
1993		0.048	0.094	0.048	0.094	0.045	0.089	0.057	0.106	0.061	0.114
1994		0.047	0.092	0.046	0.091	0.043	0.086	0.052	0.098	0.056	0.107
1995		0.048	0.094	0.047	0.093	0.044	0.087	0.047	0.089	0.051	0.098
1996		0.050	0.099	0.050	0.099	0.046	0.092	0.053	0.100	0.058	0.109
1997		0.049	0.096	0.048	0.095	0.045	0.089	0.049	0.092	0.054	0.103
1998		0.059	0.117	0.059	0.115	0.055	0.109	0.053	0.101	0.060	0.114
1999		0.063	0.123	0.062	0.121	0.058	0.113	0.053	0.100	0.060	0.114
2000		0.055	0.109	0.054	0.106	0.050	0.099	0.045	0.086	0.052	0.099
2001		0.061	0.119	0.059	0.115	0.055	0.107	0.045	0.085	0.052	0.100
2002		0.059	0.115	0.058	0.113	0.054	0.105	0.042	0.081	0.049	0.094
2003		0.057	0.114	0.055	0.110	0.052	0.103	0.037	0.071	0.044	0.085
2004		0.062	0.124	0.060	0.118	0.056	0.111	0.039	0.075	0.047	0.091
2005		0.064	0.128	0.061	0.120	0.056	0.112	0.043	0.083	0.051	0.098
2006		0.064	0.128	0.060	0.119	0.056	0.110	0.045	0.087	0.053	0.103
2007		0.068	0.136	0.064	0.126	0.058	0.116	0.047	0.091	0.057	0.110
2008		0.068	0.137	0.064	0.126	0.058	0.117	0.042	0.082	0.052	0.101
2009		0.068	0.137	0.062	0.124	0.057	0.115	0.048	0.093	0.055	0.108
2010		0.066	0.133	0.059	0.118	0.054	0.109	0.043	0.084	0.051	0.100
분기	1	-	-	0.105	0.198	0.093	0.187	0.085	0.156	0.085	0.159
	2	-	-	0.084	0.161	0.076	0.155	0.075	0.135	0.076	0.140
	3	-	-	0.088	0.171	0.078	0.164	0.081	0.149	0.079	0.148
	4	-	-	0.084	0.164	0.076	0.158	0.076	0.136	0.075	0.139
2006[2)]		0.066	0.131	0.062	0.122	0.057	0.113	0.046	0.089	0.055	0.106
2007[2)]		0.070	0.139	0.065	0.129	0.060	0.118	0.049	0.094	0.059	0.113
2008[2)]		0.070	0.140	0.065	0.129	0.060	0.120	0.044	0.085	0.054	0.105
2009[2)]		0.070	0.142	0.064	0.128	0.059	0.119	0.050	0.098	0.058	0.114
2010[2)]		0.069	0.140	0.062	0.123	0.057	0.114	0.046	0.090	0.054	0.107
분기	1	-	-	0.115	0.212	0.100	0.200	0.091	0.166	0.091	0.171
	2	-	-	0.094	0.175	0.084	0.169	0.080	0.146	0.082	0.153
	3	-	-	0.098	0.186	0.085	0.178	0.086	0.159	0.085	0.160
	4	-	-	0.095	0.179	0.084	0.172	0.080	0.145	0.080	0.14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05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사회경제지표

제5장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사회경제지표

제1절 경제, 노동

〈표 5-1〉 국민계정 주요지표: GDP 등

연중	명목GDP		명목 GNI		1인당GNI		경제성장률	
	10억원	10억 달러	10억원	10억 달러	만원	달러	국내 총생산 (%)	국민 총소득 (%)
1992	263,993	338	263,501	338	602	7,714	5.8	5.7
1993	298,762	372	298,057	371	674	8,402	6.3	6.6
1994	349,973	436	348,956	434	782	9,727	8.8	9.0
1995	409,654	531	408,014	529	905	11,735	8.9	8.0
1996	460,953	573	458,636	570	1,007	12,518	7.2	5.4
1997	506,314	532	502,865	529	1,094	11,505	5.8	3.5
1998	501,027	358	492,574	352	1,064	7,607	-5.7	-7.5
1999	549,005	462	542,178	456	1,163	9,778	10.7	9.8
2000	603,236	534	600,159	531	1,277	11,292	8.8	6.5
2001	651,415	505	649,899	504	1,372	10,631	4.0	3.3
2002	720,539	576	720,996	576	1,514	12,100	7.2	7.5
2003	767,114	644	767,771	644	1,604	13,460	2.8	2.5
2004	826,893	722	829,327	725	1,726	15,082	4.6	3.7
2005	865,241	845	864,427	844	1,796	17,531	4.0	2.0
2006	908,744	951	910,134	953	1,884	19,722	5.2	3.9
2007	975,013	1,049	976,814	1,051	2,016	21,695	5.1	4.8
2008	1,026,452	931	1,034115	938	2,128	19,296	2.3	-0.6
2009	1,065,037	834	1,069,783	838	2,195	17,193	0.3	1.6
2010p[1)]	1,172,803	1,014	1,173,123	1,015	2,400	20,759	6.2	5.5

주: 1)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1.

〈표 5-2〉 국민계정 주요지표: 노동소득분배율 등

연중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	노동소득 분배율 (%)	총 저축률 (%)	국내총 투자율 (%)	수출입의 대 GNI비율(명목)		
						(%)	총수출 (%)	총수입 (%)
1991	57.2	10.2	58.0	37.9	40.0	56.2	26.9	29.4
1992	61.7	7.9	57.9	36.9	37.0	55.5	27.6	28.0
1993	65.6	6.4	58.2	36.9	36.0	52.6	26.6	26.0
1994	70.7	7.7	58.4	36.4	36.8	54.4	26.9	27.5
1995	75.9	7.5	60.4	36.2	37.1	59.3	29.2	30.1
1996	79.7	5.0	62.6	34.8	38.1	60.1	28.4	31.7
1997	82.8	3.9	61.4	34.6	35.6	66.2	32.5	33.7
1998	86.9	5.0	60.6	36.6	25.2	80.8	45.8	35.1
1999	86	-1.0	59.0	34.6	29.1	71.5	38.4	33.1
2000	86.8	1.0	58.1	33.0	30.7	77.5	39.9	37.6
2001	90.2	3.9	58.8	31.1	29.3	72.2	37.1	35.1
2002	93.1	3.2	58.0	30.5	29.3	67.1	34.3	32.8
2003	96.4	3.6	59.2	31.9	30.0	70.6	36.5	34.1
2004	99.4	3.0	58.7	34.0	29.9	79.8	42.1	37.7
2005	100	0.7	60.7	32.1	29.8	78.6	40.6	38.0
2006	99.9	-0.1	61.3	30.8	29.7	80.9	41.2	39.7
2007	101.9	2.1	61.1	30.8	29.5	85.9	43.8	42.1
2008	104.9	2.9	61.0	30.5	31.0	110.7	55.1	55.6
2009	108.5	3.4	60.9	30.2	26.2	98.8	51.5	47.3
2010p[1)]	112.5	3.7	59.2	32.0	29.2	105.3	54.0	51.2

주: 1)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1.

〈표 5-3〉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2003-2010 I

(단위: 천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계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2003	37,340	22,957	13,539	9,418	22,139	13,031	9,108
	2004	37,717	23,417	13,727	9,690	22,557	13,193	9,364
	2005	38,300	23,743	13,883	9,860	22,856	13,330	9,526
	2006	38,762	23,978	13,978	10,001	23,151	13,440	9,706
	2007	39,170	24,216	14,124	10,092	23,433	13,607	9,826
	2008	39,598	24,347	14,208	10,139	23,577	13,703	9,874
	2009	40,092	24,394	14,319	10,076	23,506	13,734	9,772
	2010	40,590	24,748	14,492	10256	23,829	13,915	9,914
농가	2003	3,066	2,293	1,214	1,079	2,272	1,200	1,072
	2004	2,872	2,152	1,133	1,019	2,130	1,120	1,010
	2005	2,842	2,126	1,131	995	2,105	1,118	988
	2006	2,810	2,097	1,122	975	2,073	1,106	966
	2007	2,690	2,012	1,079	934	1,997	1,068	929
	2008	2,641	1,962	1,059	903	1,949	1,051	898
	2009	2,701	1,981	1,089	892	1,965	1,077	888
	2010	2,706	1,948	1,086	863	1,925	1,071	854
비농가	2003	34,274	20,663	12,325	8,339	19,867	11,831	8,036
	2004	34,845	21,265	12,594	8,671	20,428	12,074	8,354
	2005	35,457	21,617	12,752	8,865	20,751	12,213	8,538
	2006	35,952	21,881	12,856	9,026	21,078	12,338	8,740
	2007	36,480	22,203	13,045	9,158	21,435	12,539	8,897
	2008	36,957	22,385	13,149	9,236	21,629	12,652	8,976
	2009	37,391	22,413	13,230	9,184	21,541	12,658	8,883
	2010	37,884	22,800	13,407	9,394	21,904	12,844	9,060

자료: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연보』, 2011.

〈표 5-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2003-2010 II

(단위: 천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18시간 미만 참가자	경제 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2003	818	508	310	14,383	4,580	9,803	648	61.5	59.3	3.6
	2004	860	534	326	14,300	4,584	9,716	733	62.1	59.8	3.7
	2005	887	553	334	14,557	4,734	9,823	804	62.0	59.7	3.7
	2006	827	533	294	14,784	4,885	9,898	821	61.9	59.7	3.5
	2007	783	517	266	14,954	4,960	9,994	835	61.8	59.8	3.2
	2008	769	505	265	15,251	5,117	10,134	850	61.5	59.5	3.2
	2009	889	584	304	15,698	5,278	10,420	963	60.8	58.6	3.6
	2010	920	577	342	15,841	5,356	10,485	1,056	61.0	58.7	3.7
농가	2003	21	14	7	772	274	498	120	74.8	74.1	0.9
	2004	23	14	9	720	250	470	117	74.9	74.1	1.1
	2005	21	14	7	716	245	472	-	74.8	74.1	1.0
	2006	24	16	8	713	247	466	-	82.0	80.8	1.4
	2007	11	16	4	678	233	445	-	82.3	81.5	1.0
	2008	13	8	5	679	237	442	-	74.3	73.8	0.7
	2009	16	12	4	720	257	463	-	73.3	72.7	0.8
	2010	24	15	9	758	259	499	-	72.0	71.1	1.2
비농가	2003	797	494	303	13,611	4,306	9,305	528	60.3	58.0	3.9
	2004	837	521	317	13,580	4,335	9,246	616	61.0	58.6	3.9
	2005	866	539	327	13,841	4,489	9,352	-	61.0	58.5	4.0
	2006	803	517	286	14,071	4,638	9,433	-	60.9	58.6	3.7
	2007	768	506	262	14,277	4,727	9,549	-	60.9	58.8	3.5
	2008	756	496	260	14,572	4,880	9,692	-	60.6	58.5	3.4
	2009	872	572	300	14,978	5,021	9,957	-	59.9	57.6	3.9
	2010	896	563	334	15,084	5,098	9,986	-	60.2	57.8	3.9

자료::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연보』, 2011.

〈표 5-5〉 소비자물가지수 기본분류지수 I

(2005=100)

연중	총지수	식료품 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복 신발	주거 및 수도 · 광열	가구집기 , 가사용품	보건 의료
품목수	489	131	9	42	19	52	28
가중치	1000	140.4	14.6	58.4	170.4	41.7	51.6
1992	60.1	53.3	47	75.6	61.1	79	61.3
1993	62.9	54.9	49.8	78.1	64.4	81.5	62.9
1994	66.9	60.6	54.7	80.0	67.0	84.3	65.0
1995	69.9	62.4	55.9	81.3	69.9	85.9	69.1
1996	73.3	64.2	61.0	82.3	73.4	87.7	72.2
1997	76.6	66.9	65.0	83.6	77.3	88.3	74.8
1998	82.3	73.7	69.2	87.0	83.3	93.2	78.4
1999	83.0	77.1	73.7	88.5	80.8	91.8	79.2
2000	84.9	77.8	74.3	89.8	84.0	89.7	84.9
2001	88.3	81.7	78.0	92.5	89.0	91.8	94.9
2002	90.8	85.7	83.8	95.3	91.4	93.2	94.3
2003	93.9	89.7	86.1	98.7	95.2	96.0	96.5
2004	97.3	97.0	87.1	99	98.2	97.9	97.8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2.2	100.5	99.8	102.7	102.9	101.8	102.0
2007	104.8	103.0	100.2	105.4	105.2	105.9	103.8
2008	109.7	108.2	100.8	108.1	109.7	111.2	105.8
2009	112.8	116.3	101.9	113.6	110.9	116.3	108.1
2010	116.1	123.8	102.3	116.9	113.6	117.3	110.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1.

〈표 5-6〉 소비자물가지수 기본분류지수 II

(2005=100)

연중	교통	통신	교양 및 오락	교육	외식 및 숙박	기타 잡비
품목수	31	13	64	23	43	34
가중치	109	60.2	56.3	110.9	132.7	53.8
1992	46.9	132.8	81.9	42.7	63.2	66.0
1993	50.9	132	85.3	47.2	66.8	68.7
1994	54.8	128.7	87.3	51.7	71.3	71.3
1995	58.2	125.7	90.3	58.6	75.2	73.7
1996	62.3	125.2	93.9	65.6	79.4	78
1997	68.1	121.6	95.2	70.4	82.2	81.3
1998	79.0	121.4	98.9	72.7	86.3	89.4
1999	81.0	120.8	98.7	73.8	85.6	87.8
2000	84.2	118.0	98.0	77.6	86.3	89.0
2001	87.6	114.2	98.1	81.1	87.8	92.6
2002	88.4	109.1	98.8	85.7	90.8	95.7
2003	92.0	103.5	99.5	90.8	94.1	97.8
2004	95.2	101.8	99.7	95.9	97.7	99.4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4.6	98.7	97.9	104.9	101.9	104.9
2007	108.4	96.7	96.4	111.2	103.8	109.2
2008	117.9	95.3	98.0	117.2	108.8	119.1
2009	113.7	95.2	100.3	120.1	113.0	127.9
2010	119.3	94.3	101.2	122.8	115.6	132.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1.

〈표 5-7〉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19.5	20.0	22.6	24.0	25.0	26.5	26.5	25.6
호주	27.7	28.0	30.3	29.8	29.3	29.5	27.1	..
오스트리아	39.7	41.4	43.2	42.4	41.9	42.1	42.7	42.8
벨기에	42.0	43.5	44.7	44.6	44.3	43.8	44.2	43.2
캐나다	35.9	35.6	35.6	33.4	33.3	33.0	32.3	31.1
칠레	17.5	19.0	19.4	21.6	23.2	24.0	22.5	18.2
체코	..	37.6	35.3	37.5	37.0	37.3	36.0	34.8
덴마크	46.5	48.8	49.4	50.8	49.6	49.0	48.2	48.2
핀란드	43.7	45.7	47.2	43.9	43.8	43.0	43.1	43.1
프랑스	42.0	42.9	44.4	43.9	44.0	43.5	43.2	41.9
독일	34.8	37.2	37.2	34.8	35.4	36.0	37.0	37.0
그리스	26.2	28.9	34.0	31.8	31.7	32.3	32.6	29.4
헝가리	..	41.3	38.5	37.4	37.2	39.7	40.2	39.1
아이슬란드	30.9	31.2	37.2	40.6	41.5	40.6	36.8	34.1
아일랜드	33.1	32.5	31.3	30.4	31.8	30.9	28.8	27.8
이스라엘	..	37.0	36.8	35.5	35.9	36.3	33.8	31.4
이탈리아	37.8	40.1	42.2	40.8	42.3	43.4	43.3	43.5
일본	29.0	26.8	27.0	27.4	28.0	28.3	28.1	..
룩셈부르크	35.7	37.1	39.1	37.6	35.6	35.7	35.5	37.5
멕시코	15.8	15.2	16.9	18.1	18.2	17.9	21.0	17.5
네덜란드	42.9	41.5	39.6	38.4	39.1	38.7	39.1	..
뉴질랜드	36.9	36.2	33.2	36.7	36.1	35.1	33.7	31.0
노르웨이	41.0	40.9	42.6	43.5	44.0	43.8	42.6	41.0
폴란드	..	36.2	32.8	33.0	34.0	34.8	34.3	..
포르투갈	26.9	30.9	32.8	33.7	34.4	35.2	35.2	..
슬로바키아	..	..	34.1	31.5	29.4	29.4	29.3	29.3
슬로베니아	..	39.2	37.5	38.6	38.3	37.8	37.2	37.9
스페인	32.5	32.1	34.2	35.7	36.6	37.3	33.3	30.7
스웨덴	52.2	47.5	51.4	48.9	48.3	47.4	46.3	46.4
스위스	25.8	27.7	30.0	29.2	29.3	28.9	29.1	30.3
터키	14.9	16.8	24.2	24.3	24.5	24.1	24.2	24.6
영국	35.5	34.0	36.4	35.7	36.5	36.2	35.7	34.3
미국	27.4	27.8	29.5	27.1	27.9	27.9	26.1	24.0
OECD 전체	33.1	34.4	35.5	35.2	35.4	35.4	34.8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9』, 2010.

〈표 5-8〉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한국	17.5	17.6	18.8	18.9	19.7	21.0	20.7
호주	27.7	28.0	30.3	29.8	29.3	29.5	27.1
오스트리아1	26.6	26.5	28.5	27.8	27.4	27.9	28.4
벨기에	28.0	29.2	30.9	30.9	30.8	30.2	30.2
캐나다	31.5	30.6	30.8	28.4	28.4	28.2	27.6
칠레	16.0	17.8	18.0	20.1	21.8	22.7	21.1
체코	-	22.0	19.7	21.5	20.8	21.1	20.0
덴마크1	45.6	47.7	47.6	49.7	48.6	48.0	47.2
핀란드	32.5	31.6	35.3	31.9	31.6	31.1	31.0
프랑스1	23.5	24.5	28.4	27.7	27.7	27.4	27.1
독일	21.8	22.7	22.7	20.9	21.8	22.8	23.1
그리스1	18.3	19.5	23.6	20.5	20.5	20.6	20.3
헝가리	-	26.6	27.2	25.7	25.2	26.7	27.1
아이슬란드	30.0	28.7	34.4	37.5	38.2	37.6	34.0
아일랜드	28.2	27.8	27.1	25.8	27.2	26.2	23.7
이스라엘	-	31.8	31.4	29.8	30.3	30.8	28.2
이탈리아	25.4	27.5	30.2	28.3	29.8	30.4	29.8
일본	21.3	17.8	17.5	17.3	17.7	18.0	17.3
룩셈부르크	26.0	27.3	29.1	27.1	25.8	25.8	25.5
멕시코	13.7	12.7	14.1	15.2	15.5	15.2	18.3
네덜란드	26.9	24.1	24.2	25.4	25.1	25.3	24.6
뉴질랜드	36.9	36.2	33.2	36.7	36.1	35.1	33.7
노르웨이	30.2	31.3	33.7	34.6	35.2	34.7	33.7
폴란드	-	25.2	19.8	20.7	21.8	22.8	22.9
포르투갈	19.6	21.5	22.9	22.7	23.4	23.9	23.7
슬로바키아	-	-	20.0	18.8	17.7	17.7	17.4
슬로베니아	-	22.4	23.2	24.4	24.3	24.1	23.1
스페인1	21.0	20.5	22.2	23.7	24.6	25.2	21.1
스웨덴	38.0	34.4	37.9	35.8	36.0	35.0	34.8
스위스	19.7	20.2	22.7	22.2	22.5	22.2	22.4
터키	12.0	14.8	19.6	18.8	19.0	18.9	18.2
영국	29.5	28.0	30.2	29.0	29.8	29.5	28.9
미국	20.5	20.9	22.6	20.5	21.3	21.4	19.5
OECD 전체	25.5	25.5	26.6	26.3	26.5	26.6	25.8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9』, 2010.

〈표 5-9〉 사회보장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5		
	피용자	사용자	전체	피용자	사용자	전체	피용자	사용자	전체
한국	1.1	1.0	2.4	1.4	1.6	3.8	2.0	2.1	5.1
호주	-	-	-	-	-	-	-	-	-
오스트리아	6.3	7.3	14.9	6.0	7.1	14.8	5.9	6.8	14.6
벨기에	4.4	8.6	14.3	4.3	8.3	13.9	4.2	8.2	13.6
캐나다	1.8	3.0	5.0	2.0	2.8	4.9	2.0	2.8	5.0
칠레	1.2	0.0	1.2	1.4	0.1	1.4	1.4	0.1	1.4
체코	3.7	10.1	15.5	3.5	10.1	15.6	3.6	10.3	16.1
덴마크	1.1	0.0	1.1	1.8	0.0	1.8	1.1	0.0	1.1
핀란드	2.6	9.9	14.1	2.2	8.8	11.9	2.2	9.0	12.0
프랑스	5.7	11.3	18.4	4.0	11.0	16.0	4.1	11.0	16.2
독일	6.4	7.2	14.5	6.4	7.1	14.5	6.1	6.7	13.9
그리스	3.8	4.3	9.4	4.1	4.9	10.5	4.4	5.1	11.2
헝가리	2.4	11.9	14.7	2.1	9.1	11.3	2.3	9.2	11.7
아이슬랜드	0.1	2.4	2.5	-	-	2.9	-	-	3.2
아일랜드	1.6	2.9	4.7	1.3	2.7	4.2	1.5	2.8	4.6
이스라엘	3.1	1.6	5.2	3.5	1.6	5.4	3.7	1.8	5.7
이탈리아	2.4	8.4	12.6	2.3	8.4	12.1	2.2	8.8	12.5
일본	3.7	4.3	9.0	4.0	4.4	9.5	4.4	4.6	10.1
룩셈부르크	3.9	4.5	9.8	4.5	4.4	10.1	4.4	4.6	10.4
멕시코	-	-	2.5	-	-	2.8	-	-	2.8
네덜란드	11.1	2.8	17.4	7.7	4.5	15.4	6.4	4.1	13.1
뉴질랜드	-	-	-	-	-	-	-	-	-
노르웨이	3.4	5.6	9.6	3.0	5.3	8.9	3.0	5.4	8.9
폴란드	-	-	11.0	5.5	5.7	12.9	4.8	4.9	12.3
포르투갈	3.0	6.0	9.4	3.1	6.4	9.9	3.4	7.1	11.0
슬로바키아	-	-	-	2.9	9.1	14.2	3.0	7.0	12.7
슬로베니아	8.1	8.0	16.8	7.8	5.5	14.2	7.5	5.5	14.2
스페인	1.9	8.0	11.6	1.8	8.7	11.9	1.8	8.8	12.0
스웨덴	1.6	11.2	13.1	2.8	10.5	13.6	2.7	10.2	13.1
스위스	3.5	3.4	7.5	3.4	3.4	7.3	3.3	3.2	7.0
터키	0.8	1.1	2.0	1.6	2.2	4.5	1.9	2.5	5.4
영국	2.5	3.3	6.1	2.5	3.5	6.2	2.8	3.7	6.7
미국	3.0	3.6	6.9	3.1	3.5	6.9	2.9	3.4	6.6
OECD 평균	3.1	5.1	8.9	3.2	5.2	8.9	3.2	5.2	8.9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9』, 2010.

〈표 5-9〉 사회보장부담률 국제비교(계속)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피용자	사용자	전체	피용자	사용자	전체	피용자	사용자	전체
한국	2.2	2.3	5.3	2.2	2.4	5.5	2.4	2.6	5.8
호주	-	-	-	-	-	-	-	-	-
오스트리아	5.8	6.8	14.4	5.8	6.7	14.2	5.8	6.7	14.3
벨기에	4.1	8.2	13.5	4.2	8.2	13.6	4.2	8.4	13.9
캐나다	1.9	2.8	4.9	1.9	2.7	4.8	1.9	2.7	4.8
칠레	1.3	0.1	1.3	1.3	0.1	1.3	1.4	0.1	1.4
체코	3.6	10.2	16.1	3.6	10.2	16.2	3.6	10.2	16.1
덴마크	1.0	0.0	1.0	1.0	0.0	1.0	1.0	0.0	1.0
핀란드	2.4	9.0	12.2	2.3	8.7	11.9	2.2	9.0	12.1
프랑스	4.1	11.1	16.3	4.0	10.9	16.1	4.0	10.9	16.1
독일	6.0	6.5	13.6	5.8	6.3	13.2	6.1	6.5	13.9
그리스	4.4	5.2	11.1	4.5	5.5	11.7	4.7	5.7	12.2
헝가리	2.5	9.2	11.9	3.4	9.4	13.0	3.4	9.4	13.0
아이슬랜드	-	-	3.3	-	-	3.0	-	-	2.8
아일랜드	1.4	3.0	4.6	1.4	3.1	4.7	1.5	3.3	5.1
이스라엘	3.8	1.5	5.6	3.8	1.5	5.5	3.8	1.4	5.6
이탈리아	2.2	8.7	12.5	2.3	8.9	13.0	2.5	9.2	13.5
일본	4.5	4.6	10.2	4.5	4.7	10.3	4.8	5.0	10.9
룩셈부르크	4.4	4.3	9.8	4.5	4.2	9.9	4.6	4.3	10.1
멕시코	-	-	2.7	-	-	2.7	-	-	2.7
네덜란드	6.5	4.6	14.0	6.2	4.5	13.5	6.8	4.9	14.5
뉴질랜드	-	-	-	-	-	-	-	-	-
노르웨이	2.9	5.3	8.7	3.0	5.5	9.1	2.9	5.4	8.9
폴란드	4.9	4.8	12.2	4.8	4.8	12.0	4.6	4.8	11.4
포르투갈	3.3	7.2	11.0	3.4	7.4	11.3	3.4	7.5	11.5
슬로바키아	2.8	6.3	11.7	2.8	6.3	11.7	2.9	6.7	12.0
슬로베니아	7.3	5.4	14.0	7.2	5.3	13.7	7.4	5.5	14.1
스페인	1.8	8.8	12.0	1.8	8.9	12.0	1.8	8.8	12.1
스웨덴	2.6	9.6	12.3	2.6	9.6	12.3	2.7	8.7	11.5
스위스	3.2	3.1	6.8	3.1	3.1	6.7	3.1	3.1	6.7
터키	2.1	2.4	5.5	2.1	2.4	5.2	2.0	3.0	6.1
영국	2.8	3.7	6.8	2.7	3.7	6.7	2.6	3.9	6.8
미국	2.9	3.3	6.6	2.9	3.3	6.5	2.9	3.3	6.5
OECD 평균	3.2	5.1	8.9	3.2	5.1	8.9	3.3	5.2	9.0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9』, 2010.

〈표 5-10〉 국세 · 지방세 비율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한국	77.5	22.5	78.0	22.0	77.0	23.0	78.8	21.2
일본	58.9	41.1	60.0	40.0	59.7	40.3	56.6	43.4
미국	52.1	47.9	54.5	45.5	55.9	44.1	56.1	43.9
영국	94.0	6.0	94.1	5.9	94.3	5.7	94.2	5.8
독일	50.4	49.6	50.8	49.2	50.3	49.7	50.4	49.6
프랑스	79.1	20.9	77.7	22.3	76.9	23.1	75.5	24.5
이탈리아	76.1	23.9	75.9	24.1	77.9	22.1	76.6	23.4
오스트레일리아	69.4	30.6	69.2	30.8	69.0	31.0	81.9	18.1
오스트리아	75.1	24.9	74.9	25.1	74.6	25.4	74.5	25.5
벨기에	53.8	46.2	52.7	47.3	52.2	47.8	68.7	31.3
캐나다	49.2	50.8	48.9	51.1	48.5	51.5	48.7	51.3
체코	77.4	22.6	73.4	26.6	73.7	26.3	73.8	26.2
덴마크	64.5	35.5	66.1	33.9	65.5	34.5	75.1	24.9
핀란드	72.3	27.7	72.2	27.8	71.5	28.5	71.3	28.7
그리스	98.6	1.4	98.7	1.3	98.7	1.3	98.9	1.1
헝가리	91.2	8.8	91.0	9.0	90.7	9.3	90.9	9.1
아이슬란드	77.5	22.5	79.2	20.8	75.8	24.2	75.0	25.0
아일랜드	97.7	2.3	97.5	2.5	97.6	2.4	97.5	2.5
룩셈부르크	93.1	6.9	93.8	6.2	94.0	6.0	93.8	6.2
멕시코	96.3	3.7	96.2	3.8	96.2	3.8	96.0	4.0
네덜란드	93.6	6.4	94.0	6.0	94.7	5.3	99.0	1.0
뉴질랜드	94.5	5.5	94.7	5.3	94.4	5.6	94.2	5.8
노르웨이	86.3	13.7	86.7	13.3	87.4	12.6	87.5	12.5
폴란드	80.2	19.8	81.0	19.0	81.1	18.9	79.5	20.5
포르투갈	91.2	8.8	90.4	9.6	90.7	9.3	90.9	9.1
슬로바키아	91.8	8.2	81.4	18.6	81.2	18.8	81.9	18.1
스페인	53.8	46.2	54.7	45.3	54.8	45.2	55.8	44.2
스웨덴	63.2	36.8	63.6	36.4	63.9	36.1	63.3	36.7
스위스	45.8	54.2	46.4	53.6	46.3	53.7	45.1	54.9
터키	90.8	9.2	90.2	9.8	89.3	10.7	89.3	10.7
OECD 평균	76.5	23.5	76.3	23.7	76.1	23.9	77.4	22.6

자료: 국세청, 『2009 국세통계연보』, 2009.

〈표 5-11〉 세목별 조세지출현황

(단위: 언원)

	2003	2004	2005[4]	2006[4]	2007	2008	2009
합계[1]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9,651	287,827	310,621
직접세계	123,311	131,485	149,236	152,315	166,470	225,030	232,695
소득세	64,291	73,982	80,360	91,114	104,144	154,547	160,593
법인세	58,698	56,948	68,408	60,810	61,925	70,181	71,767
상속·증여세	322	555	468	391	401	302	335
종합부동산세	-	-	0	-	-	-	-
간접세계[2]	50,558	50,274	49,262	58,053	60,466	59,942	74,925
부가가치세	32,628	31,735	30,784	38,033	40,083	39,657	43,741
교통세	10,319	12,416	12,511	12,126	12,359	10,187	10,816
특별소비세	2,679	3,623	3,591	2,589	2,228	4,929	11,061
주세	440	424	531	458	453	538	425
인지세	466	433	454	516	494	103	98
증권거래세	4,026	1,643	1,391	2,002	2,308	2,601	4,670
전화세[3]	-	-	-	-	-	-	-
교육세[5]	-	-	-	2,329	2,541	1,927	4,114
농어촌특별세	-	-	-	-	-	-	-
과년도수입	-	-	-	-	-	-	-
관세[5]	1,211	1,103	1,671	3,012	2,715	2,855	3,001

주: 1) 신고연도기준
2) 2003년부터 관세가 포함된 수치임.
3) 전화세는 2001.9.1일부터 부가가치세로 통합
4)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 2006년 이후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과년도수입이 조세지출항목에 포함됨.
5) 관세는 2000년부터, 교육세는 2006년부터 집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년도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1 조세지출예산서』

제2절 인구, 사회보장

〈표 5-12〉 인구의 연령구조 및 구성비 추이 1990~2050

(단위 : 천명, %)

연도	계	0～14세 인구	구성비	15～64세 인구	구성비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1990	42,869	10,974	25.6	29,701	69.3	2,195	5.1
1995	45,093	10,537	23.4	31,900	70.7	2,657	5.9
2000	47,008	9,911	21.1	33,702	71.7	3,395	7.2
2001	47,357	9,854	20.8	33,925	71.6	3,578	7.6
2002	47,622	9,747	20.5	34,103	71.6	3,772	7.9
2003	47,859	9,606	20.1	34,285	71.6	3,968	8.3
2004	48,039	9,446	19.7	34,428	71.7	4,165	8.7
2005	48,138	9,241	19.2	34,530	71.7	4,367	9.1
2006	48,297	8,996	18.6	34,715	71.9	4,586	9.5
2007	48,456	8,734	18.0	34,912	72.0	4,810	9.9
2008	48,607	8,458	17.4	35,133	72.3	5,016	10.3
2009	48,747	8,180	16.8	35,374	72.6	5,193	10.7
2010	48,875	7,907	16.2	35,611	72.9	5,357	11.0
2015	49,277	6,733	13.7	36,163	73.4	6,380	12.9
2020	49,326	6,118	12.4	35,506	72.0	7,701	15.6
2025	49,108	5,778	11.8	33,562	68.3	9,768	19.9
2030	48,635	5,525	11.4	31,299	64.4	11,811	24.3
2035	47,734	5,231	11.0	28,954	60.7	13,549	28.4
2040	46,343	4,777	10.3	26,525	57.2	15,040	32.5
2045	44,521	4,220	9.5	24,503	55.0	15,798	35.5
2050	42,343	3,763	8.9	22,424	53.0	16,156	38.2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 2010.

〈표 5-13〉 인구의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1990~2050

(단위 : %)

연도	부양비			노령화지수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1990	44.3	36.9	7.4	20.0
1995	41.4	33.0	8.3	25.2
2000	39.5	29.4	10.1	34.3
2001	39.6	29.0	10.5	36.3
2002	39.6	28.6	11.1	38.7
2003	39.6	28.0	11.6	41.3
2004	39.5	27.4	12.1	44.1
2005	39.4	26.8	12.6	47.3
2006	39.1	25.9	13.2	51.0
2007	38.8	25.0	13.8	55.1
2008	38.4	24.1	14.3	59.3
2009	37.8	23.1	14.7	63.5
2010	37.2	22.2	15.0	67.7
2015	36.3	18.6	17.6	94.8
2020	38.9	17.2	21.7	125.9
2025	46.3	17.2	29.1	169.1
2030	55.4	17.7	37.7	213.8
2035	64.9	18.1	46.8	259.0
2040	74.7	18.0	56.7	314.8
2045	81.7	17.2	64.5	374.3
2050	88.8	16.8	72.0	429.3

자료: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표 5-14〉 기대연령 및 평균연령 추이: 1991~2050

(단위: 세)

연도	기대연령 (세)				평균연령 (세)			
	계	남자 (A)	여자 (B)	차이 (B-A)	계	남자 (A)	여자 (B)	차이 (B-A)
1991	71.72	67.74	75.92	8.18	29.9	28.8	30.9	2.1
1992	72.21	68.22	76.38	8.16	30.2	29.1	31.3	2.2
1993	72.81	68.76	76.80	8.04	30.5	29.4	31.6	2.2
1994	73.17	69.17	77.11	7.94	30.9	29.8	32.0	2.2
1995	73.53	69.57	77.41	7.84	31.2	30.1	32.3	2.2
1996	73.96	70.08	77.77	7.69	31.6	30.4	32.7	2.3
1997	74.39	70.56	78.12	7.56	31.9	30.8	33.1	2.3
1998	74.82	71.09	78.45	7.36	32.3	31.1	33.4	2.3
1999	75.55	71.71	79.22	7.51	32.7	31.5	33.8	2.3
2000	76.02	72.25	79.60	7.35	33.1	31.9	34.3	2.3
2001	76.53	72.82	80.04	7.22	33.5	32.3	34.7	2.3
2002	77.02	73.40	80.45	7.05	34.0	32.8	35.2	2.3
2003	77.44	73.86	80.81	6.95	34.5	33.3	35.6	2.3
2004	78.04	74.51	81.35	6.84	35.0	33.8	36.1	2.4
2005	78.63	75.14	81.89	6.75	35.5	34.3	36.6	2.3
2006	79.18	75.74	82.36	6.62	36.0	34.8	37.2	2.4
2007	79.56	76.13	82.73	6.60	36.5	35.3	37.7	2.4
2008	80.08	76.54	83.29	6.75	37.0	35.8	38.2	2.4
2009	-	-	-	-	37.5	36.3	38.7	2.4
2010	79.60	76.15	82.88	6.73	38.0	36.8	39.2	2.4
2015	80.55	77.11	83.80	6.69	40.4	39.2	41.6	2.4
2020	81.45	78.04	84.68	6.63	42.7	41.4	43.9	2.5
2025	82.31	78.93	85.50	6.57	44.8	43.5	46.1	2.6
2030	83.13	79.79	86.27	6.48	46.7	45.4	48.1	2.7
2035	83.91	80.60	86.99	6.39	48.6	47.2	50.0	2.8
2040	84.65	81.39	87.67	6.28	50.4	48.9	51.9	3.0
2045	85.35	82.15	88.31	6.17	52.1	50.4	53.7	3.2
2050	86.02	82.87	88.92	6.05	53.4	51.7	55.0	3.4

자료: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표 5-15〉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 출산율: 1991~2010

(단위: %)

연도	연령별 출산율[1]							합계 출산율[2]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91	4.3	84.8	186.2	58.8	10.8	1.5	0.2	1.74
1992	4.7	82.8	188.9	65.1	12.6	1.8	0.2	1.78
1993	4.4	72.7	178.8	64.2	13.8	2.0	0.2	1.67
1994	4.0	66.0	179.6	68.0	14.7	2.2	0.2	1.67
1995	3.6	62.9	177.1	69.6	15.2	2.3	0.2	1.65
1996	3.3	58.8	167.6	71.1	15.5	2.4	0.2	1.58
1997	3.0	54.2	159.7	71.5	15.4	2.3	0.2	1.52
1998	2.8	48.3	152.1	71.2	15.2	2.3	0.2	1.45
1999	2.6	43.3	147.2	72.3	15.3	2.4	0.2	1.41
2000	2.5	38.8	149.6	83.5	17.2	2.5	0.2	1.47
2001	2.2	31.4	129.2	77.5	17.0	2.4	0.2	1.30
2002	2.6	26.5	110.9	74.5	16.6	2.4	0.2	1.17
2003	2.5	23.6	111.7	79.1	17.1	2.4	0.2	1.18
2004	2.3	20.6	104.5	83.2	18.2	2.4	0.2	1.15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1.08
2006	2.2	17.6	89.4	89.4	21.2	2.6	0.2	1.12
2007	2.2	19.5	95.5	101.3	25.6	3.1	0.2	1.25
2008	1.7	18.2	85.6	101.5	26.5	3.2	0.2	1.19
2009	1.7	16.5	80.4	100.8	27.3	3.4	0.2	1.15
2010p	1.5	16.2	79.8	112.7	32.6	4.1	0.2	1.22

주: 1) 15-49세 여자 천명당 출산율임.
2) 15-49세 여자 1명당 평균 출생아수임.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10.

〈표 5-16〉 기초보장수급자 현황 - 수급자 종류별, 시·도별

(단위: 가구, 명)

시·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01년	698,075	1,419,995	698,075	1,345,526	74,469
2002년	691,018	1,351,185	691,018	1,275,625	75,560
2003년	717,861	1,374,405	717,861	1,292,690	81,715
2004년	753,681	1,424,088	753,681	1,337,714	86,374
2005년	809,745	1,513,352	809,745	1,425,684	87,668
2006년	831,692	1,534,950	831,692	1,449,832	85,118
2007년	852,420	1,549,848	852,420	1,463,140	86,708
2008년	854,205	1,529,939	854,205	1,444,010	85,929
2009년	882,925	1,568,533	882,925	1,482,719	85,814
2010년	878,799	1,549,820	878,799	1,458,198	91,622
서 울	122,745	214,256	122,745	201,204	13,052
부 산	84,620	145,198	84,620	138,317	6,881
대 구	56,954	108,586	56,954	102,710	5,876
인 천	40,817	73,749	40,817	69,939	3,810
광 주	32,484	65,821	32,484	62,714	3,107
대 전	25,118	48,338	25,118	45,227	3,111
울 산	11,340	18,851	11,340	17,802	1,049
경 기	122,783	209,175	122,783	196,412	12,763
강 원	38,876	66,503	38,876	62,850	3,653
충 북	31,982	57,408	31,982	51,817	5,591
충 남	41,587	72,989	41,587	67,657	5,332
전 북	60,353	110,894	60,353	105,192	5,702
전 남	61,352	106,210	61,352	100,085	6,125
경 북	72,155	122,450	72,155	115,433	7,017
경 남	63,004	104,797	63,004	98,419	6,378
제 주	12,629	24,595	12,629	22,420	2,175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1.

〈표 5-17〉 기초보장 일반수급가구 가구원수별 현황

(단위: 가구)

시·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2001년	698,075	353,437	149,106	105,980	62,126	19,966	5,492	1,968
2002년	691,018	371,166	144,295	98,189	54,151	16,865	4,624	1,728
2003년	717,861	399,220	146,655	98,532	51,997	15,636	4,248	1,573
2004년	753,681	426,701	152,454	101,200	52,094	15,516	4,153	1,563
2005년	809,745	463,181	161,044	108,067	55,050	16,444	4,304	1,655
2006년	831,692	482,842	163,478	108,631	54,510	16,269	4,278	1,684
2007년	852,420	511,975	164,300	104,564	50,843	15,111	4,061	1,566
2008년	854,205	525,078	160918	100546	47698	14555	3888	1522
2009년	882,925	547,931	164,856	101,774	48,047	14,798	3,923	1,596
2010년	878,799	549,341	163,983	99,248	46,424	14,373	3,840	1,590
서 울	122,745	77,730	21,963	14,091	6,574	1,819	410	158
부 산	84,620	53,277	15,676	9,924	4,293	1,126	238	86
대 구	56,954	31,244	11,518	9,021	3,889	1,004	212	66
인 천	40,817	24,208	7,980	5,373	2,337	718	140	61
광 주	32,484	16,878	6,182	5,352	2,769	985	233	85
대 전	25,118	14,253	4,862	3,556	1,714	517	158	58
울 산	11,340	7,655	1,846	1,104	518	162	39	16
경 기	122,783	80,215	21,619	12,670	5,875	1,702	475	227
강 원	38,876	24,878	7,554	3,856	1,762	579	164	83
충 북	31,982	20,435	6,172	3,212	1,484	479	126	74
충 남	41,587	26,730	7,908	4,001	1,955	669	220	104
전 북	60,353	36,008	11,823	6,931	3,670	1,296	439	186
전 남	61,352	39,255	11,932	5,617	2,888	1,140	376	144
경 북	72,155	46,635	13,794	7,189	3,114	1,044	277	102
경 남	63,004	42,414	10,880	5,830	2,755	811	223	91
제 주	12,629	7,526	2,274	1,521	827	322	110	49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1.

〈표 5-18〉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1991~2010

(단위: 명)

연도	총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기타
1991	224,025	144,080	15,720	30,373	33,852	-
1995	324,860	220,723	21,488	36,655	45,994	-
1996	362,475	248,690	23,507	38,465	51,813	-
1997	425,064	294,419	27,211	43,875	59,559	
1998	527,250	371,328	34,548	52,501	68,873	-
1999	697,513	502,647	46,957	67,890	80,019	-
2000	958,196	606,422	90,997	87,387	86,793	86,597
2001	1,134,177	682,325	115,911	105,711	94,951	135,279
2002	1,294,254	754,651	135,704	123,823	103,640	176,436
2003	1,454,215	813,916	152,857	139,325	112,043	236,074
2004	1,610,994	883,296	170,107	155,382	119,207	283,002
2005	1,789,443	965,014	189,933	175,587	127,881	331,028
2006	1,967,326	1,049,396	196,507	205,155	137,596	378,672
2007	2,104,889	1,114,094	216,881	218,206	142,589	413,119
2008	2,246,965	1,191,013	228,126	238,560	146,898	442,368
2009	2,429,547	1,293,331	241,237	262,050	154,953	477,976
2010	2,517,312	1,337,722	249,259	277,610	161,249	491,472

주: 1) 년도말 기준임.
2)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에 대한 장애인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수

〈표 5-19〉 공적연금 가입자 현황: 1991～2001

(단위: 명)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별정연금
1991	4,768,536	884,648	159,295	--	5,020
1992	5,021,159	922,098	165,334	--	5,145
1993	5,159,868	939,674	171,095	--	5,205
1994	5,444,818	948,151	173,933	--	5,189
1995	7,496,623	957,882	181,128	--	5,203
1996	7,829,353	971,303	191,949	--	5,166
1997	7,835,878	981,759	202,981	--	5,204
1998	7,126,307	952,154	206,278	--	5,169
1999	16,261,889	913,891	207,664	--	5,013
2000	16,209,581	909,155	210,864	--	4,913
2001	16,277,826	913,192	216,362	--	4,839
2002	16,498,932	930,835	220,874	--	4,853
2003	17,181,778	947,616	225,354	--	4,838
2004	17,070,217	964,593	229,926	--	4,727
2005	17,124,449	986,339	236,726	--	4,566
2006	17,739,939	1,009,145	245,520	--	4,426
2007	18,266,742	1,021,771	250,652	--	4,319
2008	18,335,409	1,030,256	256,840	--	4,289
2009	18,623,845	1,047,897	261,608	--	4,189
2010	19,228,875	1,052,407	267,481	--	4,089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5-20〉 공적연금 수급권자수: 1991～2001

(단위: 명)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별정 연금
1991	383,251	29,719	1,705	40,369	-
1992	493,217	34,333	2,103	41,892	3
1993	584,206	40,849	2,674	43,953	12
1994	847,199	48,016	3,370	44,500	28
1995	878,102	56,343	3,950	47,471	40
1996	945,848	63,693	4,618	49,321	59
1997	987,888	72,889	5,141	50,137	91
1998	1,268,984	89,322	6,412	51,687	113
1999	1,254,621	128,940	10,550	53,534	183
2000	933,720	150,463	13,382	55,418	248
2001	955,803	160,721	14,639	57,380	284
2002	1,059,365	169,915	16,059	59,061	353
2003	1,177,378	181,726	17,900	60,892	432
2004	1,541,630	195,310	20,017	62,679	516
2005	1,766,589	218,006	22,206	64,577	601
2006	1,995,984	236,274	24,706	66,030	685
2007	2,256,912	255,565	27,816	68,044	774
2008	2,534,114	279,766	31,325	70,259	889
2009	2,787,091	293,096	34,137	72,934	963
2010	2,992,458	311,429	37,381	75,677	1,039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5-21〉 공적연금 총급여비: 1991～2010

(단위: 백만원)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별정 연금
1991	110,882	238,111	132,035	449,394	1,705
1992	216,541	316,165	182,091	577,522	2,967
1993	333,131	416,129	211,771	677,183	3,241
1994	519,074	534,765	324,472	728,839	7,178
1995	755,460	662,345	324,637	822,949	8,630
1996	1,117,645	792,287	344,462	871,684	9,742
1997	1,485,530	2,794,814	399,928	856,121	10,198
1998	2,439,729	5,033,060	556,572	934,173	18,879
1999	3,871,969	7,293,799	893,688	1,001,395	23,257
2000	1,607,035	4,360,993	664,297	1,042,858	18,745
2001	1,569,257	3,493,543	565,294	1,113,834	12,386
2002	1,915,255	3,615,004	657,692	1,212,375	14,712
2003	2,328,449	4,463,474	775,875	1,421,291	18,204
2004	2,914,045	4,981,325	869,537	1,520,886	17,272
2005	3,584,901	5,945,195	983,028	1,607,540	19,652
2006	4,360,239	6,220,571	1,057,247	1,674,177	19,636
2007	5,182,611	6,855,769	1,220,799	1,806,500	22,175
2008	6,180,804	7,876,958	1,372,274	1,931,991	25,077
2009	7,471,934	7,684,817	1,418,842	2,056,661	24,365
2010	8,635,467	8,482,085	1,577,136	2,205,889	27,786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5-22〉 국민연금 가입자수 -가입형태별, 시·도별 I

(단위: 개소, 명)

구분	총 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2002	16,498,932	287,092	6,288,014	5,754,340	4,250,449	26,899	179,230
2003	17,181,778	423,032	6,958,794	5,399,355	4,564,879	23,983	234,767
2004	17,070,217	573,727	7,580,649	4,729,503	4,683,063	21,752	55,250
2005	17,124,449	646,805	7,950,493	4,489,216	4,634,459	26,568	23,713
2006	17,739,939	773,862	8,604,823	4,150,416	4,935,952	26,991	21,757
2007	18,266,742	856,178	9,149,209	3,956,340	5,106,803	27,242	27,148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3,755,980	5,025,50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3,627,597	5,052,264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3,574,709	5,099,783	90,222	49,381
서울	5,672,819	278,183	3,709,578	694,998	1,230,343	25,467	12,433
부산	1,221,051	66,161	550,313	257,307	403,706	6,326	3,399
대구	802,130	43,815	347,702	190,281	256,974	4,763	2,410
인천	956,527	52,476	457,327	186,925	306,120	4,235	1,920
광주	446,924	24,153	206,949	100,500	135,212	2,847	1,416
대전	511,454	25,670	257,509	104,370	144,990	3,470	1,115
울산	396,901	17,894	231,954	66,703	96,309	1,375	560
경기	4,102,986	243,967	2,116,316	795,437	1,159,087	23,418	8,728
강원	456,515	27,555	196,255	114,254	142,715	2,014	1,277
충북	520,011	28,819	269,473	113,381	133,462	2,234	1,461
충남	713,834	38,002	372,871	159,839	176,439	2,256	2,429
전북	556,018	32,228	242,495	142,361	165,580	2,436	3,146
전남	576,240	32,160	257,272	149,840	164,182	2,030	2,916
경북	929,128	47,298	483,710	207,199	232,623	3,103	2,493
경남	1,178,238	61,978	634,365	244,530	292,707	3,830	2,806
제주	188,099	10,999	80,691	46,784	59,334	418	872

자료: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5-23〉 국민연금 급여 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 I

(단위: 명, 건, 천원)

연도	계		노령 연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1,263,593	2,439,728,567	112,946	171,424,527
1999	1,249,257	3,871,969,097	175,572	299,592,241
2000	927,545	1,607,034,932	482,042	651,367,677
2001	948,164	1,569,256,860	602,197	973,629,644
2002	1,052,327	1,915,254,978	717,488	1,254,729,855
2003	1,169,441	2,328,449,084	819,800	1,533,339,190
2004	1,533,059	2,914,014,770	1,156,098	1,987,450,647
2005	1,757,674	3,584,900,642	1,349,626	2,531,536,045
2006	1,985,502	4,360,238,974	1,517,649	3,103,160,541
2007	2,244,477	5,182,610,821	1,731,560	3,857,708,922
2008	2,517,579	6,180,803,696	1,949,867	4,765,527,612
2009	2,770,344	7,471,933,936	2,149,168	5,814,824,736
2010	2,975,336	8,635,467,327	2,330,128	6,861,876,308
서 울	558,575	1,840,189,096	445,628	1,474,159,940
부 산	239,540	736,921,081	188,863	597,152,842
대 구	144,566	411,691,136	113,430	328,809,044
인 천	132,796	411,595,145	100,405	318,543,588
광 주	72,744	201,909,810	56,982	160,338,055
대 전	68,930	206,612,784	53,699	165,410,324
울 산	54,864	204,091,772	41,422	163,114,370
경 기	542,518	1,692,273,187	417,121	1,318,902,168
강 원	102,719	269,767,753	79,903	214,260,718
충 북	97,289	256,641,479	75,403	203,197,411
충 남	145,027	355,088,874	113,867	281,487,131
전 북	147,229	347,441,699	117,840	279,581,553
전 남	184,166	415,953,191	146,768	333,634,517
경 북	229,627	592,908,813	182,342	479,301,033
경 남	216,016	589,837,654	165,452	461,652,946
제 주	38,730	102,543,853	31,003	82,330,668

주: 수급자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이며, 건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수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010국민연금통계연보』, 2011.

〈표 5-24〉 국민연금 급여 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 II

(단위: 명, 건, 천원)

연도	장애 연금			
	연금		일시보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13,245	31,367,950	1,625	6,727,307
1999	16,906	45,739,771	1,944	11,887,377
2000	21,914	70,098,235	2,170	15,799,154
2001	27,456	83,583,377	2,469	18,285,821
2002	32,876	103,849,013	2,194	16,418,591
2003	39,727	131,920,812	2,853	21,977,723
2004	47,260	163,629,119	3,609	29,297,315
2005	54,467	193,930,965	4,147	35,713,586
2006	61,762	225,607,063	4,898	44,239,536
2007	67,091	245,877,485	5,167	48,325,466
2008	72,166	268,100,552	4,902	47,920,508
2009	74,535	287,016,089	3,836	40,940,200
2010	76,280	296,304,705	3,447	37,299,185
서 울	12,274	52,564,354	595	7,128,643
부 산	6,297	23,899,860	329	3,458,192
대 구	4,106	15,674,649	219	1,957,996
인 천	4,439	16,568,291	211	2,124,662
광 주	2,034	7,651,961	83	876,471
대 전	1,917	7,309,162	84	929,605
울 산	2,078	8,032,587	94	1,287,421
경 기	15,888	62,700,881	739	8,133,424
강 원	2,828	10,197,786	88	934,320
충 북	2,452	9,187,853	87	823,201
충 남	3,243	12,198,446	126	1,331,523
전 북	3,146	11,550,412	122	1,250,620
전 남	3,202	12,189,862	133	1,283,228
경 북	5,064	19,598,450	209	2,206,230
경 남	6,493	23,655,990	290	3,080,828
제 주	819	3,324,161	38	492,82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010국민연금통계연보』, 2011.

〈표 5-25〉 국민연금 급여 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III

(단위: 명, 건, 천원)

연도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71,677	100,134,390	1,061,643	2,126,220,936	2,457	3,853,458
1999	89,929	132,018,371	962,578	3,378,751,585	2,328	3,979,753
2000	114,276	203,051,882	304,127	662,419,679	3,016	4,298,305
2001	140,915	243,929,303	170,542	243,444,500	4,585	6,384,217
2002	166,266	293,950,328	129,239	238,684,803	4,264	7,622,389
2003	192,887	352,651,252	108,740	278,232,520	5,434	10,327,587
2004	220,725	417,886,255	99,750	303,193,832	5,617	12,557,603
2005	247,588	484,576,517	96,078	324,884,938	5,768	14,258,591
2006	279,358	570,601,184	115,394	400,673,755	6,441	15,956,895
2007	311,868	645,401,195	121,200	368,373,558	7,591	16,924,195
2008	344,593	731,357,801	137,654	348,026,409	8,397	19,870,814
2009	378,927	844,649,421	154,119	460,476,121	9,759	24,027,369
2010	414,241	949,238,982	141,347	465,122,763	9,893	25,625,384
서 울	64,373	166,118,659	33,939	135,428,766	1,766	4,788,734
부 산	32,585	77,791,104	10,669	32,529,488	797	2,089,595
대 구	20,339	47,242,466	6,003	16,883,314	469	1,123,667
인 천	18,538	44,330,231	8,623	28,444,807	580	1,583,566
광 주	10,268	23,406,537	3,134	8,985,891	243	650,895
대 전	9,485	22,353,813	3,418	9,842,293	327	767,587
울 산	8,377	21,950,831	2,712	9,208,205	181	498,358
경 기	73,112	176,230,265	33,560	120,899,020	2,098	5,407,429
강 원	15,895	34,003,171	3,647	9,405,553	358	966,205
충 북	15,114	32,755,787	3,903	9,894,862	330	782,365
충 남	21,634	43,674,837	5,688	15,281,233	469	1,115,704
전 북	20,777	41,751,751	5,011	12,490,991	333	816,372
전 남	28,810	56,236,309	4,798	11,462,858	455	1,146,417
경 북	35,011	73,576,673	6,328	16,451,002	673	1,775,425
경 남	34,422	75,294,984	8,643	24,265,557	716	1,887,349
제 주	5,501	12,521,564	1,271	3,648,923	98	225,717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010국민연금통계연보』, 2011.

〈표 5-26〉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1995~2010

(단위: 천명)

구분	의료 보장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계	직장 소계	지역 소계	계	1종	2종
1995	45,429	44,016	21,559	22,457	1,413	498	915
2000	47,466	45,896	22,404	23,492	1,570	811	759
2001	47,882	46,379	23,167	23,213	1,503	832	671
2002	48,080	46,659	23,752	22,908	1,421	829	592
2003	48,557	47,103	24,834	22,269	1,454	867	586
2004	48,901	47,372	25,979	21,393	1,529	919	610
2005	49,154	47,392	27,233	20,159	1,762	996	765
2006	49,238	47,410	28,445	18,965	1,829	1,029	800
2007	49,672	47,820	29,424	18,395	1,853	1,062	790
2008	50,001	48,160	30,417	17,743	1,841	1,025	816
2009	50,291	48,614	31,413	17,201	1,677	1,036	641
2010	50,581	48,907	32,384	16,523	1,674	1,072	603

주: 연도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2011.

〈표 5-27〉 1종 의료급여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2003～2010

(단위: 명, 일)

구분	대상자 (연말)	외래[1]		입원[1]	
		실인원[2]	진료일수	실인원[2]	진료일수
2003	867,305	851,145	59,137,809	224,776	18,893,954
2004	919,181	896,156	66,158,466	247,407	22,016,535
2005	996,449	975,540	73,990,010	280,868	25,425,798
2006	1,028,536	1,048,031	83,728,243	303,477	28,541,248
2007	1,062,263	1,093,503	85,071,827	320,685	30,286,020
2008	1,024,848	1,111,618[2]	87,806,881	333,263[2]	33,163,917
2009	1,036,291	1,096,288	93,583,880	339,653	34,564,111
2010	1,071,686	1,091,097	96,757,785	340,766	36,009,327
서울	150,056	163,517	13,504,832	42,154	3,776,607
부산	98,404	102,931	8,584,880	35,444	4,032,984
대구	62,276	65,946	5,952,117	19,763	2,015,865
인천	50,330	53,529	4,171,278	14,818	1,336,004
광주	38,055	40,753	3,142,985	11,787	1,115,088
대전	30,860	33,200	3,065,228	9,320	846,044
울산	13,288	13,879	1,030,932	5,341	644,126
경기	159,762	170,027	13,892,870	49,263	4,803,190
강원	47,526	49,772	4,023,484	15,244	1,325,796
충북	43,301	45,480	5,087,110	14,126	1,431,817
충남	53,526	55,975	5,216,707	17,316	1,811,987
전북	69,972	74,150	6,336,671	24,704	2,397,690
전남	75,513	78,400	7,085,616	28,250	2,845,776
경북	84,435	86,913	7,471,011	29,819	3,479,120
경남	79,411	95,695	6,915,388	33,525	3,784,383
제주	14,971	15,852	1,276,676	4,484	362,85

주: 1) 진료비지급년도 기준 인원임.
2) 동일 수급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은 경우 각 시·도별 실인원으로 각각 집계되므로 시·도별 실인원 합계는 실인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5-28〉 2종 의료급여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2003～2010

(단위: 명, 일)

구분	대상자 (연말)	외래[1]		입원[1]	
		실인원[2]	진료일수	실인원[2]	진료일수
2003	586,481	601,421	16,102,823	64,343	2,712,552
2004	609,662	609,071	17,098,109	66,053	2,996,870
2005	765,116	739,477	21,012,866	85,787	4,039,519
2006	800,091	841,042	26,037,521	102,780	5,162,905
2007	790,451	854,285	26,507,871	107,026	5,662,097
2008	816,491	860,289[2]	27,628,604	112,930	6,298,211
2009	640,946	876,452	25,693,624	107,887	4,932,310
2010	602,710	671,988	22,500,445	85,484	3,898,009
서울	82,801	93,548	3,287,070	9,476	450,589
부산	56,605	64,302	2,150,209	8,048	390,021
대구	53,823	58,380	1,832,589	6,080	261,024
인천	28,204	31,492	1,004,571	3,450	146,633
광주	36,785	39,534	1,154,135	5,560	218,910
대전	21,539	25,173	865,229	2,440	99,923
울산	6,935	8,222	268,376	1,124	57,020
경기	69,052	80,404	2,654,635	9,338	438,793
강원	24,378	27,249	872,733	3,795	166,645
충북	19,148	21,676	751,737	2,758	122,273
충남	24,746	27,745	980,987	3,568	161,128
전북	48,275	53,693	1,797,110	7,690	312,954
전남	40,677	45,787	1,643,233	8,503	415,204
경북	45,613	50,514	1,657,942	6,652	323,224
경남	33,141	38,874	1,198,635	5,888	274,964
제주	10,988	11,977	381,254	1,493	58,704

주: 1) 진료비지급년도 기준 인원임.
2) 동일 수급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은 경우 각 시도별 실인원으로 각각 집계되므로 시도별 실인원 합계는 실인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5-29〉 건강보험 급여실적-급여종류별

(단위: 건, 천원)

구분		총계	현물급여	현금급여
1990	건수	143,875,743	143,734,373	141,370
	금액	1,941,631,809	1,928,028,844	13,602,965
1995	건수	259,374,515	259,153,128	221,387
	금액	4,082,772,411	4,027,976,590	54,795,821
2000	건수	410,054,045	409,576,744	477,301
	금액	9,041,796,423	8,902,607,192	139,189,231
2004	건수	663,989,391	663,601,003	388,388
	금액	16,429,343,724	16,318,530,564	110,813,160
2005	건수	807,672,976	807,199,950	473,026
	금액	18,365,867,984	18,224,137,660	141,730,324
2006	건수	850,519,792	850,027,476	492,316
	금액	21,439,173,304	21,288,988,919	150,184,385
2007	건수	977,901,150	977,339,260	561,890
	금액	24,575,497,358	24,382,996,474	192,500,884
2008	건수	1,128,549,688	1,127,876,715	672,973
	금액	26,379,762,836	26,165,917,092	213,845,742
2009	건수	1,210,429,077	1,209,833,052	596,025
	금액	29,941,116,733	29,641,549,529	299,567,204
2010	건수	1,255,867,198	1,255,244,478	622,720
	금액	33,796,245,506	33,299,344,893	496,900,613

주: 1) 지급기준이며,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비,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 임신·출산 진료비가 포함됨
2) 본인부담상한제는 금액은 2004.7.1신설, 사전지급은 요양급여비에 포함 사후환급은 현금급여로 구분
3) 가정산소(2007년 신설), 출산비는 요양비에 포함됨
4) 장제비는 2008.1.1 폐지
5)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12.15 신설(예탁금 형식으로 지급건수 산출불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2011.

〈표 5-3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계	191,501	77	228,568	77	239,332	77.2	262,993	78.3
기초생활보장	72,644	29	79,731	27	72,865	23.5	75,168	22.4
취약계층지원	8,430	3	9,333	3	8,933	2.9	10,512	3.1
공적연금	68,694	28	81,732	28	95,811	30.9	109,106	32.5
보육가족 및 여성	15,978	6	18,573	6	22,022	7.1	25,600	7.6
노인·청소년	22,058	9	32,812	11	35,166	11.3	37,306	11.1
사회복지 일반	3,697	1	6,387	2	4,535	1.5	5,301	1.6

자료: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제2부 빈곤유형별 빈곤

06

근로빈곤

제6장 근로빈곤

이병희

제1절 근로빈곤의 정의 및 쟁점

1. 머리말

근로빈곤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으며, 정책적 지향과 연구 목적, 활용 자료의 정보 범위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활용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소개 및 적용은 노대명 외(2004, 2007), 홍경준(2005), 최옥금(2008)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에 기초하여 쟁점을 부각하고, 활용 자료의 성격을 고려한 근로빈곤율 추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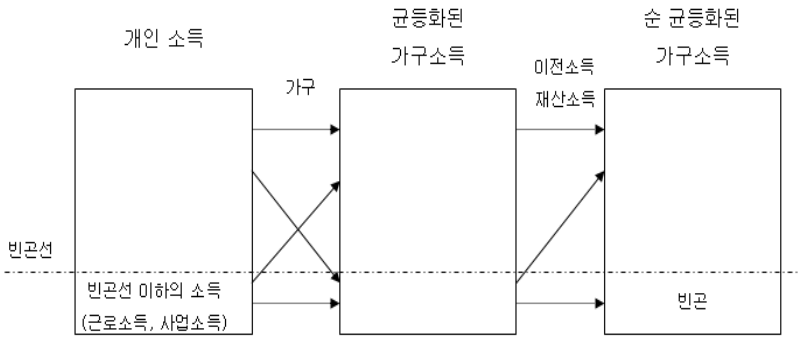
2. 외국의 근로빈곤 정의와 쟁점

근로빈곤은 가구 단위의 '빈곤'과 개인 단위의 '근로'가 결합된 현상이지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정책적 초점은 달라진다.

첫째 쟁점은 근로빈곤 측정 단위를 가구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이다. Strengmann-Kuhn(2002)에 따르면, 취업자가 근로빈곤에

놓이는 상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취업자 본인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고(poverty wage),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나 이전소득·재산소득에 의해서도 빈곤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근로빈곤의 주된 요인은 낮은 근로소득이다. 둘째, 취업자 본인의 소득이 빈곤선을 상회하더라도 가구 규모를 고려하여 균등화한 가구 소득이 빈곤선을 하회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가구 특성이나 가구내 노동공급이 빈곤의 주된 요인이 된다.

〔그림 6-1〕 근로빈곤 가구에서 개인 근로소득과 가구 빈곤간 관계



자료: Strengmann-Kuhn(2002)

즉, 근로빈곤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가구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정의하여야 하지만, 측정 단위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정책적인 강조는 달라진다(Bardone and Guio, (2005).

근로빈곤을 가구 단위로 정의하는 예는 가구주가 근로연령(18~65세)이면서 한 명 이상의 취업자가 있는 빈곤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으로 정의하는 OECD(2008, 2009)에서 찾을 수 있다. 가구 단위의 접근(household-based approach)은 아동·장애인 등 요보호자가 필요한 가구의 특성이나 가구의 노동공급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구 단위의 근로빈곤 정의는 취업 촉진 우선 정책이나 가구내 취업자수 증가 정책이라는 지향을 강하게 띤다. 개인 단위의 근로빈곤 정의에 비해 취업자가 없던 가구에서 취업자가 생기면, 취업에 따른 빈곤 탈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취업 촉진 우선 정책의 근거가 되며, 한 명의 성인만 일하는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많으면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은 가구내 취업자수 증가 정책의 근거가 된다.[5)]

반면 개인 단위의 접근(individual-based approach)에서 근로빈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경험에 주목한다. 개인 단위로 정의할 경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만으로 빈곤선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를 낮은 임금률, 적은 근로시간, 반복적인 실직 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6)] 가구 구성이나 가구내 노동공급 등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요인들은 개인의 근로빈곤 위험에 영향을 미칠 때만 고려하게 된다. 개인 단위의 접근은 취업이 빈곤 위험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이지만 취업만으로 빈곤을 탈출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밝히는데 유효하다.

둘째 쟁점은 가구 빈곤에 대한 정의이다. 가구 빈곤 판별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①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소득과 소비 가운데 어느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② 소득 빈곤으로 한정할 때,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가운데 어떤 소득을 사용할 것인지, ③ 빈곤선을 절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 기준으로 할 것인지, ④ 가

5) 그러나 일하는 가구원수 증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지는 논란이 있다. 이병희(2010)는 저소득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중상위 소득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 가구내에서 자구적인 근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자영(2010)은 부부 가구에서 여성의 취업은 빈곤 감소 효과가 있지만, 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근로빈곤 확률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6) Crettaz and Bonoli(2010), 이병희(2010)는 근로빈곤의 발생 원인을 개인 단위의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구 욕구의 차이를 고려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 단위로 근로빈곤을 정의할 때에도 새롭게 제기되는 세 번째 쟁점은 개인의 '근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이다.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근로빈곤의 정의를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Pena-Casas and Latta(2004)에 따르면, '근로'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취업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경제활동인구(미국, 프랑스, 호주)로 확장하거나 취업자에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연간 취업기간(미국, 프랑스), 근로시간, 연간 가구원들의 총 근로시간 등의 다양한 취업강도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표 6-1 참조).

〈표 6-1〉 각 나라(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기관/자료	노동에 대한 정의	빈곤에 대한 정의
EU	- Eurostat	- 주당 15시간 이상 취업자 - 연간 7월 이상 취업자[1)]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 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프랑스	- 통계청(INSEE) - 일반 연구자 -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SI)	- 연간 6월 이상 취업/구직자 - 연간 6월 이상 취업 - 연간 1월 이상 취업 경험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 소득의 50% 미만(때로 60~70%)(상대소득빈곤)
벨기에	-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SI)	- 연간 6월 이상 취업/구직자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 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스위스	- 연방통계청 - 일반 연구자	- 근로시간과 무관한 전 경활인구 - 전일제 근로자 - 주당 40시간 이상 영리활동자	- 행정적 빈곤선*
미국	- 통계국(CB)	- 가구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1,750시간(44주) 이상	- 연방빈곤선(FPL) (절대빈곤선)
	- 노동통계국(BLS)	- 연간 6월(27주) 이상 취업/구직자	
	- 일반 연구자	- 연간 1000시간 이상 일한 성인 - 통계청/노동통계청 기준	- 연방 빈곤선의 125~150% - 200%** 미만 (절대소득빈곤)
캐나다	- 복지평의회(NCW)	- 임금이나 자영소득이 총 가구소득의 50% 이상	- 통계청의 저소득기준선 (절대소득빈곤)
	- 사회발전위원회(CCSD)	- 연간 49주 이상 전일제(30시간이상) 또는 시간제로 일한 성인	- CCSD의 상대적 저소득 기준선(상대소득빈곤)
	- 정책연구네트워크(CPRN)	- 연간 12개월 전일제 근로자	- 상대저소득기준선: 연간 2만불 미만(상대소득빈곤)
호주	- 사회정책연구센터	- 근로시간과 무관한 전 경활인구	- enderson 절대빈곤선*** (절대소득빈곤)

주: * 스위스 사회복지기관연합(Confédération Suisse des Institutions d'Action Sociale)이 정한 최저생계비(vital minimum)에 기초주거비와 건강보험료를 추가한 기준선
** 연방빈곤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 따라 대안적 빈곤선을 활용
*** Henderson 빈곤선은 70년 헨더슨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다양한 규모의 개인과 가구가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비를 산출

자료: Pena-Casas and Latta(2004).

결국 근로에 대한 정의는 크게 취업 지위와 기간(status and duration of employment)을 어떻게 고려하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Pena-Casas and Latta(2004)는 빈곤층을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 경활 빈곤(active poor): 전 년도에 최소 6개월 이상 일하거나 구직활동중인 자
- 취업 빈곤(working poor): 전 년도에 최소 한 달이상 일한 자
  - 취업 빈곤은 일년 내내 일한 '내내 취업빈곤'과 취업·실업·비경활을 경험한 '부분 취업빈곤'으로 구분 가능
- 실업 빈곤(unemployed poor): 전 년도에 전혀 취업하지 못한 자

미국 노동통계국은 빈곤 가구의 구성원 중 연간 6개월 이상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근로빈곤을 '빈곤가구에 속한 취업자'로 정의(Ponthieux, 2010)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통계처(Eurostat)는 '지난 1년 동안 7개월 이상 취업한 자'로 정의하여 유럽 각국의 근로빈곤율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7] 이 정의는 미국의 경활 빈곤층에 비해 취업빈곤층으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인데, 유럽 각국의 실업률 차이를 고려하여 근로빈곤층을 보다 동질적인 집단으로 정의하여 나라별로 비교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인한다(Bardone and Guio, 2005).

7) 유럽연합 통계처가 사용하는 자료는 EU-SILC(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월별로 주된 활동상태를 ① 전일제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③ 전일제 자영업주 ④ 시간제 자영업주 ⑤ 실업자 ⑥ 은퇴 ⑦ 학생 ⑧ 육아휴가 중인 근로자 ⑨ 기타에서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최빈활동상태(the most frequent activity status)가 7개월 이상 취업한 자로 응답한 자 가운데 빈곤 가구에 속한 자를 근로빈곤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국내의 근로빈곤 정의와 쟁점

취업자가 있는 빈곤한 가구로 정의하여 가구 단위의 접근을 하는 연구(금재호, 2005)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개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 정의는 근로와 관련된 정의로부터 근로능력 빈곤층까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로 근로연령, 근로능력 유무,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기간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 가장 광의의 정의는 근로연령 빈곤층(working-aged poor)이다. 이병희(2010)는 가구주가 근로연령(15~64세)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빈곤율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 또는 가용 자료의 정보 부족 때문에 근로능력을 판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둘째, 근로능력 빈곤층(workable poor)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선진국에서 공공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노동시장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반영한 정의다. 또한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을 드나들며 취업과 미취업간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한 근로빈곤층 정의가 한계를 가지고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아동 양육이나 노인 부양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능력자로 간주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근로연계복지라는 특정한 정책적 지향에 편향된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홍경준, 2005). 한편 근로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작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이병희·반정호(2009)는 15세 미만의 아동, '근로능력 없음'으로 응답한 자,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65세 이상·재학 중·군복무 중·중증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정의하

고,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분류하였다. 반면 노대명 외(2007)는 ① 장애나 만성질환이 없는 ② 18~64세의 ③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의하였다. 후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과다한 노인 경활빈곤층을 근로연령대의 빈곤층과 동일한 집단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제외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는데, 주관적인 취업의사가 실제 경제활동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셋째, 특정 시점에서의 경활 빈곤층 또는 취업 빈곤층 정의이다. 노대명 외(2007)는 특정한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빈곤층을 경활빈곤층(active poor)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이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취업자는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응답하는 비중이 높다(이병희, 2009)는 점에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넷째, 경제활동기간을 고려한 근로빈곤층 정의이다. 홍경준(2005)는 '6개월간 경활 빈곤층'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능력과 경제활동 기간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빈곤 가구의 근로능력을 가진 가구원 중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한 자로 정의한다. 노대명 외(2007)는 빈곤 가구 구성원 중 지난 1년간 취업기간이 7개월 이상인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를 반영하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과 같은 패널자료에서만 개념 정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가구 빈곤이 연간 소득으로 판별되는 점을 고려하면, 노대명 외(2007)처럼 경제활동기간의 준거기간(reference period)도 지난 1년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관성을 가질 것이다.

다섯째, 1년간 취업경험을 가진 빈곤층 정의이다. 이병희(2010)는 근로능력 빈곤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여부로 '취업경험 빈곤층'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통계청의 정의와 동일하다. 이는 경제활동기간을 고려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취업경험 빈곤층을 '내내 취업빈곤층'과 '부분 취업빈곤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낮은 임금률로 인한 취업빈곤이므로 근로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대상이며, 후자는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고용정책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2절 빈곤율 추정방식과 예시

1. 통계청, 가계조사

가계조사는 2006년부터 전국의 가구원 1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월별로 조사된 가구를 별개의 가구로 간주하여 추정하는 방식은 소득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자영자 가구 소득의 계절성, 근로자 가구의 상여금)를 가지기 때문에, 통계청은 가구별로 12개월 자료를 연계하여 연간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별로 연간 평균 소득 및 지출액을 산출한다. 둘째, 응답횟수를 고려하여 가구별 연간 가중치를 산출한다. 셋째, 연간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 특성(가구원수, 산업, 직업 등)은 빈도가 가장 큰 월 또는 빈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근 월을 대표월로 선정하여 추출한다.

본 연구는 2006년 이후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율을 추정하였다. 가구 소득으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다.

–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8)]

–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9]-공적 비소비지출[10]

가구 규모에 따라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구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균등화된 소득을 산출하였으며,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개인 단위 지표로 전환하였다. 빈곤선은 상대적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균등화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개인의 비중으로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연간 자료에서 근로빈곤율은 네 가지로 작성하였다.

– 가구주가 근로연령(15~64세)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빈곤율
– 가구주가 취업자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빈곤율
– 근로연령대 빈곤율[11]
– 취업 빈곤율

시장소득 기준의 취업빈곤율은 2006년 8.8%에서 2010년 9.7%로 증가하였으며, 분석 기간 동안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공적 이전과 직접세·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정부 재분배효과를 포함한 가처분 소득 기준의 취업빈곤율은 2006년 7.4%에서 2010년 8.0%로 증가하였지만, 2007년에 증가한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8) 사적 이전소득=가구간이전+할인혜택+기타이전소득
9) 공적 이전소득=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사회수혜금+세금환급금
10)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연금+사회보험료
11) 근로연령대 빈곤율과 취업 빈곤율은 가구원 개개인의 연령과 취업상태를 파악하여 빈곤율을 산출한다. 가계조사에서는 8명까지의 가구원을 조사하므로, 가구원수가 8명을 넘는 가구에서는 8명까지만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2010년 가계조사에서 8명이 넘는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 불과하다.

〈표 6-2〉 가계조사, 근로빈곤 관련 통계(전국 1인 이상 비농어가)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시장소득>					
전체 빈곤율	16.1	16.7	16.7	17.3	17.0
가구주 근로연령 빈곤율	11.4	11.4	11.5	11.8	11.4
가구주 취업 빈곤율	9.1	9.6	9.7	9.5	9.2
근로연령 빈곤율	12.3	12.4	12.5	12.8	12.5
취업 빈곤율	8.8	9.2	9.1	9.5	9.7
<경상소득>					
전체 빈곤율	13.8	14.6	14.5	14.6	14.0
가구주 근로연령 빈곤율	9.9	10.2	10.2	10.0	9.6
가구주 취업 빈곤율	7.8	8.9	8.7	8.1	7.6
근로연령 빈곤율	10.5	10.8	11.0	11.1	10.5
취업 빈곤율	7.7	8.5	8.3	8.4	8.1
<가처분소득>					
전체 빈곤율	13.8	14.4	14.6	14.8	14.3
가구주 근로연령 빈곤율	10.0	10.2	10.3	10.4	10.0
가구주 취업 빈곤율	8.0	8.8	8.7	8.6	8.0
근로연령 빈곤율	10.6	10.8	11.1	11.2	10.8
취업 빈곤율	7.7	8.3	8.2	8.4	8.3

2. 한국복지패널

한국복지패널의 가구 자료를 개인 단위의 자료로 재구성하였으며,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근로능력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근로능력 판별은 연말 기준의 연령, 근로능력에 관한 주관적 응답, 장애 등급, 주된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 정보를 이용하였다. 즉, 15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근로능력 없음'으로 응답한 자,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재학 중·군복무 중·중증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분류하였다. 이는 노대명 외(2007)의 지적

에 따라 이병희·반정호(2009)의 근로능력 판별 기준에서 노인을 근로무능력자로 분류한 것이다.

복지패널에서 근로빈곤율은 다섯 가지로 추정하였다.

- 근로능력 빈곤율
- 취업 빈곤율 : 연말 기준의 주된 경제활동상태 정보를 이용하였다.
-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 : 조사표 'Ⅷ-소득'의 경제활동 정보에서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로 취업경험 여부를 판별하였다.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은 연말 기준의 취업 빈곤율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유급 근로(paid work)만을 포착하고, 연말 취업자로 응답하였음에도 연간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지 않은 표본이 일부 있기 때문에 연말 기준의 취업빈곤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 연간 7개월 이상 취업경험 빈곤율 : 일한 개월수를 조사한 4차년도 자료이후에만 추정이 가능하다. Eurostat 정의와 유사하지만, 주된 활동상태를 질문한 Eurostat와 달리, 복수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중복 응답을 허용하고, 근로일수가 적더라도 1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대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
- 연간 취업경험 또는 연말 기준의 취업 빈곤율

〈표 6-3〉 한국복지패널, 근로빈곤 관련 통계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시장소득>					
빈곤율	0.204	0.205	0.195	0.196	0.185
근로능력 빈곤율	0.142	0.132	0.121	0.128	0.120
연말 시점 취업 빈곤율	0.101	0.095	0.088	0.083	0.086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	0.091	0.098	0.091	0.096	0.094
연간 7개월 이상 취업경험 빈곤율				0.080	0.077
연간 취업경험·연말 취업 빈곤율	0.108	0.104	0.097	0.097	0.097
<경상소득>					
빈곤율	0.170	0.169	0.162	0.156	0.143
근로능력 빈곤율	0.120	0.109	0.098	0.099	0.092
연말 시점 취업 빈곤율	0.092	0.083	0.072	0.066	0.066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	0.083	0.084	0.075	0.077	0.073
연간 7개월 이상 취업경험 빈곤율				0.063	0.059
연간 취업경험·연말 취업 빈곤율	0.098	0.090	0.079	0.078	0.075
<가처분소득>					
빈곤율	0.163	0.162	0.154	0.152	0.135
근로능력 빈곤율	0.115	0.106	0.097	0.099	0.088
연말 시점 취업 빈곤율	0.088	0.080	0.072	0.064	0.062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	0.080	0.080	0.074	0.074	0.070
연간 7개월 이상 취업경험 빈곤율				0.062	0.055
연간 취업경험·연말 취업 빈곤율	0.093	0.086	0.079	0.076	0.071

3. 한국노동패널

현재 이용가능한 한국노동패널은 11차년도(2008년)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가장 장기간의 패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일자리(job spell)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빈곤의 동태적 분석에 가장 유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간 가구소득이 다음 해에 조사되기 때문에, 연이은 두 해에 모두 조사

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해에 조사된 연간 가구소득 정보를 결합하여야 한다. 둘째, 결합 과정에서 분가한 가구는 제외되지만, 분가가구의 원가구에서는 다음 해에 조사된 가구소득을 분가되지 않은 가구원수로 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가가구와 그 원가구를 제외시킨 가구들로 표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본의 누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시기는 2007년까지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용 자료(15세 이상)에 가구소득 정보, 직업력 정보를 결합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65세 이상인자,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학교 재학중, 주요 활동상태가 연로·심신장애·군입대대기로 응답한 자를 근로무능력자로,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정의하였다. 취업 여부는 조사 시점의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직업력 자료에서 일자리 시작 시기와 종료 시기 정보를 이용하여 연간 가구소득과 대응되는 연간 취업 경험 여부를 산출하였다.

〈표 6-4〉 한국노동패널, 근로빈곤 관련 통계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빈곤율	0.270	0.268	0.246	0.218	0.218
근로능력 빈곤율	0.199	0.199	0.175	0.152	0.154
취업 빈곤율	0.166	0.153	0.138	0.117	0.120
취업경험 빈곤율	0.181	0.174	0.152	0.129	0.133

07

지·난빈곤

제7장 자산빈곤

임병인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이전의 국내의 빈곤연구들은 빈곤 결정요인과 빈곤감소 정책 등에 관한 연구(김교성·최영, 2006; 김안나, 2007; 임병인, 2009; 석재은, 2010 등)가 많았고, 자산빈곤에 관한 연구가 흔치 않으며 자산문제를 다루었다 하더라도 주로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자산불평등에 관한 연구(남상호, 2007; 김현숙, 2005 등)라고 볼 수 있다.[12)]

자산은 근로 등의 경제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소득으로 구입하여 축적해 놓은 것으로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자산은 현실에서 유량(flow)변수인 소득을 더 이상 획득하지 못할 때, 소득획득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그 동안 적립한 자산을 매각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은 소득빈곤을 일정기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해소 또는 빈곤율 축소에 상당히 큰 역할

12) 물론 해외에는 자산빈곤관련 연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는 후술한다.

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에 동시에 직면할 경우, 사실상 빈곤을 탈출하기가 더 어려워져 빈곤이 고착화 또는 장기화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소득빈곤과 함께 자산빈곤을 파악하는 것이 빈곤 해소에 더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 및 대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절에서는 자산빈곤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적절한 자산빈곤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자산빈곤정도를 시산(試算)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국내외 기존 문헌 개요

가. 빈곤에 대한 기존연구

빈곤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는 기존 해외 연구로는 먼저 McLaughlin and Jensen(1995), Eller(1996), Rank and Hirschl(2001) 등의 연구가 있으며, 기존 빈곤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 저학력이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높이는 원인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청년층일 경우 빈곤 진입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Iceland(1997b), Stevens(1999) 등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빈곤 탈출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가구주의 연령이 생산가능연령이 아닌 경우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였다. McCulloch(2003)는 편부 또는 편모이거나 자녀의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빈곤의 진입할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특히, 근로자가 고숙련이거나 경제 환경의 활황으로 인해 고용률이 증가하는 경우,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지만, 편부모가구는 빈곤 진입 이후 탈출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이 밝혀졌다. McKernan and Ratcliffe(2005)는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흑인, 여성 가구주의 경우에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증가하나, 고학력 및 가구 구성원의 취업 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에서의 탈출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국내의 빈곤 관련 연구로는 김교성·최영(2006), 김안나(2007), 임병인(2009) 등이 있다. 김교성·최영(2006)의 분석결과, 연령은 근로자의 빈곤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미혼보다 기혼자가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등이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안나(2007) 역시 미혼에 비해 기혼자의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이 낮고, 또한 여성 가구주, 30세 미만보다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가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을 밝혔다. 임병인(2009)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빈곤 및 고용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빈곤 정도를 증가시켰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특정 계층에 대한 빈곤 관련 국내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Brady and Kall(2008)은 1969년에서 2000년까지 선진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체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선진 복지국가에서 여성빈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그 원인을 제시하였다. Aassve, Iacouvou, and Mencariain(2006)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청년 빈곤의 상대적 규모가 크고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보수주의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도 적고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는 것을 보였으며, 서유럽의 경우 청년빈곤보다 아동빈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을 보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석재은(2010)은 2009년 제1차 서울복지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공적연금이 노인의 빈곤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였고, 고소득층은 공적연금소득이 노후생활에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빈곤감소 정책의 효과에 관한 국내외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Smeeding(2001)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노령연금이 중간 및 낮은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며,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Smeeding(2005)은 빈곤정책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면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및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사회보험이 상대빈곤의 62~75%를 감소시키는 반면, 공공부조의 경우 핀란드는 상대빈곤의 34%, 영국은 33%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홍경준(2011)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소득보장정책과 취업유인정책)에 의해 분배효과를 발생하는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해 그 실제적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산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

Sherraden(1991)은 자산을 형성시키는 빈곤 정책은 빈곤층이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며, 인적 자본을 개발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Haveman and Wolff(2001)는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의 1983년에서 1998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자산빈곤층은 1995년 불황기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에는 유동자산을 기준으로 볼 경우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순자산과 비교한 결과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자산빈곤층의 비율은 소득빈곤층의 비율보다 높았고, 특히 흑인, 히스패닉 계열, 가구주의 연령이 낮은 집단,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 임대 주택 거주자, 65세 이하이며 여성이 가구주이며 아이가 있는 집단에

서 자산빈곤율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Caner and Wolff(2004)는 1984년부터 1999년까지의 미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용가능한 저축이 부족한 가구의 구성비와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들은 Haveman and Wolff(2001)의 자산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저소득층의 자산빈곤의 결정요인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인 소득에 기초한 빈곤율은 급격하게 하락하지만 자산빈곤율은 1984년부터 1999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고 또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지만 자산빈곤의 정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셋째, 인종과 교육수준은 자산빈곤을 결정하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넷째, 흑인,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65세 이하이며 여성이 가구주이며 아이가 있는 집단, 임대 주택 거주자, 가구주의 연령이 낮은 집단 등이 높은 자산빈곤율을 보이며 Haveman and Wolff(2001)와 비슷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산빈곤 지속 집단의 경우,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ank and Hirschl(2010)은 1984년부터 2004년까지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이용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빈곤을 분석하였으며, 기준자산을 순자산(net worth), 금융자산, 유동자산으로 나누어 자산빈곤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저학력, 미혼자, 흑인, 임대 주택자 등의 요인이 자산빈곤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남상호(2007)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자산 보유 및 분배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자산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자산보유 불평등이 심화되고 동시에 자산보유 양극화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산빈곤층의 귀속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과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주택을 보유한 가구일수록 빈곤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남상호·권순현(2008)은 국민노후보장 패널 자료를 이용한 Logit모형을 통해 자산빈곤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여성, 월세, 5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등이 자산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반면,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수준이 높거나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자산빈곤층에 포함될 확률이 낮음을 밝혀내었다. 강성민·유태균(2009)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빈곤층에 대한 생존분석과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빈곤지속기간이 길고 빈곤탈피율이 낮고, 가구주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고, 정규직일수록 자산빈곤에서 조기에 탈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상훈(2011)은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의 동태적 특징과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소득계층간 자산격차 심화, 자산빈곤율은 소득빈곤율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3배 정도 높고,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와 비교하여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높은 반면 빈곤상태에서 탈출하기는 어려우며, 소득빈곤층일수록 자산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

3. 우리나라의 빈곤 관련 제도에서의 자산 관련 논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빈곤관련 제도 중 공식빈곤선인 최저생계비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근로장려세제(EITC),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자산과 관련된 기준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빈곤 등을 정의할 때 자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자산빈곤에 대한 유용하고 실제적인 기준

을 추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을 국내외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자산빈곤 기준과비교함으로써 자산빈곤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권자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표 4-4 참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주지하다시피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빈곤 여부 판정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표 7-1〉 최저생계비의 변화

(단위: 원, %)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상률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3.0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3.0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3.5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3.0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3.5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7.1
2006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3.0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5.0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4.8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7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5.6

주: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인상률

또한,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수급권자 가구 선정에 사용되고 있다. 자산빈곤과 관련하여 기본재산액이라는 항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표 7-2> 참조).

〈표 7-2〉 기본재산액 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13,300만원	10,850만원	10,150만원

주: 지역구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이는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므로 자산빈곤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은 자산빈곤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에서의 자산 관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에 따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working poor)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시혜적인 복지제도 대신 근로참여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독립을 유도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장려금 산정기준은 , 근로소득이 800만원미만(점증구간)일 경우 지급액은 근로소득의 15%로 계산되어 점차 증액되고, 800만원~1,200만원(평탄구간)은 120만원(최고 지급액)으로 동일하며, 1,200만원~1,700만원(점감구간)이면 (1,700만원-근로소득) × 24%와 같은 산식에 따라 감액된다(<표 7-3> 참조).

〈표 7-3〉 근로장려금 산정기준표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원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15%
800만원 ~ 1,200만원 미만	120 만원
1,200만원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 × 24%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인 경우이다. 이 때,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하며, 다만, 일부는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1인 이상 부양시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자녀 요건은 <표 7-4를 참조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부양자녀 인정 요건도 있다.

〈표 7-4〉 부양자녀 요건

	내 용
부양자녀 요건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한다(<표 7-5> 참조).
-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표 7-6> 참조).

〈표 7-5〉 주택소유의 기준

	내 용
주택소유의 기준	상속 또는 주거 이전을 위한 신규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주택을 소유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채 소유*
	세대구성원이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세대구성원별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세대원 전원이 1채 소유

주 *: 재산가액 계산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주택가액으로 결정

〈표 7-6〉 재산포함명세 및 평가방법

	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평가방법
재산포함 명세 및 평가방법	토지 및 건축물 (주택 포함)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상가 및 주택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계약서상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개인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유가증권	개인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주식·채권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 그 외의 유가증권: 액면가액
	골프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	기존건물 평가액 청산금
		분양권	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토지상환채권	액면가액
		주택상환사채	액면가액

이상에서 보듯이 근로장려세제 지급기준에도 일정한 자산기준이 있어 이를 이용한 자산빈곤 여부 판단의 적절한 근거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자산빈곤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그 산정 기준이 다르지만, 자산기준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나타남.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효 부과체계만을 살펴보겠다.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 합산점수(보험료 부과점수)×165.4원[13)]

부과요소는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고려),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등급에 따라 합산한 부과요소별 합산점수가 부여
- 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등급에 따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부여
-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부과점수의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재산, 연령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이 중 재산관련 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 등으로 나눠며,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및 지방세법 제196조의 2의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한다.

- 주택 및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13) 2011년 기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전/월세 중 월세에 대한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월세평가 = 월세보증금 + (월세금 ÷ 0.025)

자산기준은 지역보험료의 경감 중 세대경감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득재산요건에 따른 경감률이 있는데, 재산과표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9,000만원 이하 20%, 13,500만원 이하 1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소득과 재산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내용에 따르면, 결국 우리나라의 빈곤 관련 지원제도에는 자산빈곤을 소득빈곤과 동시에 반영하여 자산의 유동화 가능성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기존 연구의 자산빈곤 정의

Oliver and Shapiro(1990)[14]는 자산빈곤을 '가구가 소유한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의 가치가 '0' 또는 음(negative)일 경우'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가구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구성 중 대표적인 유동자산(liquid asset), 순자산(net asset)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자산빈곤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Haveman and Wolff(2001)[15]는 자산빈곤(asset-poor)이란 '가구나 개인이 일정기간(period of time) 동안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은 유형자산자원(wealth-type resource)을 가진 경우'로 정의하였다. '기본적인 욕구'는 4인 가족(부모와 2인 자녀)이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재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재원의 규모는 가구균등화지수를 통해 반영된

14) A household as asset poor "if its financial asset value is zero or negative."

15) A household as asset poor "if the access that family members have to wealth-type resource is insufficient to enable them to meet its basic needs for some limited period of time"

다. 또한 '일정기간(period of time)'이란 어떠한 사건으로 가구의 수입 공급원이 차단되었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도록 요구 받는 기간을 의미, 보통 3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유형자산자원'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net worth), 가계 자금융자를 제한 순자산, 퇴직연금(IRAs) 등의 연금자산을 제외하고 화폐전환이 용이한 재정적인 자산과 현금으로 정의한다. 이런 유형자산자원이 5,000달러 이하이면 "절대자산빈곤"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Haveman and Wolff(2001)의 정의는 Oliver and Shapiro(1990)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hort and Ruggles(2005)는 Haveman and Wolff(2001)가 제시한 자산빈곤의 정의를 기초로 노인여성의 자산빈곤을 분석하였다. Gornick, Sierminska, and Smeeding(2009)은 Haveman and Wolff (2001)의 정의를 기초로 '일정기간(period of time)'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노인여성의 자산빈곤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Caner and Wolff(2004)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이 Haveman and Wolff(2001)의 자산빈곤 정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2010)[16]은 전기의 순자산이 예비적 저축률과 소득빈곤선의 곱보다 작으면 자산빈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충격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얼마만큼 자산으로 대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상대소득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equivalent disposable income) 중위값의 50%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연 소득빈곤선의 1/4를 절대적 자산빈곤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2010)은 총소득을 노동소득과 전기의 자산의 이자소득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총가용금융자원

16) 이들은 자산빈곤을 정의할 때 빈곤(poverty)보다는 취약성(vulnera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the total available financial resources)은 소득과 총자산의 합으로 표현하며, 총소득과 총가용금융자원을 소득빈곤선과 비교하여 빈곤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산빈곤과 소득빈곤을 독립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소득빈곤 안에서 자산빈곤을 정의한 것임. 즉. 소득부분의 감소 또는 상실을 일정기간동안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통해 자산빈곤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빈곤을 '전기의 순자산이 예비적저축률과 소득빈곤선의 곱한 값보다 작을 경우'로 규정하며, 이 때 상대자산빈곤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equivalent disposable income) 중위값의 50%로 규정되는 상대소득빈곤선을, 절대자산빈곤은 연 소득빈곤선의 3개월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의 자산빈곤 정의를 살펴본다. 먼저, 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노대명(2005)은 자산빈곤선을 추출하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자산을 순자산이라 정의한 뒤, "부동산 + 동산 + 금융자산 - 부채"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자산빈곤선은 기준자산에 대한 중위자산의 50%로 설정하며, 자산빈곤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남상호(2009)는 소득빈곤에 적용되는 절대와 상대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산빈곤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구분 기준은 가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절대자산빈곤은 Haveman and Wolff(2001)의 자산빈곤(asset poor)정의인 '일정 기간 동안 기본적인 욕구를 영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 resource)을 가지지 못한 가구나 개인'을 기본으로 한다. 먼저 '일정기간'은 소득이 없을 때 자산으로 가구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타당한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업상태에서 고용이 되는 기간을 소득의 발생에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실업상태에서 6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장기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을 감

안하여 이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절대자산빈곤은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상대자산빈곤은 상대소득빈곤(표 7-7 참조) 중 OECD기준에 따라 순자산 중위값의 40%, 50%, 60%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표 7-7〉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 본	평균소비지출의 68%

5. 자산빈곤 추정의 쟁점

먼저 자산의 개념 정의에 관한 쟁점으로 총자산과 순자산 중에서 어느 기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절대자산빈곤의 경우, Haveman and Wolff(2001)류의 정의에 따라 소득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기본적인 욕구를 영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자산"이라는 문장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채가 포함된 총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결국 자산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총자산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로, 빈곤탈피 또는 빈곤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자산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는 기간 설정이라는 쟁점이 있다.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2010)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자산빈곤을 '전기의 순자산이 예비적저축률과 소득빈곤선의 곱한 값보다 작을 경우'로 규정하면서 절대자산빈곤을 연소득빈곤선의 3개월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상호(2009)는 절대자산빈곤을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자산의 유동화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로, 절대자산빈곤과 상대자산빈곤선에 대한 쟁점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용어 그대로 절대자산빈곤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대자산빈곤은 중위자산의 50%라는 상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빈곤에서 제시되고 있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개념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의가 빈곤을 더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문제는 어느 기준에 따르느냐에 따라 정책적인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빈곤과 소득빈곤을 별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고려한 빈곤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 있다. 자산을 일정수준 보유하고 있고, 그 유동화 정도가 적절할 경우에는 소득이 지출재원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출행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자산빈곤이 아닐 경우, 소득빈곤에 처해있더라도 실제로 빈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시각이 Haveman and Wolff(2001)와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2010) 등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쟁점은 정부의 빈곤해소정책의 초점이 자산형성이냐 빈곤탈출 이냐로 연결되어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예: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의 시행여부 결정에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이 쟁점은 정부의 빈곤관련 정책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제2절 자산빈곤 시산 결과

1. 자산빈곤의 개념 설정

우리나라의 빈곤 관련 지원제도의 자산 기준에서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국내외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연구(Haveman and Wolff, 2001; Gornick, Sierminska, and Smeeding, 2009; 남상호, 2009)를 제외하고는 자산빈곤을 자산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빈곤 관련제도의 자산 기준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자산기준을 설정하여 시산하고자 하며, 이상의 빈곤기준은 실질적으로 절대자산빈곤의 성격을 가진다.

〈표 7-8〉 자산빈곤율 판정산식 (1)

제도	자산빈곤기준	비고
기초생활보장 제도	총자산 1억원 이하	순자산 기준 계산 별도
	최저생계비×3≥재산평가액	근로장려세제 기준 재산평가액
근로장려세제	총자산 1억원 이하	순자산 기준 계산 별도
	총자산 8,000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감안
건강보험료	총자산 6,000만원 이하	보험료경감 기준 (경상소득 360만원 전제)
	총자산 9,000만원 이하	
	총자산 13,500만원 이하	

주: 재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산이라고 표기

다음은 기존 연구의 자산빈곤기준을 활용한 자산빈곤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시산하였다.

〈표 7-9〉 자산빈곤율 판정산식 (2)

기존 연구	자산빈곤기준	비고
Haveman and Wolff(2001)	5,000달러 이하	- 연간평균환율로 환산 - 1998년 대비 물가 환산 - 절대자산빈곤
Brandolini et al. (2010)	전기의 순자산 ≤ 예비적 저축률 × 연소득빈곤선 (가구원수 반영)	- 예비저축률=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경상소득(%) - 균등화 경상소득 = 경상소득/$\sqrt{가구원수}$ - 중위 균등화경상소득의 40%, 50%, 60%(상대빈곤) - 중위 균등화경상소득의 1/4 (절대빈곤)
남상호(2009)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6개월	절대자산빈곤
° 남상호(2007) ° 남상호·권순현(2008) ° 석상훈(2011) ° 이태진 외(2005) ° 강성민·유태균(2009)	중위자산(순자산 기준) × 50%	상대자산빈곤

2. 자산빈곤율의 시산(試算)

본 연구에서는 자산빈곤을 시산하기 위해 통계청 발표 『2010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동 자료에는 각종 자산과 경상소득이 가구단위로 조사되어 있으며, 주택, 자동차, 저축, 금융자산 및 부채를 비롯하여 경상소득도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경상소득으로 조사되어 공적연금소득을 비롯한 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소득기준 빈곤율 추정이 다소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시산 결과는 〈표 7-10〉의 내용과 같다.

〈표 7-10〉 자산빈곤율 시산결과[1)]

빈곤 판정 기준		자산기준	자산빈곤율
기초생활보장 제도	자산 1억원 이하	총자산	38.84%
		순자산	44.18%
	자산 8,000만원 이하	총자산	33.71%
		순자산	38.39%
근로장려세제	자산 6,000만원 이하*	총자산	26.58%
		순자산	29.53%
	자산 9,000만원 이하*	총자산	33.67%
		순자산	36.87%
	자산 13,500만원 이하*	총자산	42.11%
		순자산	45.32%
5,000달러 이하	1998년 환율기준(6,975천원)	총자산	7.00%
		순자산	10.11%
	1998년 대비 2010년 물가환산 (9,837천원)[2)]	총자산	8.50%
		순자산	11.43%
전기의 순자산 ≤ 예비적 저축률 × 연소득빈곤선[3)](가구원수 반영)		25%	8.06%
		40%[4)]	8.52%
		50%	9.41%
		60%	10.25%
자산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6개월		총자산	5.70%
		순자산	8.79%
		재산평가액	7.44%
최저생계비 × 3 ≥ 재산평가액**		총자산	3.45%
		순자산	6.61%
		재산평가액	5.04%
중위자산 × 50%		순자산	32.76%

주: 1) 순자산 기준 중위자산값 -12,181.5만원.
* 경상소득 기준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인 가구 전제, ** 근로장려세제 기준 평가액(표 6 참조)을 의미, *** 절대자산빈곤을 의미

[ ]는 상대자산빈곤을 의미

2) 소비자물가지수는 1998년 82.32, 2010년 116.1임.
3) 전기의 순자산은 2010년 기준 순자산으로 가정하였음.
4) 중위 연소득빈곤선 기준에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 50%와 60%도 동일.

참고로 동일한 자료에 제시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로 환산한 절대소득 빈곤율은 16.51%로 산출되었다.

제3절 결론

지금까지 자산빈곤율에 대한 기존 국내외 연구와 자산빈곤율 판정기준을 추출하고자 우리나라의 빈곤관련제도에서 자산이 어떻게 판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자산만으로 빈곤을 환산하는 접근과 소득빈곤과 연계하여 자산빈곤기준을 삼는 접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자산빈곤을 정의하는 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산이 많은데 소득이 없어 빈곤이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산보유는 소득획득활동이 어려워질 때, 유동화 과정을 통해 일정 기간 지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일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자산으로 얼마만큼을 대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산빈곤 정의라고 사료된다(Brandolini, Magri, and Smeeding, 2010 참조). 다만, 대체, 즉 자산유동화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정확한 자산 빈곤의 추계에는 관련 자료 구득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유동화 정도가 기간별, 연도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료 구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양한 정의 또는 개념에 근거한 자산빈곤율 계산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료 구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자산빈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계 전문가들간에 논점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쟁점 해결로 유용하고 실용적인 자산빈곤 정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08

주거빈곤

제8장 주거빈곤

박신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론

1. 연구배경

1960년 이후 지난 50년간 몇 차례의 고비가 있기는 하였으나 경제성장이 지속된 덕분에 1960년 1인당 67불이던 국민소득은 2010년 20,759불로 310배라는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빈곤율도 떨어졌다.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10만원(1991년 기준) 이하인 경우를 절대빈곤율로 하여 1967년의 빈곤율을 추정하면 85.3%이지만 1998년에는 이 비율이 10.7%로 하락(국가인권위원회, 2004: 표 Ⅳ-2참고)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89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율은 동 기간 9.6%에서 6.1%로 감소하였고 가계지출기준으로는 20.4%에서 5.6%로 감소하였다(김태완 등, 2009: 39).

주택과 관련된 변화를 보면, 주택이 양적으로 남아돌게 되었으며, 주택의 97.0%에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될 정도로 질적인 개선이 있었다. 특히, 오랫동안 가난의 상징으로 등장하던 달동네, 산동네의 상당수가 사라져 기억이 되고 말았다.[17] 주택의 물리적인 개선만큼 가구의 주거

수준도 개선되었다. 1970년에는 1인당 6.8㎡에 불과했던 주거면적이 2010년에는 28.5㎡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1975년에는 방 1개에 평균 2.5명이 거주했다면 2010년에는 방 1개에 거주하는 인원이 0.77인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존속한다. 모든 빈곤층이 반드시 질 낮은 주택에 거주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 조건이 나쁜 주거가 소득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인 점에서 빈곤한 가구의 상당수는 주거와 관련해서도 빈곤을 경험한다. 게다가 이들은 일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전체에 걸쳐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곤과 주거빈곤의 관계를 보면, 주거빈곤은 중층적 빈곤[18] 상황의 복합적 산물이면서, 빈곤을 세대 내에서, 또 세대간에 재생산하는 원인이자 결과이다. 청소년의 가출, 아동학대, 이혼율 증가는 주거문제의 열악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밀주거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심리적 긴장을 유발해서 고혈압, 사망률 증가, 정신이상 등의 건강사의 문제와 비정상적인 공격적 행등증대,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배순석 외, 1997: 35-36). 시끄럽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비좁은 집에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가는 아동은 주의 집중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19] Arthurson &

17)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삼양동, 봉천동, 난곡, 인천의 유신 마을 등 모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18) 중층적 빈곤이라는 표현은 대한주택공사(2000)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저소득과 불완전취업에서 비롯된 경제적 빈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가 팽배해서 빈곤층을 '게으른 자'로 낙인찍고 이들이 이러한 사회적 규정을 받아들여 빈곤 탈피 의식을 상실하게끔 하는 사회·문화적 빈곤, 정치적 차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참여·발언의 기회를 봉쇄하는 정치적 빈곤,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한 공공의 지원에 인색한 빈약한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는 정책적 빈곤 등이 낳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Jacobs(2003)는 부적절한 주거는 건강, 교육,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주거는 그 입지, 물리적 환경, 점유의 안정성, 과밀, 지속가능성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가구 및 구성원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야기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어떤 가구가 현재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해당 가구가 소득이 부족했으며, 적절한 일자리가 없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주택에서의 생활은 다시 건강, 교육, 고용, 복지서비스의 이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빈곤의 재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Bratt(2000: 14-15)는 가족생활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주택이므로 주택과 가족의 복지는 매우 밀접함을 설명하였다. 그는 주택의 질이 좋고 안전한지,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과밀하지 않으며 주거비가 부담할만한 수준일 때 긍정적 자아감과 능력부여의 기회가 제공되며, 주택이 있는 동네여건이 고용과 교육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빈곤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빈곤을 정의하고, 주거빈곤의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거빈곤을 정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빈곤'의 개념이 사회나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상대성과 주관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판단이 쉽지 않은 것[20]처럼 '주거빈곤'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론

주거빈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시도이다. 본 연구에

19) 과밀상태로 거주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주거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서 수학능력이 9개월, 독해력이 10개월 떨어진다는 일본의 연구결과가 있음(早川和男·岡本祥浩, 1993: 23-24)

20) 김미곤(2006: 73)은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빈곤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서는 주거빈곤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들이 제시하는 주거빈곤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주거빈곤을 규정한다. 그리고 주거빈곤 개념에 활용되는 속성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빈곤 실상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현재는 어떠한지를 통계청이 5년마다 하고 있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와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2006년 이후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구축한 한국복지패널[21]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8-1〉 실태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특성

통계자료명	수행기관	자료수집방법	자료의 특성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끝자리가 0, 5로 끝나는 해의 11월 1일 전국에서 실시하는 전국민, 전가구조사	가구원성별, 나이, 교육정도, 교육상태, 종교, 보육 5년전 거주지역, 활동제약, 취업활동, 통근 및 통학,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혼인상태, 거주실태, 주택현황, 주차장소,타지주택소유여부
주거실태 조사	국토연구원	'06년실시, '08년, '10년 3차례 실시,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전국 33,000가구 표본조사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가구특성, 가구 소득, 생활비, 부채, 가구주의 근무형태, 통근수단 등
한국복지 패널 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06년 시작 매년 실시,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약 7000가구 패널구축[22], 중위소득60%미만에서 50%,60%이상에서 50%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표본선정	가구(원)특성, 개인사, 보육, 교육, 건강, 주거등 가구여건, 복지욕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실태, 소득, 지출, 재산, 부채 등의 경제적 상황, 가치관과 의식

21) 한국복지패널은 '05년 당시 존재했던 3개의 패널-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합하여 구축한 패널이다.

22) 패널유지율이 2차 92%, 3차 87%, 4차 84%로 해외 패널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여유진, 2010:7).

3. 주거빈곤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이론

빈곤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주거빈곤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빈곤의 정의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되며,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에 대한 정의시 사용되는 관점이 빈곤은 첫째,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 둘째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 셋째, 스스로가 생활을 꾸려 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기초해서 빈곤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되어 개념화되고 측정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구분 외에 그 나라의 정치적·재정적·이념적 현상을 반영한 정책적 주거빈곤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김주환, 2007: 22-23).

다음에서는 절대적 주거빈곤, 상대적 주거빈곤, 주관적 주거빈곤, 정책적 주거빈곤으로 구분하여 주거빈곤을 인식하는 관점의 특성을 살펴본 후, 본 연구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절대적 주거빈곤

절대적 주거빈곤이란 절대적 빈곤처럼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주거빈곤으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여기서 문제는 주거생활과 관련된 요건은 무엇이며, 최소한의 수준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이다.

早川和男·岡本祥浩(1993: 42-100)는 주거 공간을 점유하지 못하는 경우나 주택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구조가 임시가건물 형태이거나 노후하고 불량해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 주택의 성능과 관련해서 채광, 냉·난방, 환기, 방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건강상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여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가구 규모에 비해 주택의 규모가 협소해서 가구의 분할 거주, 방 한 칸 다세대 동거 등과 같은 주거 과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23] 주거궁핍, 즉 주거빈곤으로 규정한다.

대한주택공사(2000)는 주택의 요소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구가 함께 이들 시설을 공용하는 등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를 절대적 주거빈곤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각종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주거 입지상의 문제로 인해 이들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낳는 혐오·위해시설(嫌惡·危害施設)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서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해칠 뿐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등도 주거빈곤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이웃관계 및 지역공동체가 와해되어 주거생활의 고립이 초래되는 경우, 또 도시계획 등으로 철거 위협에 직면해서 주거의 불안정이 유발되는 경우, 그리고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사생활이 일상적으로 침해받아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등도 절대적 주거빈곤으로 규정한다.

주택이나 주거환경과 관련된 기준 외에 주거비와 관련해서도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거여건이나 절대적 수준을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어떤 사회에서 규정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절대적 주거빈곤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절대적 주거빈곤은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주거복지

23) 이와 같은 과밀 주거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심리적 긴장을 유발해서 고혈압, 사망률 증가, 정신 이상 등의 건강상의 문제와 비정상적인 공격적 행동 증대,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배순석 외, 1997: 35-36).

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최소한도의 주거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절대적 주거빈곤론은 절대적 주거빈곤층을 변별해서 이에 대해 엄밀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나. 상대적 주거빈곤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 또는 주거요건이 합의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과 주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주거 불평등 의식 등과 같은 심리적이거나 문화적인 주거빈곤 문제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응해서 제기된 것이 상대적 주거빈곤이다.

대한주택공사(2000)는 상대적 주거빈곤론은 주거빈곤을 '주거의 불평등(housing inequality)'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으로 설명한다. 상대적 주거빈곤층은 Townsend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출하던 방식을 원용해서 지역의 가구 규모별로 가구원 1인 당 평균 주거 면적의 50% 이하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1979년 Townsend는 욕실, 부엌, 전기사용, 침실 및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각항목별로 단독 사용이 아니거나 2년 동안 이사를 2번 이상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이를 주거박탈지표로 활용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이 상대적 주거빈곤을 측정하는 사례로 생각된다. 상대적 주거빈곤은 특정 사회에서 주거 상황의 우열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주거빈곤 개념에 비해 주거빈곤의 판별 기준을 설정하는 데 지표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다소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빈곤층의 규모를 제시해줄 수 있으나 빈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김주

환, 2007: 24). 또한 외견상의 객관성이나 공정성과 달리 상대적 주거빈곤층을 가르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와 같은 '평균 주거 면적의 50% 이하'라는 기준이 과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것이지, 아니면 이것을 40%, 60%로 설정하는 것에 비해 이러한 기준이 얼마나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 주관적 주거빈곤론

주관적 주거빈곤론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빈곤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자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주관적 빈곤(상대적 가치박탈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관적 주거빈곤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접근은 주관적인 주거빈곤 의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계층이 현재 자신들의 주거 상태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주목한다. 따라서 주택의 주거 면적 및 주거 시설, 주택을 둘러싼 물리적 주거환경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관해 지표를 설정해서, 각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들 주민이 갖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한편, 이러한 주거빈곤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소극적 적응 양식 및 이들의 태도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해서, 주거빈곤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주관적 빈곤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빈곤선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김주환, 2007: 25) 아직 주관적 주거빈곤까지 조사된 사례가 없어 주관적 주거빈곤과 절대적 주거빈

곤, 상대적 주거빈곤의 차이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주거빈곤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지면 절대적·상대적·주관적 주거빈곤의 빈곤선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빈곤 해소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 정책적 주거빈곤

앞에서 언급한 주거빈곤 개념 외에 국가마다 정치적·재정적·이념적 현실을 반영하여 주거빈곤을 현실적으로 규정한 정책적 주거빈곤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이는 빈곤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 빈곤문제 해결에서 목표나 수위는 관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주거빈곤은 정부부서간의 권력관계나 압력집단의 타협의 산물로 결정된다. 만일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경제구조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강한 집단이 정권을 잡는다면 주거빈곤의 기준선은 강화될 것이며, 반대로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므로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을 지지하는 집단이 정권을 잡는다면 주거빈곤선은 아래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정책적 주거빈곤은 정부의 빈곤대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현의지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마. 주거빈곤에 대한 정의

주거빈곤과 관련된 정의에서 대한주택공사(2000)[24]의 연구는 매우 획기적이었다. 당시 많은 연구가 주거빈곤을 '주거차원에서의 빈곤'과

24) 동연구는 대한주택공사가 시민단체인 주거연합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하여 수행한 위탁연구이다. 연구책임자는 당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박문수 신부였으며, 연구진은 중앙대학교 하성규 교수, 성공회대학교 이영환 교수, 당시 국회 입법조사관이었던 장세훈 박사, 도시연구소의 서종균 책임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의 박신영 박사로 구성되었다.

같이 주거개념과 빈곤개념을 단순히 병렬시키거나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상태라는 동어반복적인 규정을 소개할 때, 대한주택공사(2000)는 주거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주거빈곤을 구성하는 여러 속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첫째 주거빈곤은 '장기간에 걸쳐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는 생활 상태'를 가리킨다. 즉, 생애주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거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나, 주기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주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는 주거빈곤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로 주거빈곤은 '주거빈곤 상황으로부터의 독자적인 탈출이 제약되는 생활 상태'를 의미한다. 독자적인 탈출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로 주거빈곤은 '주거의 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기'를 가리킨다. 즉 주거빈곤은 비좁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단순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과는 구별되는, 즉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자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여타의 생활필수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생계유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철거위협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서 취업·자녀교육 등에 심대한 제약을 받거나, 또는 불량한 주거환경과 빈약한 생활기반시설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로 빈곤 상황에서 주거빈곤의 위상에 주목할 때, 주거빈곤은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빈곤 상황과 주거빈곤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빈곤층을 더욱 빈곤의 늪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주거빈곤은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눈에 보이는 요인외에 과도한 주거비 부담, 철거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까지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빈곤의 속성을 재구성하여, 대한주택공사(2000)에서는 주거빈곤을 "개별적으로는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

도한 주거비 부담, 그리고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여건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주거빈곤의 특성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분명히 한 점에서 충실한 정의로 생각된다. 또한 동연구는 주거빈곤과 주택빈곤(shelter poverty, house poverty)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택빈곤은 주택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주택과 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불량해서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라면, 주거빈곤은 주택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환경이 주거생활을 위협해서 생존을 어렵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 역시 주거빈곤을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닌 삶의 공간과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주체(가구원)의 주거상태 및 주택소비양식까지를 포괄하는 점에서 이후 주거와 빈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매우 유용한 접근법으로 생각된다. 다만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여건', '장기간'이라는 속성이 가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주거빈곤 가구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성규(2002: 3)는 주거빈곤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약 6억명의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하면서 이들의 주거빈곤의 특성을 첫째, 과밀(방당 거주인원수가 4명을 초과)상태이며, 둘째 불량하거나 버려진 재료를 건축재료로 사용하며, 셋째, 식수,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안전하고 충분하지 못하며, 넷째, 쓰레기 수거, 하수처리 등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많으며, 다섯째, 불법적으로 땅을 점유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이용상 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소개하고 있다. 하성규의 정의는 주거빈곤을 주택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 전반에 걸쳐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설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하성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집단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양과 질을 주택소요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하성규

의 정의에는 주거빈곤을 야기하는 특성중 주거비 부담과 같은 경제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한주택공사(2003:14)는 주거빈곤을 주택자체의 규모, 위치, 질적 수준, 주거비 수준 등이 일정한 수준, 즉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결과적으로 주거빈곤은 어떤 사회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명확하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주거빈곤 정의가 담고 있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거실태를 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인권위워회(2004: 53-55, 82-83)는 주거빈곤을 사회적 배제와 연관시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주택의 질과 열악한 환경이라는 의미에서의 주거빈곤이며, 둘째는 거주의 불안정성을 들고 있다. 첫째와 관련된 것이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집, 집안 곳곳이 적절하게 통풍이 되지 않는 집, 습기가 많아 벽 구석구석에 시꺼먼 곰팡이가 않자 지우다 못해 화보집을 얼기설기 붙여놓은 집, 좁고 어두워 대낮에도 형광등을 밝혀놓고 있어야 하는 집, 옥외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므로 심야에 급할 때를 대비하여 요강을 하나씩 비치하고 있는 집, 사워실이 없어 방문 옆 간이 부엌에서 샤워를 해야 하는 집, 문턱이 높아 어린이나 노약자 및 장애인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집, 노후화되어 적절한 거주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집이다. 과밀도 열악한 환경에 포함된다. 둘째와 관련된 것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과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거확보의 곤란성, 안정적인 거주상태의 유지곤란성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와 월소득에서 주거비(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5-30%를 넘어서는 가구를 주거빈곤층으로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는 대한주택공사(2000)의 주거빈곤 정의에서 사용된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판단하는 잣대로 정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과 소득대비 임대료의 비율이

최대 30%를 넘지 않을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는 기준이 분명해서 주거빈곤 가구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정의처럼 다양한 속성을 아우르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대한주택공사(2005: 13)에서도 주거빈곤을 인간이 누려야 할 '최저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한다. 또한 동연구는 최저주거기준 외에 주택소요를 정의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택소요란 '일정기준 이하의 주거수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택의 양과 질, 그리고 주거권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거빈곤이 해결되어야 할 근거가 된다.

김안나외(2005)는 주거빈곤을 인간의 삶의 영역중 '주거'가 취약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역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거빈곤의 대표적인 가구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주거학회(2007: 14)는 주거빈곤은 나라마다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을 전제로 주거빈곤은 통상 '일정 기준 이하의 주거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택의 양과 질'로 정의하면서 주거빈곤의 식별기준은 주거기준이라고 하고 있다.

이태진 외(2010:35)는 주거빈곤을 "주거빈곤을 과중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수준으로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빈곤을 양산하는 문제"로 정의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거빈곤의 요소는 열악한 주거환경, 즉, 일정한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거빈곤의 속성에 대한 정의에 덧붙여서 자력으로는 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임까지 포함해서 주거빈곤을 정의하고자 한다. 즉, 주거빈곤을 "인간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도의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상태이거나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이 커

서 다른 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이면서 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2절 주거빈곤 정의와 관련된 주요개념

1.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이다.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 노동자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절대적 주거빈곤의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97년 서울시가 주택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한 바 있으며, 1997년 건설교통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용역시행[25]하고 그 결과를 2000년 9월 건설교통부 고시(제2000-260)로 최저주거기준을 공표하였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당시의 "최저주거기준"은 ① 면적기준, ② 시설기준, ③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침실수를 제시하고, 침실·부엌·화장실·현관·수납공간등을 합한 총 주거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1인가구의 경우 12㎡(3.6평), 4인 가구의 경우 37㎡(11.2평)이었다. 시설기준은 침실·부엌·화장실등 주거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으로서 침실은 기본적으로 부부 침실을 확보하고, 만 5세 초과자녀의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되어야 하며,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의 침실과 노부모의 침실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용부엌 및 화장실을 확보하되,

25) 1997년 시행된 연구가 건설교통부「주거기준도입 방안 연구」이다.

부엌에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였다. 구조·성능·환경 기준으로는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추는 한편,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 기준 등이 종합되어 있으며, '97년의 연구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2000년의 최저주거면적을 1997년 서울시의 안과 국토연구원의 안과 비교할 때, 침실수는 같고, 면적은 약간 작은 면적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2〉 도입 당시 최저주거기준의 비교

	'97서울시		'97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자료참고)		'00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2)	실(방)구성 (K포함)	총주거면적 (m^2)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m^2)
1인	1K	14	1인침실	12.28	1K	12
2인	1K	23	주침실	20.29	1DK	20
3인	2K	32	주침실 주,1인침실	20.29 28.76	2DK	29
4인	3K	40	주,1인침실 주,2인침실 주,1인침실2	28.76 32.21 37.24	3DK	37
5인	3K	43	주,2인침실 주,1인침실2 주,2인,1인침실	32.91 37.94 41.38	3DK	41
6인	4K	51	주,2인,1인침실 주, 2인침실2 주, 2인, 1인2	41.38 44.76, 49.00	4DK	49
7인이상			주, 2인침실2 주, 2인, 1인2 주, 2인2, 1인	44.76 49.00 51.87	4DK	52

K: 부엌, DK: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수
자료: 대한주택공사·건설교통부(1999), 건설교통부(2000).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76년 일본이 발표한 최저기준과 비교할 때 24년이 지난 우리의 면적기준이 지나치게 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의 시설사용기준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 확보로 표기되어 있어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표 8-3〉 2000년 한국과 1976년 일본의 가구의 최저주거면적 비교

가구원수	실구성	주거면적(m2)			주거전용면적(m2)		
		한국(A)	일본(B)	A-B	한국(C)	일본(D)	C-D
1인	1K	8.16	7.5	0.66	12.28	16	-3.72
2인	1DK	13.80	17.5	-3.7	20.29	29	-8.71
3인	2DK	19.56	25.0	-5.44	28.76	39	-10.24
4인	3DK	25.32	32.5	-7.18	37.24	50	-12.76
5인	3DK	28.12	37.5	-9.38	41.38	56	-14.62
6인	4DK	34.90	45.0	-10.1	49.0	66	-17.0
7인	5DK	36.14	52.5	-16.36	51.87	76	-24.13

또한 일본의 경우 1976년 최저주거기준 발표 이후 가구원의 신체적, 연령적 특성에 따른 면적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1986년 이를 최저주거기준에 반영하여 70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거주수준의 면적기준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독신의 경우 거주실 면적을 일반가구의 7.5㎡에 비해 15.0㎡로 규정하고 있다(전용면적은 15㎡에서 25㎡로).

2003년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이 주택법에 반영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6월 15일 건설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새롭게 고시(2004-173호)한 바 있으나, 면적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 기준 중 새롭게 바뀐 것은 필수설비에 목욕시설을 추가하고 부엌과 화장실 기준을 각각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정도로 큰 개선은 없었다.

2011년 5월 면적기준이 지나치게 과밀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이 처음 발표된 이후 11년만에 개선되었다[26]. 면적기준과 관련해서는 3인 가구의 면적기준이 29㎡에서 36㎡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수도 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비기준에 하수도시설이 추가되었으며, 구조·성능·환경기준에 화재안전시설이 추가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2011년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방수, 주택면적 기준, 시설기준으로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구비, 그리고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①. 영구건물로 구조강도 확보, 구조부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등에 양호, ②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등을 갖출 것, ③. 소음·진동 등의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④자연재해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 불가,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8-4〉 2000년과 2011년 최저주거기준의 방수와 최저주거면적 비교

가구원수 (인)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총주거 면적(㎡)	
			현행	개선
1	1인 가구	1 K	12	14
2	부부	1 DK	20	26
3	부부+자녀1	2 DK	29	36
4	부부+자녀2	3 DK	37	43
5	부부+자녀3	3 DK	41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55

26) 개선시 고려사항은 평균신장의 증가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6,741호에 대한 면적조사 결과 하위 3% 면적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79년부터 '04년 사이에 20~24세 평균신장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 167.7㎝에서 173.8㎝로 여자의 경우 155.5㎝에서 160.7㎝로 늘어났다.

2. 주거비 부담

임차가구의 총주거비 합은 임대료, 수도료, 광열비와 같은 유지비를 포함하게 된다. 모기지를 이용하여 자가를 구입한 경우 주거비는 모기지 상환금, 이자도 주거비에 포함된다. 그런데 과도한 주거비(임대료 포함) 부담은 가계의 경제 능력을 떨어뜨려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활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Campbell, 1976: 11). 게다가 과도한 주거비는 다른 비용의 지출을 압박하기 때문에 가계의 균형적 지출을 깨뜨리는 등 가계의 균형운영을 어렵게 한다(이기영, 배순영, 1991: 242)

과도한 주거비의 기준은 얼마인가? 미국에서는 "일주일간의 급료로 월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보편적인 임대료의 상한선으로 보는 시각이 19세기부터 정착되어 왔다고 한다(William van Viet-- ed., 1998: 255).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1980년대 초까지는 가구소득의 25% 이상,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안되었다. 주거비 부담이 아주 심각하다는 기준은 소득의 50%를 주택과 관련된 비용지출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도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 임차가구에 적용될 때는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간단하게 정의되지만, 자가를 가진 가구가 부담하는 모기지 상환액과 이자가 소득의 과부담은 주택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자가를 제외하고 주거비 과부담의 기준은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Alex F. Schwarts, 2006: 23). 주택 바우처 수령대상인 임차가구가 스스로 지불하는 총지불액(total tenant payment)은 월 임대료와 유틸리비 비용(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실내조명, 조리용 가수와 전기료)은 가구조정 소득의 30%이자 월총소득의 10%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에서도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David Hulchinski and Michael Shapcott eds,. 2004: 401).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 형식의 임대료 지불체계가 정립되어 있어 월임대료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가 쉽다. 게다가 선진국처럼 주택구입시 모기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주거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주거비는 월세만을 반영하는 등 정확한 주거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월세가 과부담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를 추정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서 주거비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비가 가계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에서 추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참고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481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표본추출에 의해 추출된 20,000가구를 방문 면접조사하여 최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그 수량, 가격 파악을 위해 가계부 조사, 생활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된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측정되는 것은 아니고 '99년 처음 측정되었으며, 2차는 '04년, 그리고 이후부터는 3년 단위로 측정이 이루어져 '07년, 10년 측정되었다. 계측방식은 전물량 방식으로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활필수품목과 수량을 정한 뒤 가격, 사용기간을 고려해 생계비를 집계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1999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초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90만 1,357원이었으며 당시 주거비는 생계비의 19.4%를 차지하는 17만 4,863원이었다.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비는 2004년까지는 19.4%가 유지되었다가 2007년에는 17.7%로 2010년에는 15.8%로 하향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생계비의 계측에 사용된 최저

주거비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게 조사된 점에서 만일 어떠한 가구의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한다면 평균보다 많은 주거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기준이나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주거비(임대료 및 주거관련 비용)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30%를 과부담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주거빈곤층 규모

주거빈곤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만큼 주거빈곤층을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2000)에서는 주거빈곤층을 먼저 '주택을 생존의 수단, 생활의 도구로 활용할 뿐,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가구'로 규정한 후,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주거빈곤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가 차지할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과중해서 여타의 생활필수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최저 생계비 수준을 압박하는 가구, 둘째는 불법적으로 건축된 주택이거나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철거재개발의 항상적인 위협에 시달리는 가구, 셋째,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낳는 혐오·위해시설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도 위협받는 가구로 규정하였다.

주택을 생존이나 생활의 수단으로 삼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주거빈곤층을 파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파악된 주거빈곤층 역시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정의를 통해 주거빈곤층을 규명하려면 주택구입시 주택가격 상승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기집을 구입했다가 과도한 주거비로 시달리는 가구를 찾아내야 하며, 재

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중에도 보상금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가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태진(2009: 205)은 주거빈곤층을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물리적 측면에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지하, 컨테이너 등 비거주용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4분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으로,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주거빈곤층은 독거노인, 편부모, 소년소녀가장, 고령자·장애인, 노숙인 등으로 정의한다.

주거빈곤층을 이렇게 규정하면 주거빈곤층이 과대계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소득 기준으로 4분위 이하라는 것만해도 전가구의 40%를 지칭하게 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에는 소득이 하위 40%를 초과하는 가구도 있다. 또한 가구특성중 편부모나 고령자가 모두 가난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전가구의 40%를 넘는 가구가 주거빈곤가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층을 먼저 주택과 관련된 기준인 불량주택 거주, 노숙상태이거나 고시원 등 비거주용 건물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통해 파악하고,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를 살펴보고 끝으로 소득이 40% 이하이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부담 30%를 넘는 복합적인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수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 규모

가. 불량노후 주택 거주가구

주택기준으로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는 지하주거, 불량주택으

로 판자집이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를 주거빈곤층으로 정의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수는 2005년부터는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2005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부터 이러한 주거조건에 해당되는 가구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하거주가구 58만 6,649가구, 옥탑방 5만 1,139가구, 판잣집 거주가구 4만 5,239가구 등 전체가구의 4.3%인 68만 3,025가구가 불량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지하거주가구가 51만7,689가구, 옥탑방 4만8,988가구, 판잣집 거주가구가 1만6,475가구로 전체가구의 3.4%인 58만 3,152가구가 불량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하면 2010년 불량주택 거주가구는 약 10만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량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감소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27]이나 주택재개발사업[28], 그리고 2003년 도입된 뉴타운 사업[29] 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8-5〉 2005년~2010년 불량주택거주가구수의 변화

구 분	지하거주	옥탑방거주	판잣집거주	합계	전체가구 대비비율
2005년	586,649	51,139	45,239	683,025	4.3%
2010년	517,689	48,988	16,475	583,152	3.4%

출처 : 2005년도,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발표 자료

27)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칭한다.

28)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칭한다.

29) 서울특별시는 강북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4월23일에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 4065호)를 제정하였고, 2005년 1월 5일에는 이를 개정(서울특별시 조례 4250호)하였으나, 조례의 근거법이 필요하여 가칭 "뉴타운 특별법"의 제정을 도모하였다. 이어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에서 유사한 목적의 법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건교부가 당시 제시된 법안들을 종합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하였다.

나. 노숙 및 비거주용 건물 거주가구

2008년 8월 보건복지부는 1,317명의 거리노숙인, 3,479명의 쉼터노숙인 등 합하여 4,796명의 노숙인이 있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숫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과소추정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노숙인에는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 외에 노숙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정의해야 한다는 시각 때문이다.

김수현·이현주·손병돈(2009: 105~106)은 거리 노숙인 1000-1500명, 쉼터 입소자 3,000~4,000명, 부랑인 시설입소자 1만명, 쪽방 생활자 6,000명,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만화방이나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이 수 천명이라고 하였다.

남기철(2009)은 전국 쪽방상담소 10개소를 통해 파악된 쪽방 거주자 수가 2008년 9월말 현재 6,110명이며, 수도권 내 고시원 4,500개소의 14만명 거주자 중 직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극단적 위기에 몰려있는 수를 43,000명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숙인 범주 외에 부랑인의 범주가 따로 존재하며, 부랑인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숫자만도 9,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하면 정상적인 주거에 거주하지 못하는 가구는 58,000명을 상회한다. 여기에는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비전형 거주지 이용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태진(2009)은 주거상실가구로서 거리 및 쉼터(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주거불안가구로서 쪽방 일시거주자, 고시원 거주 단순노무직을 상정하고, 이들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약 5만 가구에 달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노숙인이나 쉼터, 부랑자 시설, 쪽방,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주거빈곤 가구를 추계해 보면 63,000-64,000가구로 추정된다.

〈표 8-6〉 2008년 노숙인, 비정상 거처 거주가구 규모 추정

부랑자	노숙인		비정상 거처 거주가구		계
부랑자 시설	거리노숙인	쉼터노숙인	쪽방 일시거주자	고시원 거주 단순노무직	
9,000-10,000	1,317	3,479	6,110	43,301	63,000~64,000

주: 부랑자 시설과 쪽방거주자는 남기철(2009), 노숙인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2008년 8월 발표자료를 인용했으며, 고시원 거주 단순노무직 거주자의 규모는 이태진(2009: 51)에서 인용

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가장 자주 널리 언급되는 주거빈곤층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이다. 1995년부터 2000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0년 발표된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었으며, 2005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4년 발표된 최저주거기준의 면적(표 4의 2000년 최저주거기준 참고)과 와 전용수세식 및 입식부엌, 온수 샤워시설 사용여부를 적용해서 추정된 것이다.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995년에는 시설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9.5%인 382만 가구, 방수기준으로 미달가구가 5.8%인 74만 9천 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가 11.5%인 148만 가구로 나타난다. 중복가구를 조정하면 1995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34.4%인 446만 가구에 달함을 알 수 있다. 2000년에는 이 비율이 감소하여 시설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17.4%인 248만 5천 가구, 방수기준으로 미달가구는 3.5%인 49만 5천 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9.1%인 130만 8천 가구, 중복가구를 조정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3%인 334만 가구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시설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8.6%인 136만 가구, 방수기준으로 미달가구는 1.1%인 16만 7천 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5.2%인 82만 8천 가구, 중복가구를 조정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13.0%인 206만 가구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10년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40만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1995-2005

(단위 : 만 가구, %)

구 분	전체 가구 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합계 (전체가구 대비비율)	시설기준 미달가구	침실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
1995	1,296	446(34.4)	382.0	74.9	148.9
2000	1,431	334(23.4)	248.5	49.5	130.8
2005	1,589	206(13.0)	136.0	16.7	82.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크게 감소한 것에는 가구원수의 감소와 신축주택이 현대적인 설비와 시설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다가구 등의 공동주택 건설, 앞에서 언급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인구주택총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의 의뢰로 2년 단위로 국토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거실태조사자료를 보면 2006년, 2008년, 2010년의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알 수 있다. 이 때 적용된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5월 27일 가구원수별로 2㎡~7㎡ 상향 조정된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시설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201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6%인 184만 가구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변화를 보면, 감소세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56만 가구가 줄어든 반며, 2008년에서 2010년에는 28만 가구만 감소했다는 점에서 감소세가 최근 들어 완만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8-8〉 2011년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추이 2006~2010

구 분	2006	2008	2010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만가구)	268	212	184
총 가구수(만가구)	1,616	1,667	1,734
미달가구 비율(%)	16.6	12.7	10.6

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한 가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의 경우 '85년 전체가구의 20.4%인 195만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가구의 0.2%인 3만 5천 가구로 감소하였다.

〈표 8-9〉 1980년~2010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가구(A)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3인이상 단칸방 거주가구(B)	1,785	1,952	1,408	388	100	326	35
B/A 비율	22.4	20.4	12.4	3.0	0.7	2.1	0.2

자료 :2005년까지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010년은 주거실태조사 자료

2.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의한 주거빈곤 가구 규모

주거비의 영역에는 임대료 외에 모기지 상환과 모기지 이자 대출도 포함될 수 있어 자가가구중에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가 있을 수 있으나, 자가를 포함한다면 자산가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점에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빈곤가구는 임차가구중에서 파악한다.

이를 위한 통계로는 2009년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분석한 이수욱외(2010: 100-103)의 자료를 제시한다. 동자료를 활용한 것은 2009년도 복지패널의 직접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서이다[30].

복지패널 자료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부터 확률비례추출한 국민생활실태조사 최종조사가구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표본추출하여 구성된 점에서 전국의 모수치와 가장 유사한 표본이라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1차로 구축

30) 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 연구자가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2008년도 복지패널 4차 자료이다.

된 복지패널의 표본은 7,072가구로,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복지패널조사는 표본추출시 OECD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에 표본의 50%를 할당하고 있으며, 주거분야에 대한 조사문항이 다양하고 경제활동, 소득 및 지출 등 타조사항목과 연계가 가능한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연구하는 것에 유용하다.

〈표 8-10〉 복지패널조사에서 가구일반·경제활동·가계·주거 관련 조사항목

구분	주요 조사항목
가구사항	가구구성, 생년월일, 교육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가구형태, 기초보장 수급형태, 의료급여 수급형태 등
경제활동 상태	근로능력정도,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고용관계, 근로지속가능성 여부 등
가계	가구원별 소득(11개 항목), 생활비 지출(13개 항목), 부채 및 이자지출, 재산(7개 항목) 등
주거	주택유형, 주거위치, 방수, 주거면적, 점유형태,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 주택구입비용 마련방법, 주택관련 부채, 대출상환액 연체정도,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에 대한 평가,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 주거복지프로그램 이용경험 및 만족도 등

이수욱 외(2010)에서 사용한 2009년도 패널은 6,192가구의 자료였다. 이수욱 외(2010)는 이를 활용하여 소득 대비 임대료(RIR) 부담이 20%와 30%를 넘는 가구를 주거빈곤가구로 칭하며 일반, 수급자, 차상위로 구분하여 주거빈곤가구의 규모를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RIR 20%를 넘는 가구는 일반가구의 경우 1.62%에 불과하며 수급자의 경우는 11.98%, 차상위층의 경우는 4.91%로 나타났다.

〈표 8-11〉 2009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RIR 20% 초과가구 비율

(단위: %)

	일반	수급자	차상위
비주거빈곤	4,247(98.38)	610(88.02)	1,124(95.09)
주거빈곤	70(1.62)	83(11.98)	58(4.91)
합계	4,317(100.00)	693(100.00)	1,182(100.00)

자료: 이수욱외(2010: 100의 표 5-38 RIR 20% 기준 주거빈곤가구의 규모 인용

주거빈곤가구의 지역별 실태 파악을 위해 이를 대도시, 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임대료 수준이 대도시에서 높고 농어촌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점에서 일반, 수급자, 차상위 가구 모두 대도시에서 도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갈수록 주거빈곤가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12〉 2009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RIR 20% 초과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일반	수급자	차상위
대도시	36(2.04)	40(7.46)	31(5.9)
도시	30(1.7)	33(6.16)	20(3.81)
농어촌	4(0.23)	9(1.08)	7(1.33)
주거빈곤가구 합계	70(1.62)	83(11.98)	58(4.91)

자료: 이수욱외(2010: 100의 표 5-39 지역별 RIR 20% 기준 주거빈곤가구의 규모에서 발췌인용

RIR 30%를 넘는 주거빈곤가구는 일반가구의 경우는 0.39%에 불과하며, 수급자 가구 4.91%, 차상위 가구이 2.54%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3〉 2009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RIR 30% 초과가구 비율

(단위: %)

	일반	수급자	차상위
비주거빈곤	4,300(99.61)	659(95.09)	1,152(97.46)
주거빈곤	17(0.39)	34(4.91)	30(2.54)
합계	4,317(100.00)	693(100.00)	1,182(100.00)

자료: 이수욱외(2010: 100의 표 5-38 RIR 20% 기준 주거빈곤가구의 규모 인용

RIR 30%를 초과하는 주거빈곤가구의 지역별 실태도 RIR 20%를 초과하는 주거빈곤가구의 지역별 실태처럼 대도시에서 도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갈수록 주거빈곤가구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비슷하였다. 다만 수급자 가구의 경우 대도시보다 도시지역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이 0.37% 높았으나, 사례가 2개에 불과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표 8-14〉 2009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RIR 30% 초과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일반	수급자	차상위
대도시	11(0.62)	14(2.61)	20(3.81)
도시	5(0.28)	16(2.99)	60(1.14)
농어촌	1(0.06)	4(0.75)	4(0.76)
주거빈곤가구 합계	17(0.39)	34(4.91)	30(2.54)

자료: 이수욱외(2010: 100의 표 5-39 지역별 RIR 20% 기준 주거빈곤가구의 규모에서 발췌인용

3.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부담이 중복된 주거빈곤 가구 규모

주거비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자료는 2008년에 실시된 복지패널 4차자료이다. 분석에 사용된 패널자료는 7,072가구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의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주거비 부담의 기준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30%로 설정하였다. 주거비는 월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의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전세 및 보증부월세와 같이 임대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율(8%)[31]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하였다. 자산[32]은 월소득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31) 보통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은 10% 내외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제1금융권은 대체로 5-7%, 제2금융권은 7-9%임을 감안하여 8%로 설정하였다.
32) 자산에는 임대보증금, 소유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기계설비 등이 포함되었다.

〈표 8-15〉 빈곤가구 규모 추정 논리

	최저주거기준 미달	최저주거기준 충족
주거비 부담 30% 초과	주거기준/주거비부담 주거빈곤	주거비부담 주거빈곤
주거비 부담 30% 이하	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	비주거빈곤

그리고 주거빈곤상태에 처해있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OECD의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 60% 미만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여 주거빈곤상태를 분석해보았다.

복지패널조사는 가중치 적용을 통한 모수추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수를 기준으로 주거빈곤 가구수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중위소득 60% 이하가구의 경우 주거빈곤 중복가구의 비율은 9.9%로 나타났으나, 일반가구의 경우 중복가구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주거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기준미달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가구가 20.2%로 일반가구의 16.2%에 비해서는 높지만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에 속한 가구의 소득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 수립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서는 36.%로 매우 높았던 반면, 일반가구는 7.4%로 나타났다. 역시 거주하는 주택보다는 매월 부담하는 주거비 부분에서 일반가구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16〉 2008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주거빈곤 가구수와 빈곤가구 비율

(단위: %)

구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일반가구	합계
중복 주거빈곤	216,756(9.9)	8,290(0.2)	225,046(3.2)
주거기준미달 주거빈곤	444,357(20.2)	797,202(16.2)	1,235,559(17.4)
주거비부담 주거빈곤	803,218(36.5)	359,272(7.4)	1,162,490(16.4)
비주거빈곤	733,034(33.4)	3,723,620(76.3)	4,456,654(63.0)
합계	2,197,365(100.0)	4,883,384(100.0)	7,078749(100.0)

주거빈곤가구중에도 소득도 OECD가 정한 기준으로는 빈곤가구인 중위소득 60% 이하가구중 주거기준에 미달된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는 21만 6,756가구의 주거빈곤 해소가 가장 절실하다.

참고문헌

강미나 · 김현진 · 이현지(2011). 「농촌거주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제317호, 국토연구원

강성민 · 유태균(2009).「자산빈곤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1호, pp. 115-138

건설교통부(1997).「주거기준도입방안연구」건설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2004).「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의 실태」

국무조정실(2007).『정부업무평가 백서』.

국민건강보험공단(2011).『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2011).『2010 국민연금통계연보』

국세청(2009).『2008 국세통계연보』

(2010).『2009 국세통계연보』

(2011).『2010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청책처(2010).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

국토해양부(2010).『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각연도). 조세지출보고서

김교성·최영(2006).「근로계층의 빈곤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8, pp. 119-141.

김명수(2003).『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김수현·이현주·손병돈(2009).『한국의 가난』, 한울 아카데미

김승권 외(2007). 『참여복지 5개년계획 평가연구 -2차 평가』, 정책07-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8).『제2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종합평가』, 정책08-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10).『2010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 정책11-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나(2007).「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Vol.29, pp. 145-168.
김안나 외(2005),『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렬(2009).「영국의 농촌지역 통계정보 현황」,『Keri 세계농업』
김주환(2007).『빈곤통계의 작성과 활용』, 집문당
남기철(2009).「늘어나는 노숙인: 가혹한 의자뺏기 놀이」, 『복지동향』 2월호
남상호(2009).「저소득층의 자산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2007).「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현황과 시사점」, 2007년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남상호·권순현 (2008).「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작산분포 현황과 빈곤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pp. 3-32
노대명·최승아(2004).『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황덕순·유진영·이은혜·원일(2007).『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주택공사(2000).「주거빈곤가구의 실태와 최저주거기준 달성방안」
대한주택공사(2004).「2003년 주거복지백서: 주거빈곤가구의 지역별 주거대책 모색을 중심으로」
박신영(2002).「주거빈곤가구의 특성」, 유주현편,『한국의 주택』, 통계청
보건복지부(2010).『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서울특별시,『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1997.

석상훈(2011).「자산빈곤과 빈곤지속」,『사회보장연구』제27권 제2호, pp. 163-186

석재은(2010).「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37, No.3, 193-214.

윤자영(2010).「기혼 여성 취업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이병희 외,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기영, 배순영(1991).「서울시 임차가계의 임대료부담과 가계경제문제 지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9권 제1 호 241-257

이병희(2009).「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경제발전연구』제15권 제1호, pp. 69-93.

이병희(2010).「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경제발전연구』 제16권 제1호, pp. 93-116.

이병희 · 반정호(2009).「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동향과 전망』통권 75호, pp. 215-244.

이수욱·전수연·김태환·이현지·최수(2010).『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이태진·신영석·김미곤·노대명(2005).『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 현시웅 · 김선미 · 우선희 · 김정은(2010).『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시행 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병인(2009).「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빈곤복지정책 현황과 역할」, 국제무역경영연구원,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15권, 1, pp. 59-91.

최옥금(2008).「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통계청(2010).『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11).『2010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각연도).「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한국은행(2011).『2010 경제통계연보』
하성규(1998).「주거빈곤의 배경과 유형」, 김형국·하성규(편),『불량주택 재개발론』, 나남출판사
하성규(2002).「주거빈곤의 순환누적 과정 및 정책적 대응방안」,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거빈곤 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거학회(2007).『주거복지론』, 교문사
홍경준(2005).「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한국사회복지학』57(2), pp.119~142.
홍경준(2011).「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Vol.38, No.2, pp. 65-88.
Aassve, Iacouvou, and Mencarinin(2006), "Youth Pover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15(2), pp. 21-50.
Alex Schwarts(2006), Hous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Bardone, Laura and Anne-Catherine Guio(2005), "In-Work Poverty", Statistics in focus, 5/2005, Eurostat
Bradshaw, J.R. and N Finch(2001), "Core Poverty Paper presented at the Center for the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SE, 7 2001 http://www.usesr.york.ac.kr
Brady and Kall(2008), "Nearly Universal, But Somewhat Distinc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Affluent Western Democracies, 1969-2000,", Social Science Research, 37, pp. 976-1007.
Bratt, Rachel(2000). "Housing and family well-being" *Housing Studies*, 17. 1 12-26
Burrow, Rodge(2003), Poverty and Homeownership in Contemporary Britain. The Policy Press, Bristol, UK.

Caner, N.A. and E.N. Wolff(2004),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19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50, No.4, 493-518

Crettaz, Eric and Giuliano Bonoli(2010), "Why are Some Workers Poor? The Mechanisms that produce Working Povert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Working Papers on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Welfare in Europe, REC-WP 12/2010.

Eller(1996), “Who Stays Poor? Who Doesn’t?” Current Population Reports, Dynamics of Economic Well-Being, Poverty 1992-1993

Eurofound(2010), Working Poor in Europ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Haveman and Wolff(2001), “Who Are the Asset Poor?: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3-1998,”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 1227-01.

Haveman, R. and E.N. Wolff(2004), “The Concepts and Measurement of Asset Poverty: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3-2001,"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Vol. 2, No.2

Hulchinski, David and Michael Shapcott eds.(2004), Finding Room: Policy Options for a Canadian Rental Housing Strategy. Toronto: Center for Urban and Community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Iceland(1997), “Urban Labor Markets and Individual Transitions Out of Poverty,” Demography, 34(3), pp. 429-441.

McCulloch(2003), “Local Labour Markets and Transitions Into and Out of Poverty: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Waves 1 to 8,”, Environment and Planning, 35, pp. 551-568.

McKernan and Ratcliffe(2005), “Events that Trigger Poverty Entries and Exits,”, Social Science Quarterly, 86, pp. 1146-1169.

McLaughlin and Jensen (1995), “Becoming Poor: The Experience of Elders,” Rural Sociology, 60(2), pp. 202-223.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Geneva: OECD.

OECD(2009), “Is Work the Best Antidote to Poverty?”, Employment Outlook, Geneva: OECD.

Pena-Casas, R. and M. Latta(2004),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Ponthieux, Sophie(2010), In-work Poverty in Europe, Eurostat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Rank and Hirschl(2001), “The occurrence of poverty across the life cycle: Evidence from the PSID,"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0, pp. 737-755.

Rank and Hirschl(2010), “Estimating the Life Course Dynamics of Asset Pover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10-25.

Sherraden(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e.

Smeeding(2001),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What Can be Learned from Cross-National Compariso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Working Papers 2001-11.

Smeeding(2005), “Public Policy, Economic Inequality, and Poverty: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Science Quarterly, 86(s), 955-984.

Stevens(1999),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Measuring the Persistence of Poverty Over Multiple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3), 567-588.

Stone, M.(1993), Shelter Poverty, Philadelphia : Temple Univ. Press.

Strengmann-Kuhn, Wolfgang(2002), "Working Poor in Europe: A Partial Basic Income for Workers?", paper presented to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Geneva.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6), A Profile of the Working Poor 2004, Washington D.C.: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Viet, Willem Van ed.(1998). the Encyclopedia of Hous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日本住宅協會(2000). 『住宅建築ハンドブック』東京: 日本住宅協會.

早川和男·岡本祥浩(1993).『居住福祉の論理』東京: 東京大學出版會.

住宅問題研究會(1993). 『住宅問題事典』東京: 東洋經濟新聞社.

부 록

부록

1. 빈곤지수

가. 빈곤율(Headcount Ratio: H)

□ 빈곤율은 라운트리(Rowntree, 1901) 이후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사용되어온 빈곤지수로서 Poverty Ratio 혹은 Headcount Ratio라고 부르고 있음.

-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의 소득(혹은 지출)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혹은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

$$HR(y, z) = \frac{q}{n}$$

- HR은 빈곤율[33], q는 소득(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혹은 가구)수이며, n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를 나타내며 y는 개인(혹은 가구)소득(혹은 지출), z는 빈곤선을 나타냄.

나.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 및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

□ 빈곤갭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사람들의

33) 빈곤율은 head-count ratio를 우리말로 표기한 것인데 만일 빈곤측정 단위가 가구일 경우 빈곤가구율, 그리고 빈곤측정단위가 개인일 경우 빈곤인구율로 표기하여 측정단위의 차이에 의한 혼돈을 피할 수 있음.

빈곤선과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을 의미함.

- 개인(혹은 가구) n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의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차($g_i = z - y_i$)로 정의됨.
- 총빈곤갭은 빈곤층 전체의 빈곤갭을 합한 $\sum_{i \in z(y)}^{q} g_i = \sum_{i=1}^{q} (z - y_i)$ 가 됨. 여기서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의미함.
  - 총빈곤갭은 미국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 the US)에서 개발됨.
- 위에서 구한 총빈곤갭을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개인(혹은 가구)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눌 경우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IGR = \frac{\sum_{i=1}^{q}(z - y_i)}{qz}$$

  - 여기서 IGR은 소득갭 비율, z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y_i는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속한 개인의 소득(혹은 지출), 그리고 q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를 나타냄.

□ 위에서 추정한 소득갭 비율에 빈곤율을 곱할 경우,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이라 부름. 즉, PGR=HR×IGR이며, 소득갭 비율의 공식에서 분모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사람(혹은 가구)수가 아닌 사회 전체의 사람(혹은 가구)로 나타낼 수 있음.

$$PGR = \frac{\sum_{i=1}^{q}(z - y_i)}{nz}$$

2. 불평등지수

가. 분배율

□ 소득 및 지출수준에 따라 분석대상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의 경계점 및 점유율을 기준으로 분위별 배율을 산출함으로써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살펴봄.

○ 소득점유율

- 5분위 소득배율 = 상위 20% 점유율 / 하위 20% 점유율
- 10분위 소득배율 = 상위 10% 점유율 / 하위 10% 점유율
- 10분위 분배율 = 하위 40% 점유율 / 상위 20% 점유율

○ 분위수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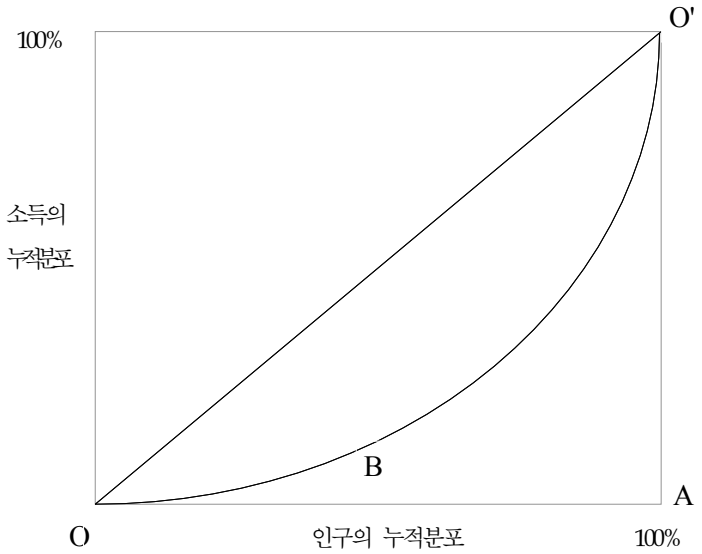
- P90/10 = 상위 10% 기준 / 하위 10% 기준
- P90/50 = 상위 10% 기준 / 중위소득·지출 기준
- P80/20 = 상위 20% 기준 / 하위 20% 기준

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 널리 사용되어온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Gini(1912)에 의해 고안된 지수임. 로렌쯔곡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로렌쯔곡선은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정렬한 인구의 비율을 횡축으로 하고 인구의 x%에 의해 향유되는 소득의 비율을 종축으로 해서 그려짐.
- 만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다면 로렌츠 곡선은 단순히 사선(45도선)이 되지만, 완전한 평등이 아닌 상태에서는 하위 소득집단들은 비율적으로 더 낮은 비율의 소득을 향유할 것임.
- 지니계수는 위와 같은 로렌츠 곡선에서 절대적 평등선(OO')과 로렌츠

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tio)로 계산됨. 즉, OAO'에서 OBO'를 나눈 값으로 계산됨.



– 지니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약간의 조작을 하면 모든 쌍의 소득들 간의 차이의 절대값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는 상대평균차의 정확히 절반(1/2)임.

-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음.

$$G=(1/2n^2\mu)\sum_{i=1}^{n}\sum_{j=1}^{n}|y_i-y_j|$$

$$=1-(1/n^2\mu)\sum_{i=1}^{n}\sum_{j=1}^{n}Min(y_i,y_j)$$

$$=1+(1/n)-(2/n^2\mu)[y_1+2y_2+\ldots+ny_n] \text{ for } y_1\geq y_2\geq\ldots\geq y_n.$$

다.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

□ 앳킨슨(Akinson, 1970)은 로렌츠 곡선에 기초하여 사회후생을 비교할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박찬용 외, 1999), 이를 앳킨슨지수라 함. 그는 우리가 채택하기를 원하는 사회후생함수를 먼저 찾아놓고 이를 반영하는 불평등도의 지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함(이준구, 2003).

- 앳킨슨지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level of income, y_{EDE})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음. 이는 어떤 총소득의 수준이 있어 만약 이 수준의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기만 한다면 현재의 분배상태 하에서 누리고 있는 사회후생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후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할 때, 이 총소득의 평균을 지칭하는 것임.
- 그러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현재의 분배상태에 불평등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사회후생이 저하되고 있는 한 현실의 평등분배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며,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양자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
- 앳킨슨지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형태를 가짐(이준구, 2003).

$$A = 1 - (y_e/\mu)$$

□ 앳킨슨지수에서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y_e는 μ와 동일하고, 앳킨슨 측정치 값은 0이 될 것임. 어떠한 분포에서든, A값은 0과 1 사이에 있음.

- 앳킨슨지수는 위험이론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위험이 포함된 선택과 위험이 포함되지 않은 선택 사이에서 위험을 선택함으로써 지불하여야 하는 최대 가치를 나타내기도 함. 이를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음.

$$A_\epsilon = 1 - [\frac{1}{N}\sum(\frac{y_i}{\mu})^{1-\epsilon}]^{\frac{1}{1-\epsilon}} \quad \epsilon \neq 1,\ \epsilon \geqq 0$$
$$= 1 - \exp[\frac{1}{N}\sum \ln \frac{y_i}{\mu}] \quad \epsilon = 1$$

- 여기에서, 파라미터 ε는 불평등을 혐오하는 정도를 나타냄. 즉, ε이 커질수록 사회구성원은 불평등을 싫어하며, ε= 0 이면 불평등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임.
- ε= 0 인 경우에는 A_ϵ= 0이 되고, 사회후생은 분배에는 무관하고 소득 증대(효율성)에만 좌우하게 됨. 따라서 X, Y 두 분배 상태가 동일한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에 따라 Aε 값은 달라질 것임.
- 예를 들어 부유층의 소득 y_j가 빈곤층의 소득 y_i 보다 4배 더 많고, 불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세와 이전지출 정책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빈곤층이 만원을 받기 위해 부유층이 지출해야 하는 조세는 4ε만원이 될 것임. 이 경우에 불평등도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부유층의 조세 규모는 변하게 되는 것임.

3. 주요국가의 빈곤

□ 주요국가의 빈곤 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 소득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빈곤은 상대적 빈곤인 중위소득·지출의 40, 50, 60%를 기준으로 한 것임.

〈부표 1〉 주요국가 빈곤수준

국가	연도	빈곤선(가처분소득 중위의 비율)								
		총인구			아동			노인		
		40	50	60	40	50	60	40	50	60
호주	1989	6.2	12.2	19.1	9.3	15.0	21.2	5.6	23.8	45.7
	1995	4.8	11.4	20.6	6.5	13.1	22.3	4.4	21.8	44.2
	2001	5.5	13.0	21.6	6.7	14.9	23	4.7	23.0	46.7
	2003	5.4	12.2	20.4	6.9	14.0	22.1	5.8	22.3	44.9
캐나다	1991	6.3	11.0	16.6	9.0	15.3	21.2	1.3	5.8	19.3
	1994	6.5	11.3	17.6	8.6	15.4	22.2	1.2	4.9	17.4
	1997	7.4	11.9	18.4	9.6	15.7	23.1	1.4	5.4	17.3
	1998	8.0	12.9	19.8	9.3	16.2	23.8	1.7	6.2	18.9
	2000	7.2	12.4	18.9	8.1	15.5	23.8	1.4	5.4	16.2
	2004	7.7	13.0	19.9	9.7	16.8	25.3	1.4	6.3	17.6
핀란드	1991	2.6	5.7	11.2	1.2	2.3	5.5	3.6	13.9	30.9
	1995	1.6	4.2	9.2	0.6	2.0	4.6	0.6	5.6	18.3
	2000	2.1	5.4	12.4	1.3	2.8	8.0	1.1	8.5	24.8
	2004	2.5	6.5	13.5	1.3	3.7	9.7	2.1	10.1	25.5
프랑스	1989	4.8	8.9	15.5	3.9	8.3	15.5	7.2	14.7	25.5
	1994	3.4	8.0	14.1	2.9	7.9	14.3	3.4	9.8	18.5
	2000	2.8	7.3	13.7	2.6	7.9	15.9	3.0	8.5	16.2
독일	1984	4.0	7.9	14.1	3.9	8.5	14.9	6.8	14.0	25.6
	1989	3.2	5.8	11.4	1.6	4.1	10.6	6.2	11.3	22.4
	1994	4.5	8.2	13.6	5.4	9.5	15.2	4.8	9.7	17.8
	2000	4.6	8.4	13.4	5.5	9.0	14.2	4.0	10.4	18.6

국가	연도	빈곤선(가처분소득 중위의 비율)								
		총인구			아동			노인		
		40	50	60	40	50	60	40	50	60
이탈리아	1991	4.5	10.4	19.1	6.0	14.0	25.6	5.5	15.7	27.4
	1993	8.2	14.0	21.8	12.5	19.9	28.9	5.2	13.8	24.2
	1995	8.5	14.1	21.2	13.3	19.0	27.8	4.6	14.3	23.3
	1998	8.3	14.1	20.8	12.3	18.4	27.0	7.0	15.9	24.0
	2000	7.4	12.8	20.0	10.5	16.6	26.5	5.6	14.3	22.6
	2004	6.9	12.1	20.3	10.4	18.4	29.6	5.1	11.2	21.7
멕시코	1992	14.9	20.6	26.3	18.1	24.6	31.3	20	27.1	33.9
	1994	14.6	21.8	27.8	17.8	26.2	32.9	20.9	31.0	38.0
	1996	13.6	20.2	26.3	17.0	25.0	31.9	19.8	27.4	33.9
	1998	16.2	21.9	28.3	20.7	27.6	34.8	23.0	29.4	37.4
	2000	15.4	21.5	28.1	19.7	26.9	34.7	21.9	28.3	36.2
	2002	13.7	20.2	26.7	16.7	24.8	32.6	20.9	27.9	34.8
	2004	12.6	18.4	25.3	15.4	22.2	30.1	19.3	27.3	35.2
스웨덴	1992	4.1	6.7	12.1	1.6	3.0	6.2	1.5	6.4	19.8
	1995	4.7	6.6	10.0	1.3	2.6	5.5	0.8	2.7	7.8
	2000	3.8	6.5	12.3	1.8	4.2	9.2	2.1	7.7	21.2
	2005	2.6	5.6	12.0	2.0	4.7	10.9	1.5	6.6	20.6
대만	1991	2.3	6.5	12.5	2.1	6.9	14.3	9.7	18.4	26.4
	1995	2.8	6.7	13.4	2.0	6.2	14.6	12.7	21.7	30.9
	1997	4.3	9.1	15.5	3.8	9.2	16.9	13.9	24.7	33.2
	2000	4.5	9.1	15.7	3.0	8.0	16.1	16.1	25.7	35.9
	2005	5.0	9.5	15.8	3.0	7.7	15.0	18.8	28.7	38.5
영국	1991	6.7	14.6	22.8	8.6	18.5	26.9	8.3	23.9	43.5
	1994	4.3	10.8	20.0	4.3	13.9	26.6	5.0	15.1	29.4
	1995	6.1	13.4	22.1	8.4	19.8	30.1	4.0	13.7	29.1
	1999	5.3	12.5	21.1	5.9	17.0	28.0	6.7	17.2	31.6
	2004	5.4	11.6	19.2	5.7	14.0	24.2	6.1	16.5	28.6
미국	1991	12.1	18.1	24.3	18.2	25.6	33.1	12.6	21.6	30.0
	1994	11.8	17.8	24.3	16.9	24.5	32.3	11.8	20.6	29.3
	1997	10.8	16.9	23.9	14.8	22.5	31.1	12.0	20.7	29.9
	2000	10.8	17.0	23.8	14.1	21.9	30.2	15.1	24.7	33.3
	2004	11.4	17.3	24.1	14.4	21.2	29.1	14.3	24.6	34.7

자료: LIS, 홈페이지(http:\\www.lisproject.org)

4. 주요국가의 소득종류별 빈곤 및 불평등

가. 빈곤

〈부표 2〉 주요국가 소득종류별 빈곤수준

국가	연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40	50	60	40	50	60	40	50	60
호주	1989	17.7	21.8	26.5	10.9	18.0	24.4	6.2	12.2	19.1
	1995[1)]	17.2	21.8	27.4	9.5	19.0	26.0	4.8	11.4	20.6
	2001	18.7	23.4	28.7	10.2	19.4	26.5	5.5	13.0	21.6
	2003	18.6	23.7	28.0	10.0	18.8	25.5	5.4	12.2	20.4
캐나다	1991	16.7	21.0	26.0	9.4	15.1	21.6	6.3	11.0	16.6
	1994	17.7	22.3	27.3	9.6	15.7	22.8	6.5	11.3	17.6
	1997	17.6	22.3	27.5	10.3	16.5	23.7	7.3	11.9	18.4
	1998	19.3	24.3	29.1	11.2	17.3	24.1	8.0	12.9	19.8
	2000	18.3	23.0	28.0	10.8	17.0	23.9	7.2	12.4	18.9
핀란드	1991	13.7	18.5	24.2	4.8	9.7	15.7	2.6	5.7	11.2
	1995	15.7	20.2	25.8	3.9	8.9	16.2	1.6	4.2	9.2
	2000	21.9	25.7	29.8	4.7	11.4	18.5	2.1	5.4	12.4
	2004	23.7	27.3	31.1	5.3	11.6	19.1	2.5	6.5	13.5
프랑스	1989	12.1	18.9	25.8	4.3	8.6	15.9	4.8	8.9	15.5
	1994	23.4	27.2	31.8	3.6	8.4	14.8	3.4	8.0	14.1
	2000	24.1	27.8	32.0	3.0	7.8	14.5	2.8	7.3	13.7
독일	1989	17.9	20.5	24.8	5.5	10.7	16.8	3.2	5.8	11.4
	1994	22.0	24.9	28.9	7.2	12.5	19.1	4.5	8.2	13.6
	2000	25.4	28.5	31.8	8.1	13.8	20.4	4.6	8.4	13.4
이탈리아	1991	14.2	17.0	23.3	4.5	10.4	19.1	4.5	10.4	19.1
	1993	19.7	22.5	27.0	8.2	14.0	21.8	8.2	14.0	21.8
	1995	20.6	23.2	26.9	8.5	14.0	21.2	8.5	14.0	21.2
	1998	23.1	26.0	29.4	8.4	14.2	20.8	8.4	14.2	20.8
	2000	21.7	24.5	28.4	7.4	12.8	20.0	7.4	12.8	20.0

국가	연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40	50	60	40	50	60	40	50	60
멕시코	1992	16.7	22.0	27.4	14.9	20.6	26.3	20.0	27.1	33.9
	1994	17.1	23.6	29.4	14.6	21.8	27.8	20.9	31.0	38.0
	1996	16.3	22.7	28.1	13.6	20.2	26.3	19.8	27.4	33.9
	1998	18.3	23.8	30.1	16.2	21.9	28.3	23.0	29.5	37.5
	2000	17.9	23.1	29.2	15.4	21.5	28.1	21.9	28.3	36.2
	2002	17.3	23.0	28.8	13.7	20.2	26.8	21.1	27.9	34.9
	2004	15.5	21.1	27.1	12.6	18.4	25.3	19.3	27.3	35.2
스웨덴	1992	28.9	31.8	35.2	5.1	9.7	15.5	4.1	6.7	12.1
	1995	27.0	30.7	34.2	5.5	8.5	13.0	4.7	6.6	10.0
	2000	24.9	28.0	31.5	6.3	10.9	17.2	3.8	6.6	12.3
	2005	24.5	27.7	31.3	4.1	8.4	15.6	2.6	5.6	12.0
대만	1991	4.6	8.7	14.3	2.4	6.7	12.8	2.3	6.5	12.5
	1995	6.1	10.1	16.3	2.9	6.8	13.5	2.8	6.7	13.4
	1997	6.7	10.6	16.7	3.5	8.0	14.4	3.8	8.2	14.8
	2000	7.8	12.0	17.7	4.1	8.4	15.1	4.1	8.4	15.0
	2005	10.0	14.2	20.3	5.0	9.7	15.8	5.0	9.5	15.8
영국	1991	21.8	26.0	30.3	11.7	20.5	27.0	6.7	14.6	22.8
	1994	23.2	26.9	31.2	8.1	17.7	26.2	4.3	10.8	20.0
	1995	23.1	26.7	30.8	11.9	20.5	28.1	6.1	13.4	22.1
	1999	23.0	26.7	30.6	9.4	18.2	26.0	5.3	12.5	21.1
	2004	22.5	26.9	31.1	7.5	15.4	23.4	5.4	11.6	19.2
미국	1991	18.8	23.9	29.0	14.7	20.8	26.6	12.1	18.1	24.3
	1994	19.7	24.5	29.5	14.4	20.7	27.0	11.8	17.8	24.3
	1997	19.0	24.0	29.4	13.5	20.2	26.7	10.8	16.9	23.9
	2000	18.8	23.9	29.2	13.6	19.9	26.3	10.8	17.0	23.8
	2004	19.4	24.5	29.8	13.6	20.0	26.6	11.4	17.3	24.1

주: 1) 1995 survey replaces 1994 survey (09/2006)
자료: LIS, 홈페이지(http:\\www.lisproject.org)

나. 불평등

〈부표 3〉 주요국가 불평등(가처분소득 - DPI : Net Disposal Income)

국가	연도	지니 계수	앳킨슨지수		분위수배율		
			ε=0.5	ε=1.0	(90/10)	(90/50)	(80/20)
호주	1989	0.304	0.077	0.157	4.19	1.94	2.59
	1995	0.308	0.081	0.171	4.02	1.94	2.70
	2001	0.317	0.085	0.176	4.25	1.99	2.73
	2003	0.312	0.082	0.172	4.24	1.98	2.71
캐나다	1991	0.281	0.066	0.134	3.78	1.82	2.33
	1994	0.284	0.067	0.136	3.87	1.85	2.39
	1997	0.291	0.072	0.150	4.01	1.86	2.45
	1998	0.311	0.083	0.171	4.24	1.90	2.53
	2000	0.315	0.085	0.172	4.19	1.93	2.52
	2004	0.318	0.086	0.172	4.38	1.96	2.59
핀란드	1991	0.210	0.037	0.077	2.63	1.53	1.83
	1995	0.217	0.040	0.078	2.58	1.58	1.84
	2000	0.247	0.053	0.101	2.90	1.64	2.02
	2004	0.252	0.054	0.105	3.04	1.68	2.07
프랑스	1989	0.287	0.074	0.159	3.46	1.82	2.24
	1994	0.288	0.069	0.132	3.54	1.91	2.23
	2000	0.278	0.064	0.124	3.45	1.88	2.23
독일	1984	0.268	0.064	0.129	3.20	1.73	2.10
	1989	0.257	0.058	0.118	2.99	1.73	2.02
	1994	0.272	0.064	0.128	3.39	1.82	2.16
	2000	0.275	0.064	0.125	3.37	1.80	2.12
이탈리아	1991	0.290	0.069	0.135	3.76	1.85	2.49
	1993	0.339	0.097	0.196	4.68	2.06	2.82
	1995	0.338	0.097	0.195	4.65	2.00	2.72
	1998	0.346	0.103	0.206	4.68	2.01	2.71
	2000	0.333	0.094	0.185	4.47	1.99	2.64
	2004	0.338	0.098	0.188	4.41	2.01	2.64

국가	연도	지니 계수	앳킨슨지수		분위수배율		
			ε=0.5	ε=1.0	(90/10)	(90/50)	(80/20)
멕시코	1992	0.485	0.192	0.348	10.72	3.12	4.21
	1994	0.495	0.200	0.358	10.95	3.37	4.42
	1996	0.477	0.185	0.333	9.26	3.11	4.16
	1998	0.492	0.198	0.362	11.45	3.27	4.59
	2000	0.491	0.196	0.353	10.39	3.31	4.39
	2002	0.471	0.181	0.326	9.36	3.09	4.05
	2004	0.458	0.172	0.316	8.49	2.98	3.80
스웨덴	1992	0.229	0.047	0.102	2.78	1.59	1.91
	1995	0.221	0.047	0.104	2.61	1.56	1.76
	2000	0.252	0.056	0.112	2.96	1.69	2.01
	2005	0.237	0.049	0.097	2.82	1.63	1.97
대만	1991	0.271	0.060	0.114	3.35	1.89	2.21
	1995	0.277	0.062	0.119	3.38	1.89	2.24
	1997	0.287	0.067	0.129	3.62	1.92	2.30
	2000	2.289	0.068	0.132	3.68	1.94	2.31
	2005	0.305	0.077	0.147	3.96	2.02	2.41
영국	1991	0.336	0.094	0.186	4.67	2.06	2.95
	1994	0.339	0.096	0.188	4.32	2.12	2.77
	1995	0.344	0.100	0.204	4.57	2.10	2.84
	1999	0.343	0.098	0.193	4.57	2.15	2.82
	2004	0.345	0.100	0.194	4.46	2.14	2.69
미국	1991	0.338	0.096	0.201	5.65	2.04	3.07
	1994	0.355	0.105	0.214	5.85	2.15	3.11
	1997	0.372	0.118	0.229	5.57	2.14	3.03
	2000	0.368	0.115	0.224	5.46	2.10	3.00
	2004	0.372	0.119	0.233	5.68	2.13	3.06

자료: LIS, 홈페이지(http:\\www.lisproject.org) 2008년 6월 27일 업데이트 반영

〈부표 4〉 주요국가 불평등(시장소득 - MI: Market Income)

국가	연도	지니 계수	앳킨슨지수		분위수배율		
			ε=0.5	ε=1.0	(90/10)	(90/50)	(80/20)
호주	1989	0.399	0.156	0.365	16.67	2.17	3.77
	1995	0.399	0.156	0.368	15.38	2.11	3.68
	2001	0.415	0.166	0.382	16.20	2.18	3.98
	2003	0.405	0.156	0.360	13.25	2.18	4.05
캐나다	1991	0.376	0.129	0.284	8.63	2.09	3.43
	1994	0.380	0.133	0.294	9.42	2.11	3.68
	1997	0.379	0.132	0.293	8.95	2.10	3.68
	1998	0.409	0.154	0.338	11.27	2.16	4.09
	2000	0.406	0.151	0.325	10.52	2.20	3.94
핀란드	1991	0.330	0.100	0.222	6.02	1.86	2.85
	1995	0.369	0.123	0.270	8.16	2.08	3.34
	2000	0.415	0.174	0.411	23.65	2.07	4.81
	2004	0.435	0.195	0.466	54.99	2.14	6.03
프랑스	1989	0.373	0.124	0.264	6.14	2.11	3.14
	1994	0.462	0.208	0.473	50.45	2.42	6.50
	2000*	0.463	0.213	0.493	72.27	2.42	6.88
독일	1989	0.390	0.163	0.405	31.78	2.03	3.36
	1994	0.421	0.184	0.448	49.54	2.15	5.11
	2000	0.452	0.211	0.501	94.50	2.23	8.15
이탈리아	1991	0.369	0.140	0.348	12.13	2.00	2.94
	1993	0.427	0.178	0.420	28.45	2.34	4.44
	1995	0.428	0.181	0.426	29.62	2.34	4.73
	1998*	0.457	0.209	0.479	61.89	2.31	6.33
	2000*	0.447	0.201	0.472	70.01	2.29	5.31
멕시코	1992	0.496	0.203	0.373	11.83	3.18	4.47
	1994	0.511	0.216	0.399	13.34	3.38	4.65
	1996	0.497	0.203	0.375	11.78	3.23	4.55
	1998*	0.509	0.215	0.402	14.19	3.34	5.12
	2000*	0.507	0.214	0.400	12.93	3.37	4.97
	2002*	0.495	0.205	0.387	12.69	3.17	4.63
	2004*	0.478	0.191	0.363	10.41	3.03	4.23

국가	연도	지니 계수	앳킨슨지수		분위수배율		
			ε=0.5	ε=1.0	(90/10)	(90/50)	(80/20)
스웨덴	1992	0.451	0.210	0.489	51.48	2.15	11.12
	1995	0.441	0.189	0.429	24.28	2.20	7.29
	2000	0.431	0.182	0.412	22.73	2.12	6.50
	2005	0.425	0.175	0.397	19.53	2.09	6.18
대만	1991	0.293	0.074	0.152	3.71	1.95	2.30
	1995	0.309	0.084	0.179	3.99	1.99	2.43
	1997	0.312	0.086	0.188	4.07	1.97	2.43
	2000	0.322	0.095	0.212	4.37	2.00	2.48
	2005	0.350	0.116	0.273	5.28	2.11	2.74
영국	1991	0.431	0.179	0.413	23.88	2.26	4.99
	1994	0.451	0.196	0.446	30.86	2.33	5.91
	1995	0.444	0.191	0.437	28.31	2.33	5.60
	1999	0.447	0.190	0.426	23.08	2.34	5.47
	2004	0.449	0.188	0.415	18.78	2.40	5.19
미국	1991	0.412	0.152	0.332	11.18	2.36	4.25
	1994	0.438	0.171	0.367	12.61	2.48	4.50
	1997	0.453	0.182	0.374	12.03	2.49	4.37
	2000	0.454	0.180	0.368	11.23	2.53	4.35
	2004	0.458	0.185	0.381	12.28	2.58	4.56

주: * market income 변수 대신 net market income 변수로 분석함.
자료: LIS 자료 원자료

〈부표 5〉 주요국가 불평등(경상소득 - GI: Gross Income)

국가	연도	지니 계수	앳킨슨지수		분위수배율		
			ε=0.5	ε=1.0	(90/10)	(90/50)	(80/20)
호주	1989	0.354	0.104	0.207	5.58	2.14	3.16
	1995	0.357	0.107	0.217	5.18	2.11	3.32
	2001	0.366	0.112	0.223	5.46	2.17	3.33
	2003	0.359	0.108	0.217	5.44	2.18	3.36
캐나다	1991	0.322	0.086	0.172	4.77	1.97	2.72
	1994	0.327	0.088	0.176	4.93	2.00	2.86
	1997	0.333	0.093	0.190	5.10	2.01	2.92
	1998	0.353	0.106	0.212	5.38	2.06	3.02
	2000	0.355	0.107	0.211	5.33	2.07	3.02
핀란드	1991	0.258	0.056	0.110	3.39	1.71	2.13
	1995	0.271	0.061	0.118	3.45	1.79	2.23
	2000	0.293	0.071	0.137	3.82	1.84	2.39
	2004	0.298	0.074	0.142	3.87	1.84	2.45
프랑스	1989	0.303	0.078	0.152	3.69	1.93	2.33
	1994	0.306	0.078	0.146	3.78	1.99	2.34
	2000*	0.299	0.073	0.139	3.73	2.00	2.35
독일	1989	0.303	0.079	0.157	3.89	1.90	2.39
	1994	0.318	0.085	0.168	4.39	1.98	2.59
	2000	0.325	0.088	0.171	4.59	2.00	2.66
이탈리아	1991	0.290	0.069	0.135	3.76	1.85	2.49
	1993	0.339	0.097	0.196	4.68	2.06	2.82
	1995	0.338	0.097	0.195	4.65	2.00	2.72
	1998*	0.346	0.103	0.206	4.68	2.01	2.71
	2000*	0.333	0.094	0.185	4.47	1.99	2.64
멕시코	1992	0.485	0.192	0.348	10.72	3.12	4.21
	1994	0.495	0.200	0.358	10.95	3.36	4.42
	1996	0.477	0.158	0.333	9.26	3.11	4.16
	1998*	0.492	0.198	0.362	11.45	3.26	4.59
	2000*	0.491	0.196	0.353	10.38	3.31	4.39
	2002*	0.471	0.181	0.326	9.36	3.09	4.05
	2004*	0.458	0.172	0.316	8.49	2.98	3.80

국가	연도	지니 계수	앳킨슨지수		분위수배율		
			ε=0.5	ε=1.0	(90/10)	(90/50)	(80/20)
스웨덴	1992	0.260	0.060	0.126	3.33	1.69	2.07
	1995	0.263	0.063	0.134	3.17	1.71	2.02
	2000	0.289	0.073	0.145	3.72	1.78	2.25
	2005	0.273	0.064	0.126	3.35	1.76	2.16
대만	1991	0.276	0.062	0.118	3.41	1.91	2.23
	1995	0.281	0.064	0.122	3.44	1.92	2.26
	1997	0.289	0.068	0.130	3.60	1.93	2.30
	2000	0.292	0.070	0.133	3.71	1.96	2.32
	2005	0.309	0.078	0.149	4.02	2.04	2.44
영국	1991	0.367	0.109	0.211	5.84	2.23	3.51
	1994	0.369	0.110	0.208	5.36	2.26	3.34
	1995	0.378	0.117	0.229	5.94	2.27	3.51
	1999	0.373	0.113	0.216	5.62	2.29	3.37
	2004	0.368	0.111	0.211	5.29	2.28	3.11
미국	1991	0.380	0.120	0.242	7.18	2.29	3.62
	1994	0.402	0.134	0.264	7.42	2.42	3.68
	1997	0.417	0.146	0.277	7.13	2.43	3.60
	2000	0.418	0.145	0.276	7.12	2.45	3.59
	2004	0.416	0.145	0.278	7.17	2.43	3.62

주: * gross income 변수 대신 net gross income 변수로 분석함.
자료: LIS 자료 원자료

5. 빈곤선

〈부표 6〉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4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부표 7〉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89	121,729	201,895	276,424	339,603	397,284	450,399
1990	135,223	226,043	316,556	388,469	452,771	510,368
1991	150,214	253,080	362,514	444,365	516,008	578,322
1992	166,866	283,351	415,145	508,304	588,077	655,324
1993	185,365	317,243	475,417	581,444	670,211	742,578
1994	205,914	355,188	544,439	665,107	763,817	841,450
1995	224,127	383,470	575,191	706,794	810,071	896,700
1996	243,950	414,004	607,680	751,093	859,125	955,579
1997	265,527	446,970	642,005	798,169	911,151	1,018,323
1998	289,012	482,560	678,268	848,195	966,326	1,085,187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2000	327,550	542,474	746,137	938,536	1,067,116	1,204,142
2001	341,060	564,850	776,913	977,249	1,111,132	1,253,811
2002	355,128	588,149	808,959	1,017,559	1,156,964	1,305,528
2003	369,777	612,409	842,328	1,059,531	1,204,687	1,359,379
2004	385,029	637,670	877,072	1,103,235	1,254,378	1,415,451
2005	404,274	673,371	914,643	1,144,763	1,312,494	1,488,387
2006	424,480	711,071	953,824	1,187,855	1,373,303	1,565,080
2007	445,697	750,881	994,683	1,232,569	1,436,929	1,645,726
2008	467,974	792,920	1,037,293	1,278,966	1,503,503	1,730,527
2009	491,365	837,313	1,081,725	1,327,109	1,573,161	1,819,698
2010	515,924	884,191	1,128,065	1,377,065	1,646,047	1,913,464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재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KIHASA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6,000원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 지대응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미정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미정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미정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6,000원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11-17-4	2011 보건복지 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미정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미정
	11-21	탈수급 제고를 위한 기초보장 패널구축: 역동성 평가를 위한 양적·질적 패널 구축 및 기초연구	최현수	미정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7,000원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8,000원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 국제비교연구: 정부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복지서비스행정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미정

	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미정
	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5,000원
	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7,000원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6,000원
	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미정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5,000원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6,000원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미정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미정
	11-37-1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7,000원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미정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미정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미정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미정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6,000원
	11-37-14	고령친화여가 산업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8,000원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5,000원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미정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이소정	미정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발간	국제심포지움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미정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미정
	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애랑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김미숙	13,000원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미정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비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미정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미정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비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예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5,000원
	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